

2019 정기총회

새어린이안 작은도서관협회

날짜 2019년 1월 24일(목)

시간 오후 2시

장소 서울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

2019 정기총회

새어린이안 작은도서관협회

날짜 2019년 1월 24일(목)

시간 오후 2시

장소 서울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



한글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약
그 바늘 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주  

총회 순서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3. 서기 및 회의록 기명자 선출
4. 안건 순서 의결
5. 안건 심의 및 의결
 - 1) 2018년 사업평가에 관한 건 (보고)
 - 2) 2018년 결산에 관한 건 (승인)
 - 3) 임원 선출에 관한 건
 - 4) 2019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 (승인)
 - 5) 2019년 예산에 관한 건 (승인)
 - 6) 기타 안건
 - 규칙변경에 관한 건
6. 회의록 채택
7. 폐회 선언

자료집 순서

■ 함께 보는 글 하나	3
■ 총회 진행 순서	4
■ 안건 심의 및 의결 자료	
1. 2018년 사업 보고	6
2. 감사 보고	84
3. 2018년 결산 보고	85
4. 회계 감사 보고	88
5. 2019년 사업 계획	90
6. 2019년 예산	95
7. 임원 선출에 관한 건	97
8. 기타안건	
_규칙 개정에 관한 건	98
9. 협회 연혁 및 소개	103
10. 정관	108
11. 규칙	118
12. 회원 주소록	121

2018년 사업 보고

*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관 제 5장 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에서 2018년 사업 보고 및 평가를 승인 하였습니다.

- 승인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회

■ 사업 총평

2019년 총회를 열며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의의 인사말이 아니라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실감하며 안부를 묻는 인사로 여러분과 한 해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버티는 것만이 힘겹게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20년 운영하던 작은도서관이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후원회비가 턱없이 줄어 협회 회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는 하소연을 들을 때면 먹먹해지는 가슴을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1998년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회의회로 출발한 협회는 2018년 20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기에 20년이 그리 긴 세월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과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에 20년의 협회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회의 2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회를 일군 선배들을 만나고, 회원들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돌아보며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에 우리의 역사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작은도서관 잇다'라는 이름을 걸고 작은도서관 아카이브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그 시작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자리에 펼쳐보고자 마련한 전시입니다.

일상에 쫓겨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회원들과 공유하며 준비하는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래도 시작하면 또 다른 발전된 형태로 다음이 있을 것을 기약하며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전히 저희를 담기에 부족한 부분은 2019년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20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한 협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보다 헌신하고 노력하는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마주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회원들이 전국에 걸쳐져 있기에 한껏 뿌듯한 마음으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이름을 걸고 작은도

서관을 향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향해 진행되는 전국의 교육 내용과 담고자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작은도서관이 무엇인가, 어떤 활동들이 작은도서관다운 것인가를 찾는 것 그리고 확산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밝히며 이는 바로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정책위원회가 2018년 1년 동안 정책포럼과 전국 독서대전을 통해 작은도서관 심포지엄과 전국도서관대회등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고자 했던 내용들과도 상호 연계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도서관을 둘러싼 법적인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마을사업과 작은도서관, 돌봄기능과 작은도서관, 생활문화 예술활동과 작은도서관등 복합적 기능을 요하는 작은도서관이 무엇을 중심에 놓고 가야 하는지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형SOC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작은도서관 정책이 주체의 요구와 참여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중심에 놓고 활동해 온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기능과 공간 중심으로 흐르는 정책이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막힌 큰 벽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짙어진 대한민국의 대기처럼 작은도서관 앞길이 맑지만은 않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많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작은도서관의 미래를 밝혀나가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5년~2018년까지 협회는 외연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향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마련한 일들이 회원여러분과 작은도서관에 어떤 형태의 도움이 되었는지 거듭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으로 4년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과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작은도서관의 문화 기획 능력의 향상과 작가를 포함한 문화예술활동가와 작은도서관의 연계를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에 맞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정착하고자 하는 목표하에 수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강사들을 발굴하고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사업을 통해 한 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안정화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문화기획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자 했던 초기의 목표는 문체부의 요구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매년 다른 작은도서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100명이 넘는 작가 및 문화예술활동 강사들을 연계할 수 있었던 성과도 있었습니다. 사업 수행 초기 지부장들과의 협조를 통해 선정된 작은도서관과 지역 강사들을 연계했던 점을 지속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책친구 사업은 작은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자원활동가들을 독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운영자를 도울 수 있는 미약하지만 인력 지원이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이 또한 매 시기 지속적 지원이 아닌 1년 이상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매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점, 그리고 독서프로그램을 월10시간 이상 운영하는 인력을 지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자 속에서 발굴하기 어려워 강사들로 대체되었던 점, 그리고 노인인력의 투여를 요구하는 문체부의 요구에 의해 애초의 계획한 바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불어 협회 사무국 인력이 책친구 사업 수행의 주체로 선정된 점이 문제로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위의 두 사업은 전국적으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협회를 외연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은 문제들은 사업 수행이 협회의 기본 사무와 중복되는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로 협회의 자생력 과도 연계된 문제입니다. 이중적 업무 수행은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될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 이를 분리할 수 있는 협회 내부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2015~2018년 도서문화재단 씨앗의 후원으로 협회가 작은도서관을 향해 지향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해외도서관탐방의 첫 발을 디딜 수 있었고 이후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를 통해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기금으로 조성된 사업비를 통해 작은도서관아카데미, 작은도서관특화사업, 작은도서관역사찾기, 작은도서관119 긴급지원,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및 정책포럼등 전방위적인 사업을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실험하고 수행해왔습니다. 협회로서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금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일수는 없습니다. 현재 2019년 사업으로 민간기금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금 사업을 통해 협회는 교육위원회, 정책위원회등을 통해 협회 회원들이 지부 활동의 영역이 아닌 좀 더 연구하고 교육 받는 활동의 영역까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회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업은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집행을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상세히 모든 일들이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잘 알려지고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의 제공까지 머물지 못했다는 점 즉 많은 사업이 회원과 함께 공유되어지고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되지 못한 점이 남습니다.

많은 일들을 수행했던 4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회는 한 해 살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안정된 공간 마련도, 인력의 안정화도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협회의 근간인 회원과 이를 품은 지부는 여전히 만남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0개의 지부가 안정적인 격월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부장님들이 감당해야 하는 지역적 영역이 넓기도 하지만 지부장들이 개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부의 도서관들을 일일이 챙기는 일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회원들이 늘어갈수록 지부가 더욱 강화되어 지부 차원의 교육과 정책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되어야 하며 이를 협회 중앙에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소 그간의 사업들이 협회 중앙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부의 활동과 별개로 이루어졌던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4년간 축적된 교육과 정책포럼등이 지역과 더욱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회원들이 '협회'와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져야 합니다. 협회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2019년을 응원합니다.

2019. 1. 16.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박소희

■ 2018년 사업 보고 및 평가 보고

■ 2018년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사업 목표 ■

동고동락

하나. 협회의 20년을 회원도서관과 함께 정리 한다

둘. 어린이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을 바로 세운다.

셋.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정리하고 발전적 전망을 구체화 한다.

1. 사무국 사업 보고 및 평가

1. 협회 일상 업무 정비

- 1) 협회 사무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8-7)은 2018.11월 재계약 완료
- 2) 협회 아카이브 : 협회 내 보관되어 있는 자료 정비 및 목록화하여 홈페이지게재
- 3) CMS 관리 사업 : 지정기부금으로 관리하는 회원도서관의 경우 별도의 관리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이용하는 회원도서관은 10,000원의 회비 인상이 되었다.
- 4)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 :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운영 실무자 확충은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구하지 못한 상황으로 협회 차원의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책친구) 공모 및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119지원사업, 스스로 아카데미)공모 사업의 필요 서류 탑재의 기능과 협회 사업의 최소한의 공고 내용과 뉴스레터 '백열등'을 올리고 있으나 회원 소식란등 회원 이용 등이 활발하지 못한 점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 5) 사무관리 매뉴얼 정비 (각종 서식의 통일화, 회의 결과 공지, 캐릭터와 로고 활용) : 서식 및 업무 매뉴얼을 갖추었으나 컴퓨터의 손상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복원 불가능한 상황 발생. 전체 문서 파일 저장에 대한 안전 조치의 일상화가 필요함
- 6) 자문위원회와 후원회원 관리 : 진행되지 못함. 자문위원과 후원회원의 관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자문위원 지속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며 후원회원은 적극적으로 협회의 소식을 알리는 등의 최소한의 관리 업무가 누락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2. 회원사업

1) 신입회원교육 - 상, 하반기 각1회 실시

- 2017년 하반기 가입 회원(2개)과 2018년 3월(7개)까지 신규 가입도서관 대상으로 추진.
- 2018. 3. 29. 상반기 신입회원교육 진행 - 협회의 역사와 2018년 사업 계획 공유.
- 2018년 3월 이후 가입도서관 6개도서관에 대한 신입회원교육이 진행되지 못함.
- 사무국에서 신입회원교육이 진행되었으나 향후 지부 차원에서 지부장과 사무국의 협업으로 신입회원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신입회원을 위한 교육 내용이 정비되고 지부장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 지부장워크숍 - 상반기 추진

- 2018년 첫 운영위원회를 지부장워크숍으로 하여 초기 사업의 목표 등을 지부장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지부장들의 활동력을 높이고 서로 지역의 의견들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협회 사업 목표와 계획에 대한 공유 및 향후 사업 진행에 지부 차원에서 진행할 일들을 모색하는 계기들을 갖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개최와 별도로 내용을 잡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3) 회원전체워크숍

- 일시 : 2018년 7월 16일(월) ~17(화). 부여 청소년 수련원
- 주제 : “휴”
- 참석 : 총 75명 (회원-67명, 사무국-5명, 외부-3명)

	지부	참석인원	비고
1	서울지부	10	송도연 2명, 흥부네, 행복한, 마포협의회 2명, 배고픈사자, 은행나무 2명, 이사랑
2	인천지부	13	늘푸른 3명, 인도협 10명
3	충청지부	15	신백한울타리 4명, 초록우산 3명, 초롱이네 2명, 내보물 1호 2명, 배바우 2명, 도토리숲
4	경기북부	10	호수공원 3명, 책놀이터3 명, 고도협 3명, 깔깔깔
5	호남지부	4	여우네, 책마루, 순천기적의도서관
6	대구지부	4	햇빛따라 3명,해봄
7	경상지부	6	팔판 2명, 양정 달팽이 4명
8	광주지부	5	책돌이3명, 기아꿈터, 책문화공간 봄
9	경기남부	0	
10	강원지부	0	
11	기타	8	사무국 5명, 촬영 2명, 외부 1명
	합계	75	숙박 60 , 저녁 75 , 아침 54 , 그림책마을 50

- 신입도서관 9개관 중 5개관의 참석으로 점차 신입도서관의 참석이 늘고 있으며, 올해는 지부장님들의 참석이 높았고, 회원과 소통하는 시간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음.

- 주제 “휴”를 실현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우리들이야기 시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지역과 도서관 현장을 나눌 수 있었음. 지부별 만남의 시간이 아쉬웠다는 의견 있었음. 부여 송정그림 책마을 탐방으로 힐링의 시간이 되었음.

4) 지부 순회 방문

- 지부 모임을 위한 내용을 사무국에서 정리하여 지부에 전달하는 것은 체계를 잡지 못했으며 지부 모임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지부 모임의 내용에 따른 고민이 운영위원회 내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음.

- 2018년에는 경상지부가 안정화 되어 새롭게 지부장을 뽑은 것을 성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사무국 차원에서 1회 지부 방문까지는 진행되지 못함.

-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선정된 도서관들과 지부의 연결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단위의 선정부터 진행까지 지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함.

5)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간담회 추진

- 협회 중앙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작은도서관과 지역 간담회를 활성화함.

-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날, 작은도서관 책친구, 스스로 아카데미, 작은도서관 119지원사업등의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을 통해 협회와 작은도서관의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마련

6) 회원 전체 참여하는 ‘책’ 중심 사업 전개

- 회원도서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책’ 중심 사업을 전개한다.

- 작은도서관 무슨책임어? 캠페인으로 매월 1회 회원도서관이 읽고 있는 책을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

-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 함.

- 회원들이 참여하는 좋은 책임기 활동으로 지속화 하는 것이 좋겠음.

7) 운영위원회

회차	일시	내용
1	2018. 3.26.	2018년 지방 선거 정책 2018년 함께 책임기 방안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장 추천 회원 자격에 관한 건 (개인회원)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 김해 독서대전 작은도서관 심포지엄 및 박람회 제안

		주소록 점검 4.16 세월호 기억공동행사 제주4.3항쟁 70주년 기념 동백꽃 달기에 함께 참여 협회 상근자 근무규정을 내규 처리
2	2018. 6.04.	2018년 회원 워크숍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사업(119지원사업, 스스로 아 카데미) 공고 매달 23일 #작은도서관무슨책임어? 회원캠페인 홈페이지 협회 회원 - 협의회 회원까지 승인 2018년 해외탐방 - 독일문학기행(메르헨가도 탐방) 9월 1일 김해 독서대전 준비
3	2018. 9.17.	회원 규정에 대한 규칙 개정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4	2018. 12.05.	지부별 지부장 선출 총회 준비에 대한 건

8) 이사회

회차	일시	내용
정기이사회	2018.1.25.	1) 2017년 사업평가 2) 2017년 결산 3) 2018년 사업계획 4) 2018년 예산
임시이사회	2018.8.28.	1) 2018년 상반기 보고 2) 2019년 총회 준비
임시이사회	2019.1.07.	1) 2018년 하반기 보고 2)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내용 논의 3) 임원 인선

9) 총괄 평가

- 사무국은 회원 전체 사업을 중심으로 신입회원 관리 및 지부 활성화를 돕고 회원 관리 및 협회의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주요업무로 선장하였다.
- 작은도서관의 활동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여타의 사회적 상황으로 더욱 열악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들의 동정을 살피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중앙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출발했다.
- 더불어 2018년 협회 20년을 맞이하여 협회의 흩어진 자료들과 사무 관리 업무의 매뉴얼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사무국의 업무와 책친구 사업의 주체를 분리하지 못하면서 사무국 본래의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과중하였다. 협회의 회계와 회원 관리, CMS 등 기초적 사무 행정 회계, 홈페이지 관리 등 기본적인 사무 업무 등 협회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사무국의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는 형태의 사업의 총괄은 향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더불어 협회 사무국 업무의 지속화를 위한 인적 구성의 대안이 필요하다.
-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추진에 있어 사무국의 독자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책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어린이서비스위원회를 지도해 내고 이끄는 데 있어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 전체를 총괄하거나 지도해 내지 못함에 따라 모든 사업들이 개별화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협회의 사무국은 협회가 진행되는 전체 업무의 총괄 관리 및 협조 관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 분담의 형태로 진행된 점은 향후에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 협회 사무국 인력 구조와 관련하여 재정적 상황과 사업 추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인원 충원 및 지속적 활동 인력 확보가 요구되어진다.

II. 정책위원회 사업 보고 및 평가 보고

계획	세부계획	진행 결과
정책위원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8년 2월~12월 - 내용 : 전국 작은도서관 100개관을 선정하여 매월 마지막주 문화가 있는날 주간에 문화체험강사들을 파견하는 사업 - 사업비 : 3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00개 작은도서관 700회 문화예술활동 진행
2018 지방선거 관련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전에 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정책제안서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진행 사항 세부보고)
정책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정책 이슈를 잡아 지속적으로 정책 포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회 진행
정책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에 작은도서관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협회에서 적극 참여 - 문체부 추진이 어려울 경우 민간기금을 통해 단일 정책연구사업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되지 못함. - 2018년에는 정책포럼을 안정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운영 (협회 진행 회의에서 결정)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정책 뉴스레터 <백열등>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들과 작은도서관에게 정보를 제공 및 다양한 시각을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회 발행

1.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내용

- 2018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회 구성 : 박미숙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관장 / 정책위원장), 김정희(호수공원작은도서관 관장 / 정책위원), 최은희 (해님달님 작은도서관 수서팀장 / 정책위원)

- 3월에 구성

- 정책위원회는 협회 집행기구로 역할을 규정하고 총회 때 정리된 2018년 사업 가운데 정책 포럼, 뉴스레터발행, 2018 지방선거 관련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서 마련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함.

- 2018년에 정책포럼에서 진행할 포럼 이슈를 모아 토론

<참고 - 정책위원회 제안 내용>

1. 지자체 별 민간 작은도서관 정책 현황과 전망
2.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3. 공공성을 지닌 작은도서관의 역할이란? (-마을 독서 운동이란 본질 찾기)
4. 작은도서관 어디까지가 봉사의 영역일까?
(-작은도서관의 인력 지원의 한계, 기금사업의 한계와도 연관되는 것 같네요)
5. 작은도서관변화에 따른 미래의 역할
 -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작은도서관들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논의.
 - 작은도서관 하면 어린이이용자 중심이라는 인식에 대한 논의
 - 지역에서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아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보
6. 작은도서관과 기금사업
 - 도서관운영마련을 위한 기금사업이 행사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 마을공동체 사업중 작은도서관 운영과 정체성에 끼친 영향
 - 도서관의 기본 목적에 부합한 사업 진행에 대한 고민
7. 순회사서제도에 대한 방향과 역할
 - 순회사서의 역할과 운영방법에 대해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순회사서 시스템 마련
- 8.주택법에 의해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현실
 - 의무설치기준에 따라 설립된 /
설립되는 대규모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논의
 - 공공성에 대한 문제 제기
 - 건설사들의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9.장서개발과 작은도서관의 역할

- 협회 집행회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중심에 두고 포럼을 진행하기로 함.

- 이후, 도서관법 개정 관련 제안서 검토,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2018 독서대전 작은도서관 포럼, 도서관 대회 발표 등이 논의되고 집행되었음.

2) 평가

- 구성 방향을 집행력과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진행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모두 작은도서관 활동을 병행하며 운영되었기 때문에 활동력이 떨어질 수 있었으나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까지 책임지는 형태는 바람직했다고 보인다.
- 하지만, 사전 준비를 위한 회의와 실무집행에 효율적이었으나 전국 단위의 위원 구성이 아니어서 의견을 모으고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둘 경우 어떤 규정이 필요한 지 고민이 필요하다.
- 2018년에는 시범으로 정책위원회가 정책을 담당하는 구조였으나 이후 집행체계 안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에 관련된 고민이 협회 중심 사업이 되려면 일상적인 집행체계 안에서 진행이 필요하다.
- 이후 정책 관련 된 이슈들이 작은도서관 역할 고민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아파트 작은도서관과 장서개발 두 주제는 이어지길 바라며 개별 연구팀 구성도 제안해 본다.

2. 2018 지방선거 관련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

1) 진행과정과 결과

- 4월 2일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서 (협회 안) 배포
- 4월 16일 10시-12시 서울지부 정책간담회 진행
- 서울 : 지부 내에서 정책간담회 진행
 -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에서 정책제안서 제출
- 인천 : 5월 18일 독서 생태계 관련 토론회 진행할 계획
- 광주 : 광주시민총회에 정책제안서 올리로 공감수 확대 진행중
- 경기북부(고양) : 지역에서 정책제안 포럼을 구성하고 5차까지 포럼 진행. 정책제안서 확정하고 후보들에게 전달 직전
- 대구 : 5월 9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앞으로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보내 5월 20일까지 답변을 받고, 이후 후보자 지지활동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

2) 평가

- 지방선거를 맞이해 지역 작은도서관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하는 흐름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지부를 중심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정책제안이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2018 정책 포럼 관련

1) 2018 작은도서관 정책 포럼 진행 방향

- 2018 작은도서관 정책포럼은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관련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공론화하는 기회를 갖는다.
- 월 1회 정도 작은도서관 정책포럼을 진행한다.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내부 포럼(2018년에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을 진행하고, 그 외에 시기적으로 떠오르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 진행과정과 내용

주제	일정	장소	발제자	내용	비고
<작은도서관 포럼 15차> 도서관법 개정과 작은도서관	4월 23일	한국여성재단 교육실	-정기원(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박소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 작은도서관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발제와 토론	30여명 참가
<작은도서관 포럼 16차>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어떻게 해야 할까?	5월 28일	청년문화공간JU동 교동	- 작은도서관 어린이 책 장서개발은 어떻게 할까?_실제 사례를 중심으로_최은희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 작은도서관 어른 책 장서개발을 짚어보다_한상수 (1사1행복한아침독서 대표) - 공공도서관 장서개발과 작은도서관과 연계 가능성_이종창 (가람도서관 관장)	- 작은도서관 관련 장서개발에 대한 발제와 토론	60여명 참가
<작은도서관 내부 포럼>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말하다	6월 27일	협회 아카데미실	- 아파트작은도서관 현황과 과제_김보일(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장) -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 개정에 나서는 문제_박민주(성성작은도서관 관장) -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지역 활동에 대한 고민_박미진(한빛도서관관장)	-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전망, 법개정에 대한 발제와 토론	10여명 참가 (참가대상을 협회 내부 사람으로 제한함)
<작은도서관 포럼 17차> 지역 도서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7월 31일	청년문화공간JU동 교동	- 지방자치시대 지역 도서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_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소장) - 최향숙(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 손보경 (인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토론	- 6월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지역에서 도서관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왔나 과정 발제 및 토론	70여명 참가
<독서대전 작은도서관 포	9월 2일	김해시 우암초 금바	- 늘푸른 도서관 신간평가단 사례_이은주 (늘푸른 도서관 관장)	- 작은도서관 독서활동 사례 발	200여명 참가

렘>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작은도서관에서 함께 읽을래?’ 독서대전 심포지엄		위관	- 그림책 작가별 책읽기 사례 김자영 (웃는책 도서관 관장) - 동아리들과 함께 책읽기 사례 김경희 (책마루도서관 관장) - 김해 작은도서관 책읽기 사례 허미경(내외도서관 관장)	표 - 모듬별 토론 및 발표	
<작은도서관 정책 세미나> ‘생활형 SOC 도서관 정책을 이야기하다’	10월 15일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 생활형 SOC 정책은 무엇인가? 이은령 (에드건축소장)	- 생활형 SOC 도서관 정책이란 무엇인가 발제 - 토론	33명 참가
<도서관대회 포럼> 도서관 대회 ‘작은도서관 장서개발과 공공도서관과 협력’	10월 25일	정선하이원리조트 컨벤션홀	- 작은도서관 어린이 책 장서개발은 어떻게 할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최은희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 작은도서관 어른 책 장서개발을 짚어보다 한상수 (1사1행복한아침독서 대표) - 공공도서관 장서개발과 작은도서관과 연계 가능성 이종창 (가람도서관 관장)	- 작은도서관 관련 장서개발에 대한 발제와 토론	100여명 참가
<작은도서관 내부세미나>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11월 16일	협회 아카데미실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아파트작은도서관 법개정 관련 발제 - 협회 입장 정리 토론	10여명 참가(운영위+이사회 대상)
<작은도서관 포럼 18차>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미정	미정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10월에 발의되어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세의원 등 10인)의 개정 추이와 더불어 포럼을 진행할 계획	

3) 평가 및 전망

- 시기적으로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관련 사회적 이슈를 잘 붙잡아 포럼을 진행하였다.
-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높아졌으며, 지역마다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수적 팽창과 함께 이슈가 되고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주제에 집중하여 2차례 내부 포럼 진행은 앞으로 ‘법 개정’ 결정을 보고 차후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을

리라 기대한다.

-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의 피드백 온라인 설문조사 취합을 하였다면 내년 포럼 계획에 반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 포럼 자료집 제작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참여한 분들의 요구도 있었다. 기록용으로도 필요하다.

-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페이스북 광고, 도메리를 통한 홍보)하였으나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 포럼 이후, 관련 주제를 좀 더 심도깊이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아갈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 그간 정례적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문제를 토론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작은도서관계의 이슈를 모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일으켰다고 본다.

- 포럼에 지역 회원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이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4. 뉴스레터 '백열등'

1) 진행 보고

- 6월-12월 발행

- 협회 동향, 작은도서관 소식, 도서관계 소식, 정책 관련 글

- 정책지 보다는 뉴스레터에 의미를 두고 진행했음.

2) 평가

- 정책지로 내용을 채우는 것에는 인력에 따른 한계가 있다.

- 기존 글들을 링크하는 형식으로는 정책지로 의미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 협회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고 활동을 공유하는 의미로 정리하고 발행 주체를 사무국에서 맡아 회원 관리 및 조직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카드뉴스 형식과 배포 방식도 현 시기에 맞는 형태로 전환이 요구된다.

Ⅲ. 교육위원회 사업 보고 및 평가 보고

1. 사업목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교육의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을 제시해 본다

-작은도서관 활동가의 교육을 작은도서관 활동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단하고 기획, 진행해 본다

-작은도서관 교육내용중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기본내용을 영상으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이들에게 작은도서관의 철학과 정체성을 알리도록 한다

2. 사업별 평가

1) 작은도서관 교육현황 및 수요조사

① 교육현황 조사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등에서 진행된 총 476회의 작은도서관 관련 교육을 온라인 검색 등을 이용해 취합함

-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가장 많이 진행하였고, 내용별로는 책관련 활동, 작은도서관의 이해, 자원활동가, 책문화프로그램, 이용자 이해등 기본강좌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② 교육수요조사

-전국의 작은도서관 관련자(운영자, 사서, 활동가, 자원봉사자, 작은도서관담당자)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응답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선택한 교육은 작은도서관의 이해, 책문화프로그램, 도서관리등 책관련 활동 등 기본강좌였고, 꼭 필요하지 않는 교육은 당장 업무상 시급하지 않은 시민교육영역, 독서지도사등 자격증과정,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 특수영역으로 나타남.

③ 분석결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업무상 필요한 도서관리나 책관련 활동등이나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자격증 과정에는 반발을 나타내기도 함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도 자격증이나 다양한 전문정보보다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역사 및 철학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이는 실무능력이나 물적 기반보다는 운영주체의 열정이나 의지, 철학 등이 중요한 작은도서관 운영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④ 조사결과 활용방안

-작은도서관 관련자 수요조사가 단순 요구조사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설정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교육에 대한 대안 제시까지는 못미침

-그러나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교육수요 파악은 할 수 있었으며, 향후 지자체 담당자들까지 포함하는 보다 세부적인 조사의 틀을 마련함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협회차원에서 회원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련자들과

2019년 교육포럼을 통해 공유하기로 함

2)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① 진행결과

-3개의 지역협의회와 7개의 작은도서관 모임이 스스로아카데미 사업에 선정
-교육위원들과 센터가 10개 사업팀 전체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함
-진행결과 활동가 자신을 위한 돌아봄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청주), 그림책 깊이 읽기의 즐거움을 지속하기 위해 사후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으며(서울), 지역 협의회 결성의 씨앗이 되기도(구리, 양산 등)함. 전체적으로 활동가 스스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

② 평가

-작은도서관 교육을 지자체나 공공도서관, 혹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기획하는 것 보다 실제 활동가들의 수요에 근거해 진행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임
-사전 설명회, 실사, 사후 보고회의 과정에 교육위원들이 참여하여 사업팀들과 소통을 지속하였고, 사업 진행 과정 및 성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음.
-특히 경상지역의 경우, 협회와의 연계망이 활성화되고, 지역 활동에 도움이 됨
-향후 작은도서관 교육 역시 수요자의 요구에 근거해야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교육 효과가 실제 작은도서관 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3) 작은도서관 영상강좌

-영상강좌는 위에서 언급한 작은도서관 교육수요 현황 및 수요 조사에 근거해, 작은도서관 기본 교육(작은도서관의 이해, 작은도서관과 책, 작은도서관 책문화프로그램, 작은도서관과 사립)으로 결정함
-먼저 기본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향후 심화 강좌등에 대해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4) 교육위원회 총평

-초반기 위원장의 갑작스런 교체로 협회 집행위와의 소통이나 역동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센터의 지원과 위원장의 노력으로 사업을 진행해옴
-기획단계에서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어 이후 교육사업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고, 스스로아카데미를 통해 향후 교육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음.
-작은도서관 현황조사를 통해 교육현실을, 작은도서관 수요조사를 통해 활동가들이 받고 싶은 교육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영상강좌를 기획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토대로 스스로아카데미에서 활동가들의 주체적 의지를 끌어낼 수 있었음. 즉, 교육사업은 수요와 현실에 근거해야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IV. 어린이서비스위원회 사업 보고

현재 소속 도서관 : 노원어린이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전주 책마루도서관, 제천기적의도서관, 제천 내보물1호도서관, 춘천담작은도서관 (6개관/가나다순)

1. 2018년 활동

1) 어린이서비스위원회 회의 개최

- 2018. 3. 17.(토) ~ 3. 18.(일) / 1박2일
- 춘천담작은도서관
- 어린이서비스위원회 회원도서관 교류, 위원장(정봉남)선출, 서비스 사례공유, 춘천 지역 문화 탐방
- 참여 : 춘천(김성란), 제천(강정아, 백영숙), 전주(김경희), 순천(정봉남), 서울 사무국(오은희)

2) 순천어린이문화포럼 주제발표 참여

- 때 : 2018. 11. 8.(목)
- 곳 : 순천기적의도서관
- 주제 :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 내용 : 어린이도서관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 사례발표
- 참여 : 춘천(10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 책읽는 즐거움을 위한 독서진흥활동/김성란), 제천(찾아가는 책, 담은, 서비스/정세나), 전주(북스타트를 통한 영유아서비스 확장/김경희)

2. 2019년 활동

- 문제의식 : 협회 안에서 어린이서비스 가능한가? 협회 내 어린이도서관의 비중과 활동이 소소하여 정체성이 모호하고 소속감이 부족하다. 전국 어린이도서관이 100개관인데, 협회의 몇 도서관으로는 확장성이 없다.
-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김경희관장을 2019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
- 어린이서비스위원회의 향후 활동 및 방향에 대해서는 총회 이후 신임 위원장과 사무국이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V. 대외 협력 사업 보고 및 평가 보고

2018년 책의 해 선포이후 ‘책’과 ‘도서관’ 그리고 ‘출판’에 관한 포럼과 축제 등이 활발하게 진행된 한 해였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포럼과 토론회가 다른 해보다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더불어 지방자치선거 시기와 맞물려 자치단체 차원의 작은도서관 정책 논의의 장들에 작은도서관의 입장을 정리하거나 정책 제안을 하는 간담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많았다. 향후 정책 제안된 내용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과 함께 추진한 삼척그림책축제심포지엄을 주관하여 한·일 그림책 출판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 자리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독서대전이 열린 김해에서는 작은도서관 심포지엄을 통해 작은도서관과 장서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의 장을 개최하여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참석하여 각 도서관의 책임기 사례들을 발표하고 참석자 모두 원탁토론을 진행하는 좋은 사례를 마련하였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작은도서관 교육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작은도서관운영자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

매년 진행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국제심포지엄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진행하는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하였다. 북스타트국제심포지엄, 국제독서컨퍼런스 등에 참석하여 해외의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월	19(금)~20일 삼척 그림책 축제 심포지엄
2월	28(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정책간담회
3월	6(화) ~9(금) 서초구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교육 진행 15(목)~4/12(목) 여수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진행 16(금)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회의’ 20(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기술평가’
4월	4(수) 시흥 작은도서관 교육 5(목) 서울교육청 토론회 참석 6(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회의 12(목) 여주시 작은도서관교육 19(목) 고양시 작은도서관 교육 20(금) 계양구 작은도서관 운영위 27(금) 청주시 작은도서관 교육
5월	2(수) 울산시 작은도서관 교육 15(화) 전국독서대전 추진협의회
6월	15(금)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설문작성 1차 회의

	17(일) 청주 인문학콘서트 북토크 18(월) 그림책협회 컨퍼런스 20(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 26(화) 김해독서대전 추진협의회
7월	3(화) 노원 특화도서관 간담회 6(금) 군포 한일그림책 교류회
8월	3(금) 국립중앙도서관 회의 - 도서관 발전계획 10(금) 서울디자인 회의 23(목) 동작구 작은도서관 교육 24(금) 파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포럼 28(화) ~ 29(수) 경기도 작은도서관 교육 30(목) 순천시 도서관 정책 포럼
9월	15(금)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설문작성 1차 회의 17(일) 청주 인문학콘서트 북토크 18(월) 그림책협회 컨퍼런스 20(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
10월	2(화) 연수청학도서관운영위 회의, 제천 공동육아나눔터 컨설팅 5(금) 영월 공동육아나눔터 컨설팅 7(수) 대한민국독서대전 김해 추진협의회 및 김해 작은도서관 컨설팅 회의 8(월) 음성작은도서관협의회 교육 17(수) 인천 남동구작은도서관교육 18(목)~19(금) 북스타트 국제심포지엄 참석 22(월) 고양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23(화) 강릉 공동육아나눔터컨설팅 24(수)~25(목) 53회 전국도서관대회 26(금)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 시민공론장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29(월) 인천작은도서관 정책 간담회 (인천시) 31(수) 인제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11월	6(화) 남양주작은도서관 직무강화교육 22(목) 대전 유성구 작은도서관 교육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정책포럼 - 23(금) 경남공무원 연수(진주) 25(일) 서울도서관 토론회 참석 28(수) 울산 작은도서관 관계자 직무교육 29(목) 책의 해 컨퍼런스 참석 30(금) 구로작은도서관협의회 교육
12월	03(월) 제주작은도서관협회 교육 12(수) 3차도서관종합발전계획 공청회 (국립중앙도서관) / 광주작은도서관교육(광주 무등도서관) 14(금) 책친구, 문화가 있는날 사업 평가회 15(토) 제천기적의도서관 15주년 기념 및 재개관식 18(월) 서울민관협치사업 결과 발표회 / 국제독서컨퍼런스

VI. 작은도서관 해외탐방 보고

탐방후기

독일 메르헨가도 탐방 - 그림형제의 이야기를 따라

- 김 영 신

메르헨 길은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하나우에서 시작해 슈타이나우, 마르부르크, 카셀, 괴팅겐, 하멜른, 브레멘까지 그림 동화의 배경이 된 곳들과 그림 형제의 삶을 따라가는 환상적인 동화의 길이다. 600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길에는 60여 개의 도시와 마을, 그리고 8개의 국립공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야코프 그림과 빌헬름 그림, 그림형제가 태어나고 그림형제가 메르헨을 수집하고 거기에 문학적 감수성을 더해 펴낸 그림 이야기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메르헨가도를 10일 동안 여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친근하고 신비한 영역으로 남아있는 그림형제의 메르헨들이 이번 여행에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 기대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첫 유럽여행길에 발을 디뎠다.

작은도서관지기 12명이 무사히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서 여행길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도시 하나우로 향했다. 하나우는 그림형제가 태어난 곳이다. 시청광장엔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고 통합을 상징하는 국가 기념물로서 세운 그림형제 동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여기서부터 메르헨 길이 시작된다. 도시한복판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띄는 서점으로 하나같이 환호하며 달려가는 우리모습을 보니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이 아닐는지. 또 이 서점의 주인장은 자신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어느 유럽의 거실처럼 꾸며놓은 공간을 통해 그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 충분히 알아 챌 수 있었다.

우리여행길엔 당연히 도서관을 아끼는 이들의 여행이니 도서관 탐방을 빼놓을 수 없다. 하나우 도시의 중심엔 하나우시립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리 견학을 신청해놓아서 사서분이 도서관 로비의 노랑배경처럼 환하게 맞아주셨다. 벽이 없는 확 트인 넓은 공간을 빨강, 파랑, 보라 책장정도로 구분을 지어 유아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강연장소도 있었다.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서관들> 에서 보았던 어린이코너의 커다란 새집 같은 곳도 올라보았다. 공간만으로도 부러웠지만 이들의 독서서비스는 지역 여러 독서문화단체와 협력하여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석구석 찬찬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다음여행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만회할 수 있기에 다음여행지 슈타이나우로 향했다.

숲이 풍성한 슈타이나우는 그림형제가 자연 속에서 뛰놀며 곤충과 식물 채집을 즐기며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여기서 동화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충만히 키울 수 있었을 거란 짐작이 갈만큼 조용하고 마을 한 복판에 고성도 자리 잡고 있다. 그림형제가 살던 그림형제하우스를

방문했다. 이 마을에서 눈에 띄는 조형물은 개구리왕자이다. 개구리와 한 약속을 지키라는 왕의 지시에 그만 억지로 개구리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된 공주는 개구리를 집어 벽에 내던지고 만다. 그 덕분에 개구리는 본 모습인 왕자로 돌아와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작은 몸이 벽에 내던져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어쩌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주가 개구리를 벽으로 내친다는 것을 두고 많은 민속, 심리연구자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다시 곧 공주와 개구리의 심층 이야기를 만날 기회를 기약하고 문화 예술의 중심지 바이마르로 발길을 옮겼다.

바이마르는 괴테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그 명성에 걸맞게 시청광장엔 괴테와 실러의 동상이 친근하면서도 서로 다른 곳을 동경하는 듯 서 있다, 괴테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품고 있는 괴테 박물관과 괴테 하우스도 좋았지만 인상적인 곳은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이었다. 이 곳은 세계 7대 아름다운 도서관 중 하나이다. 또 괴테가 35년 동안 일하면서 세계 온갖 지식을 접한 곳이지 싶다. 괴테의 공은 안나 아말리아 공작부인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 그녀는 16세에 바이마르 대공과 결혼했지만 2년 만에 남편을 잃고 2세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공국을 다스린 장본인이다, 성의 일부인 초록성을 도서관으로 만들고 괴테 같은 문화 예술가들은 불러 들였다. 바이마르가 독일이 위기에 빠졌을 때 공화국이 될 수 있던 그 바탕, 그리고 고전주의 대기들과 위대한 사상가들의 도시가 되기까지 안나 아말리아 공헌이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안나 아말리아는 중세 도서관으로 유명한 책의 도시 불펜뷔텔의 공주였다.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 신관엔 랑가나단의 도서관학5법칙 문구가 도드라지지 않게 투명 유리에 새겨져 있었다. 또 바이마르 시내를 지나치다 고인돌 같은 거대한 나무 의자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예술의 한 획을 그은 바우하우스의 상징인 듯하다. 총대장님의 눈치를 살피며 뛰어다니다시피 동네 도서관을 슬쩍 들어갔다가 서점 같은 도서관 풍경에 또 감탄했다. 바이마르는 며칠을 묵어보고 싶은 곳으로 기억하고 다음 코스로 출발한다. 다음엔 니체 기념관도 다녀와야겠다.

다음코스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기 전에 바이마르 부근 부엔발트 마을에 있는 나치시절의 강제수용소에 잠시 들렀다. 차마 사진에 담을 수 없는 곳이 많았다. 고문실, 시체 태우던 아궁이시설. 유럽을 이끄는 지금의 선진독일의 바탕이 된 정신중 하나가 지난 과오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에 있지 않을까? 현장은 책으로 읽었던 것 보다, 다크로 보았던 것 보다 더 참혹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었으며 어느 특별한 한 악마가 저지른 악행이 아니라 우리 누구라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면 저지를 수 있는 평범한 악임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텅 비어 있는 넓디넓은 들판에 몇 개의 건물뿐이었지만 그 곳은 보이지 않은 슬픈 이야기가 하늘까지 차 있었다. 싱싱한 꽃들이 여기저기 보이니 여전히 사람들 기억에 살아 있는 이야기일터다. 우수한 교육으로도 유명한 독일이니 아이들 현장학습으로 이어질 터이다. 바이마르 괴테동상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 중인 폴란드 사람들도 여기를 거쳐 갔을까?

마치 용이 지키고 있을 법한 영화 속 배경 같은 고성 바르트부르크성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이 날 잔잔히 뿌려주는 비의 운치로 더 신비스러웠다. 1067년에 세워졌고 12-14세기 음유시인들의 대화장소이기도 했고, 《니벨룽겐의 반지》로 유명한 리하르트 바그너가 영감을 얻기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종교개혁가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한 뒤 신변을 보호해주던 곳이다, 루터는 이곳에서 용커 외르크라는 가명으로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이 번역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독일의 다양한 방언이 하나의 통일된 성서언어로 탄생했다는 점이다. 기득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이 독일가정 누구라도 소지할 정도로 쉬운 언어로 써졌다고 한다. 책상과 의자뿐인 작은 루터의 방이 고스란히 남겨져있다.

한국어로 된 녹음기의 안내로 성의 방들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나의 사진찍기는 여기서부터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사진에 담기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것들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셔터를 누른다는 것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고 또 그나마 내 안에 들어온 것도 렌즈를 통해 보니 다른 피사체가 되었다, 마치 무의식 속을 흘러 다니다 나온 느낌이었다. 화려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소박하기도 한 세상을 두둥실 날아다니는 꿈을 꾸 듯하다. 한정판이라는 얘기에 솔깃하여 루터보드게임을 사면서 현실로 돌아왔다.

그림 형제의 민담집 <어린이와 가정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걸쳐 160개 이상의 언어 및 방언으로 번역되었다. 그 번역본들이 카셀의 그림벨트(그림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다. 200년 전의 그림형제와 그리고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림형제민담들이 그림 박물관에서 현재의 빼어난 예술가들에 의해 세련되게 재현되고 있었다. 독일인들이 그림형제와 그가 남긴 독일의 유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정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인상적이었지만 한지느낌의 얇은 그림종이를 겹겹이 덧대고 그 뒤로 빛을 쏘아 입체감을 더해 주어 마치 상영되고 있는 영화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한 작품은 우리 모두를 압도하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이것 역시 사진에 담으면 한 장의 밋밋한 그림으로 밖에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그리고 다음 방문코스는 앞서서 언급했던 안나 아말리아가 태어난 곳, 볼펜뷔텔의 헤르초크 아우구스트 도서관이다. 1572년 올리우스 공작이 만들고 그 동생이 중세필사본을 사들여 전문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세계문화유산 연구의 중심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고서 소장도서관이다, 17세기 천재수학자 라이프니츠가 관장으로도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땐 어느 예술가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양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필사체들도 볼 수 있었다. 이 필사는 손글씨나 서체연구가들에게 귀한 자료일터다. 한쪽 편에선 60-70대 연령으로 보이는 분들이 단체 견학을 온 듯 안내자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독일은 어딜 가나 5백년 심지어 천년 이전의 유적 유물들이 일상과 어우러져 있다. 이들은 유물을 소중히 여겨 보존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이어지길 바라는 노력이 엿보인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서들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 한다,

우리 여행지의 가장 북쪽인 함부르크에 도착했다, 도서관지기들이 그래도 여행지에서 도서관을 빠트릴 수 없어서 주목할 만한 도서관으로 찾은 도서관은 함부르크의 뷔어할레 청소년 도서관이었다.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고민의 힌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귀차니즘 청소년

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을까? 청소년도서관은 함부르크 시립도서관의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늘의 도움으로 우연히 만난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덕분에 청소년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만화책과 잡지 코너는 물론이고 영화, 음악, 게임코너도 있었다. 여러 재료들이 마련된 수작업 공간에선 청소년들이 집중하면서 무언가 만들고 있었다. 독일 도서관들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공통점을 살피니 조용히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독자와 탐구를 위한 공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탈출구 역할을 하는 자유로운 공간이 어우러져 있었다. 뷔어할레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몇 개 소개하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책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1세 유아는 두 권의 그림책과 도서관 관련책자와 도서관1년 회원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는다. 그리고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사서 뿐 아니라 전문 배우나 드라마 강사, 작가, 음악가, 예술가들이 함께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책읽는 환경만들기’에 정부나 시민들에게 왜 해야 하는지의 설득이 필요 없는 나라라 여겨졌다. 위층 어린이실을 둘러보면서 내 눈은 더욱 커다래졌다. 우리가 방문한 날이 주말인지라 도서관 여기저기 북적북적했는데 가족단위로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카페에서 수다를 하며 또 널찍한 보드게임방에서 진지하게 놀이를 즐기고들 있었다. 책장의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작은 의자에 함께 앉아 책읽어주는 부모들, 혼자 책에 빠져 있는 아이. 여기도 나에겐 마냥 부러워 눈물겨운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제한된 시간으로 마저 보지 못하고 현실로 돌아와 자유의 도시 브레멘으로 출발!

어둑한 토요일 저녁 즈음 브레멘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당연히 찾아 헤맨 것은 시청사 광장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롤란트 석상이다. 롤란트 석상은 해상 무역 도시 사이의 동맹(한자동맹)과 자치도시임을 상징하고 있다. 광장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듯 중세 웅장한 건축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광장식당에서 어느 예술가의 일렉기타의 연주를 들으며 여행자의 포스로 식사를 하고 브레멘음악대 동상을 먼저 찾아 인증사진을 찍었다. 나이 들거나 병들어 쓸모없어져 주인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브레멘으로 떠난다. 결국 브레멘에 도착하지 않은 채 그들의 동지를 틀었지만 긴 여정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브레멘이라는 자유를 상징하는 이상이 있어 가능하지 않았나싶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들은 이상보다 더 소중한 현실의 친구를 깨달았는지도 모르겠다. 잔잔한 조명으로 뒤덮인 밤의 브레멘은 안 그래도 낯선 공기의 옷을 입은 나에게서 현실의식을 미뤄냈다. 식사와 맥주를 마시고 좀 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그것을 찾아 비좁은 골목길로 뛰어갔다. 당나귀, 개, 고양이, 수탉의 동상이 즐지어 서있는 어느 가게 앞 구석진 곳에 수탉은 발만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발 뒤로 수탉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글귀가 있다. 구글을 이용해 해석을 보니 “발만 남긴 채 닭이 사라졌다. 인간의 욕망은....” 사라진 닭을 똑같이 복구해 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유로 소통 하고자 하는 그들의 세심한 방식이 존경스러웠다. 중세시대 수도승?의 복장으로 등을 밝히고 여행객들에게 설명하는 안내자는 생뚱맞지 않고 주변 광경에 어우러졌다. 보고 알아가고 감동받고 즐기는데 적어도 며칠을 들여야 되는 대성당 이야기는 또 어찌할 것인가? 휴~

브레멘 기념품이라도 챙겨가야 하는데 이미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다음 날도 상점 문을 열기 전 우리는 브레멘을 떠나 하멜른으로 향해야했다. 앞으로 어디선가 브레멘음악대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멜른에서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야외공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많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련된 의자는 다 차서 강렬한 햇살을 맞으며 뒤에 서서 공연을 보았다. 공연에 집중하고 있는 꼬맹이부터 어른들까지 많이 보인다. 이야기와 그림형제가 다시 위대해 보였다. 이야기는 시공간과 연령을 초월하여 현재에 삶에 개입한다. 고통을 안겨주었던 쥐를 사라지게 해준 나그네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영주와 또 그에 동조한 귀족과 시민들로 인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겨울철을 제외한 일요일마다 공연한다고 하는데 되풀이되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인간이 날마다 경계해야 할 오만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이니 말이다. 이 공연이 더욱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전문극단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직접 배우로 나서서 연극을 한다는 것이다. 마을이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는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유기체일 것이다. 피리부는사나이 기념관에는 사라진 아이들을 상징하는 허름한 무수히 많은 신발들이 전시되어있다, 기념관 안에서 도 오토마틱 같은 움직임으로 만든 인상 깊은 공연을 볼 수 있다.

라퐁젤의 성으로 알려진 트란텔부르크 성을 가기 전 잠시 허풍선이 남작마을을 들렀다. 그림형제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야기마을이라 끌렸다. (고트프리히 A. 뷔르거(1747)<허풍선이 남작 뮌히하우젠>) 몸통의 반이 잘린 말에 타고 있는 허풍선이 남작 조형물 앞에서 총대장님의 허풍스런 이야기를 들으며 한바탕 웃어댔다. 그리고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으나 무료로 행운의 디저트들을 맛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 허풍선이 남작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놀이시설을 호기심 많은 아이마냥 타보기도 했다.

트란텔부르크성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 디즈니애니메이션 라퐁젤에서 본 듯한 성에 라퐁젤의 머리로 추정되는 긴 머리가 내려와 있다. 내려다보면 나무 가득한 숲이요 위로는 해질 녘을 알려주는 노을 진 신의 작품이 펼쳐진 그 시공간에서 와인을 곁들인 성대한 만찬상을 마주했다. 그리고 공주만이 머물렀음직한 화려하고 우아한 침실에서 하룻밤은 무슨 공을 세워 이런 호사를 누리는지 까지 생각이 미쳤다.

라퐁젤에 등장하는 마녀는 그레이트 마더를 상징한다. 좌로는 보살피고 결실을 맺는 선한 어머니부터 우로는 삼키는 무시무시함까지 품고 있는 악한어머니의 대모신 이미지에서 우리는 긍정의 측면만을 모성의 본질로 인정해왔다. 성장기의 아이는 보편적인 부정적인 대모신을 언젠가 마주하고 넘어서는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하며, 또 내 안에 그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 장소는 괴팅겐이다,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거위치기 소녀 동상이 있는 분수대가 눈에 띄었다. 학생들이 박사학위 받으면 거위치기 소녀에게 꽃을 바치는 괴팅겐 대학교의 오랜 전통과 연관이 있다한다. 거위치기 소녀상은 귀족의 마차에 치여 죽은 소녀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새기기 위해서일까? 혼자 상상해본다.

또 괴팅겐 대학은 그림형제와 관련이 있는데 그림형제 형 야코프가 교수로 있던 시기에 괴팅겐7교수 사건이 있었다. 1837년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혼란스런 과도기에 자유주의 헌법을 폐기하고 옛 헌법을 부활하고자 하는 헌법개혁 반대를 주도했던 야코프 그림을 포함하여 7명의 괴팅겐 대학 교수들이 파면을 당한다. 이는 독일이외 정부의 지지와 더불어 독일의 자유주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림형제는 주로 우리에게 동화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법학을 전공했으며 독일이 나폴레옹의 말발굽 아래 가장 힘겨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독일의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민담과 전설을 수집하고 민담집을 펴냈다. 외교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독일 통일에 앞장선 언론인이기도 했다. 그리고 고대, 중세 문학과 역사를 공부하고, 도서관 사서로도 일했으며 독일어 사전 편찬을 시작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빠트릴 수 없는 환상적인 서점들. 괴팅겐 서점에서도 후다닥 뛰어다니며 휘리릭 구경하고 책과 캐릭터 인형을 구입하고 빨간모자 마을 알스펠트로 출발했다.

알스펠트는 조용했다. 도착한 날이 장날이 아니라 월요일이었다. 모든 관들이 쉬는 날이었다. 아쉬운 마음은 일찍이 접고 동화 속 캐릭터가 연상되는 천천히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사방이 겹겹이 책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책방에서 반가운 책들을 구입했다. 발견했을 때 결코 지나칠 수 없었던 볼프 에를부르흐의 <커다란 질문>을 얼른 집어 들었다. 그리고 지금 웃는책 도서관에서 아이와 어른들 사랑을 받는 빨간모자 인형을 얻은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인형 하나에 빨간모자 아이와 뒤집으면 할머니-할머니의 모자를 벗기면 늑대가 나오는 아이디어 만점의 인형이다. <빨간모자>는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예술가들에 의해 다양한 변주로 탄생되고 있다. 잔혹한 현실과 인류가 바라는 희망이 공존하고 있는 <빨간모자>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같은 시공간에서 살아있을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어느 아파트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은 렌터카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승차권을 끊었지만 누구도 검사하지 않았다. 불시에 검사원들이 뜬다고 하는데 그 때 걸리면 상당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날 첫 방문지는 EKIZ(Eltern-Kind-Zentrum)이다. 엄마들의 연대를 통해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키워낸 비영리기관으로 출발해서 한 때 이름이 마더센터였지만 육아는 공동의 몫이기에 부모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은 노인층을 위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지금은 기관의 서비스로 정착했지만 여전히 자원봉사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적한 그들의 일상을 엿보고 버르던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을 찾았다.

1997년 슈투트가르트는 시의 미래를 결정할 도심 재개발 사업을 계획하면서 도서관 신축을 결정했다. 하얀 큐브 모양의 도서관 설계는 우리나라 건축설계가 이은영씨가 맡은 덕분에 건물 한 면엔 한글 '도서관'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가 독일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킨 도서관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첫 번째는 중세와 근대 도시에서 궁전과 교회가 맡았던 역할을 현대에서는 도서관이 담당한다고 주장하며 도서관은 사회의 경제력으로 만든 공공의 장소인 만큼 평등하게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는 장소. 또 도시생활에서 지친 마음을 쉬고 위안을 얻어가는 장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은 '지식의 큐레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정수만을 골라내 공공의 장소로 끌어내는 큐레이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도서관의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입구에 들어서면 텅 빈 4층 높이의 공간이 있고 바닥 중앙엔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 작은 샘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독일 도서관측에서 요구한 공간으로 자아성찰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지 싶다. 누구라도 시끄러운 도시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기만 하면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적과 물소리만 흐르는 이 곳은 명상 공간으로도 적합한 공간이었다. 또 도서관 이용자는 노트북을 빌릴 수 있으며, ‘잠 못 드는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 도서관 개방시간 이외도 읽을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다. 하얀 건축물 내부 자체가 신전을 연상케 하는 예술이었다. 어린이서가에서 책에 빠져있는 아이들 곁에 앉아 나도 익숙한 그림책들을 펼쳐보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로 배가되어 있는 책읽기 공간 여기저기에 앉아보았다. 서가는 책과 관련미디어와 그림 자료까지 함께 배치되어 있었다. 꼭대기 옥상까지 올라가면서 어느 하나 허투루 만든 공간이 없음을 느꼈다. 그러다 모이라는 카톡 연락을 받고 뛰쳐나갔다. 역시나 시간이 부족했다.

슈투트가르트 중앙광장에 높이 솟아있는 여신상과 웅장하고 멋진 분수대를 바라보며 삼삼오오 잔디밭에 자유롭게 모여 있는 현지인과 여행객 사이에 끼쳐 유럽특유의 영화의 한 장면을 만끽했다. 독일전통음식 학센과 다채로운 맥주를 시켜 서로 돌려가며 맛보기도 하고, 또 서점을 유람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을 떠올리면서 독일에서 만난 멋진 딸래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dm에서 선물도 챙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친 일상을 벗어나보고자 여행을 꿈꾸지만 막상 여행지에선 나의 일상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리며 선물을 챙긴다.

다음 일정은 독일을 떠나 프랑스 영토 스트라스부르다. 스트라스부르로 달려가는 도중 핸드폰에 갑자기 문자가 쏟아진다. 프랑스 한국대사관에서 보내는 문자가 여기서 부터가 프랑스임을 알려준다. 스트라스부르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으로 유명한 알자스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는 그림책작가 토미 웅거러의 기념관과 뽀띠 프랑스를 방문했다.

한때 독일과 프랑스 영토를 번복했던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난 토미 웅거러는 전쟁의 혼란과 위험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가 여러 작품에서 괴물이나 강도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왜곡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의도는 그런 배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토미 웅거러 미술관 초입부터 토미다운 꼼직한 조형물이 우릴 맞이한다. 자세한 설명은 듣진 못했지만 한 예술가의 독특한 세계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미술관 주변 시설에 토미 웅거러의 작품이 덧입혀져 있다. 도시가 어떻게 일상에서 예술가를 기억하고 시민과 공유하는지도 볼 수 있었다.

뽀띠프랑스는 작은 운하를 사이에 두고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서 마치 동화나라에 들어선 듯한 환상적인 곳이었다. 커다란 아름드리나무 아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유람선 관광객들과 서로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영화 속 한 장면에 있는 듯 했다.

스트라스부르 노트르담 대성당은 감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말로는 더더욱 표현할 수가 없다. 1015년에 건축을 시작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졌고 조각 하나 하나가 당시의 장인들의 예술품일진대 외벽에만 수천 개의 조각이 있다. 천문시계도 우주의 오묘함을 담고 있는 듯 웅장했다.

마지막 일정은 다시 독일. 철학자의 도시 하이델베르크이다. 시립도서관으로 먼저 들어섰다. 밝고 쾌활한 사서분의 안내를 받았다. 사실 어느 책에서 보았던 어린이실의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용의 조형물을 상상했었다. 대대적인 구조 변경 작업이 이루어졌다한다. 용은 아 기용이 되어 멋지게 천장을 날고 있었고. 청소년을 위한 코너도 마련했다. 청소년시기의 특성을 배려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만화와 미디어를 배치해 놓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의자와 강렬한 색감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인기 있는 작품과 새 책들은 로비 한 복판에 눈에 띄게 배가 해 놓고 서가는 흥미 있는 주제별로 정돈되어 있었다. 어마어마한 잡지 코너도 부러웠다.

꼬맹이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물론 진행하고 있었으며 우리에게도 가방 째 선물로 주셨다. 우리도 답례로 준비한 수공예 선물을 전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이 대학은 울타리가 없고 작은 마을 곳곳에 건물이 위치해 있다, 대학 도서관도 시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며 대학 강의도 시민들에게 열려져 있다. 또 많은 걸출한 사상가들을 배출했으며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이지만 무려 5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특히 철학자의 길은 한 번쯤 걷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울로 떠나야 하는 날이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며칠 묵으면서 대학 도서관도 둘러보고 여기저기 역사의 아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고성에도 천천히 올라보고, 무엇보다 많은 철학자들이 앞을 얻었던? 철학자의 길을 걸어보고 싶다. 대성당에서 기도문 작성하는 메모지에 그렇게 소망을 적어보았다.

왜 나는 독일이 가장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을까? 혹시 여행 중에 내가 품은 생각이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약간의 조바심을 가지고 떠난 여행이었다. 너무나 다행히 환상 그 이상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지난 과오를 기억하고 성찰하고 옳은 방향을 찾으려 하면 기꺼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시작할 줄 아는 독일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성숙한 독일의 바탕엔 그들의 일상에 늘 맞닿아 있는 도서관과 서점 또 정부의 독서관련 정책의 뒷받침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가장 가보고 싶었던 나라 독일을 다녀올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준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와 총대장님의 여행기획과 수고 그리고 배려 속에 함께 해준 도서관지기 샘들에게 지금도 고마움이 가득하다.

적은시간동안 어마어마한 시공간 이야기에 노출되어 돌아와서도 얼마동안은 아무생각이 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시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인문학적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학문의 바탕에 철학을 두고 있음이 아닐는지.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과거를 품고 미래를 고민하며 현재에 살고 있는, 이것이 일상인 독일을 만났다. 내가 만난 독일은 친절하고 소박하고 섬세했다.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나누는 작은도서관의 일상이 더욱 소중해진다.

독일 어느 마을 벼룩시장에서 나와 눈이 마주쳐 데려온 난쟁이와 가끔 독일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

Ⅶ. 보조 사업 보고 및 평가 보고

1.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1) 사업 목적

- 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지역의 은퇴자나 독서문화기획자를 ‘책친구’로 선정하여 개성 있고 독창적인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은도서관의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기획 능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책친구’ 지원으로 독서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와 생활문화공간으로의 운영 내실화

2) 사업개요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한 기금사업
- 사업기간 : 2018. 4. 1.~2018. 11. 30
- 대 상 : 전국 작은도서관 90개관 선정
- 선정방법 : 문화소외 지역 우선 선정으로 지역 안배,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결과 B등급 이상 작은도서관 우선 선정
- 책친구 선정 : 작은도서관에서 책친구를 추천하고 선정. 2017년에 이어 책친구 자격조건은 작은도서관 지역 내 은퇴자, 독서문화기획자, 작은도서관 경험이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자로 선정
- 독서프로그램 운영 : 5월에서 11월까지 전국 90개관 작은도서관에서 책친구들은 월10시간 이상 독서문화프로그램을 7개월 동안 진행하고 강사비 40만원을 지원(원천세를 제외한 금액 지급)

3) 사업 진행 결과

- 전국 작은도서관 90개관 선정(사립 61곳, 공립 29곳), 지역별로는 서울 14곳, 강원 4곳, 경기 21곳, 인천 4곳, 경상 21곳, 충청 10곳, 호남 16곳 선정되었고, 은퇴자가 23명 이었다.
- 사전 사업 설명 워크숍 : 책친구 사업에 관한 취지와 내용 공유, 책친구 사업에 관한 상세 설명, 공통주제인 ‘꿈을 꾸다’를 위한 특강 등 (4회 실시)
- 작은도서관 역량강화를 위한 그림책 특강과 지역 네트워크 간담회 실시 (5회)
- 작은도서관 우수 독서프로그램 사례발표 및 특강, 책친구 활동 결과물 전시해서 네트워크에 효과적이었고 관심도 높았다.
-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를 발굴, 사업이후에도 작은도서관과 네트워크를 맺으며 지역의 독서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지역 은퇴자들은 작은도서관과 연결,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 책친구에 대한 안정적인 강사비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 현장 실사를 통해 진행과정과 효율성, 참가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확인과 내실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4) 사업 성과 평가

- 전국 90개 작은도서관에서 6,300여회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으며 약 9,450여명 참여자들이 책친구들과 함께 지역의 독서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은퇴자, 자원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책친구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으며, 안정적인 강사비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진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방안 마련할 수 있었다.
- 특히 2018년은 지역 은퇴자들과 함께 하며 지역의 인재를 발굴할 수 있었으며, 은퇴자와 작은도서관의 연대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 공동주제 ‘꿈을 꾸다’를 통해 풍성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 보급할 수 있었으며,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주제에 대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 책친구 사업 이후에도 책친구로 활동하였던 책친구(은퇴자, 문화기획자, 자원활동가 등)는 작은도서관 인력으로 남아 지속적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할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었다.(사업이 종료된 후 계속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 있는 도서관은 설문지 응답 72.4%였다.)
-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강사비 지원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긴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어 도서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 책친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하는 아이들, 책친구 강사, 도서관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고, 도서관과 이용자들이 친밀해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 무엇보다도 책친구 사업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 되었고, 이용자가 확대 되었고, 자원활동 하는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2. 2018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계획	세부계획	진행 결과
2018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 기간 : 2018년 2월~12월 - 내용 : 전국 작은도서관 100개관을 선정하여 매월 마지막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예 문화체험강사들을 파견하는 사업 - 사업비 : 300,000천원	- 전국 100개 작은도서관 700회 문화예술활동 진행

1) 진행과정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한 기금사업

- 매일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작은도서관에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벌이는 활동
- 2월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총 454개 작은도서관이 지원하여, 심사를 거쳐 100개 작은도서관을 선발.
- 3월 초에 4개 권역에서 사전 워크숍을 진행.
- 2월 - 12월까지작은도서관 100곳에서 총 700회 문화예술활동을 진행

2) 평가

-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강사들이 책과 연결된 작은도서관 책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다는 점과 작은도서관에서는 홍보와 진행만 담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서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질 높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이 발굴되었고, 협회와 작가 예술가, 문화예술강사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2018년도에는 작은도서관 별로 ‘연속 강의’와 ‘다양한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한 달 1회이지만, 연속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속 강의를 실제로 진행했던 작은도서관 경우 반응은 호불호가 있었다. 이를 잘 준비하고 계획한 도서관의 경우 호응이 좋았으며, 즉자적으로 판단하고 연강을 신청한 경우 다양한 강의를 더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 2018년에는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사례를 대비해 업무흐름도와 체크리스트 등이 작은도서관에 추가로 제공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 1인 인력비로 마지막주에 집중되는 사업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후 다시 기금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지금까지 성과를 잘 기록하고 남기는 일, 협회와 관계 맺어진 문화예술강사들과 네트워크를 질적으로 확대해내는 일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3) 2015년-2018년 사업 진행과정과 평가 및 제언¹⁾

① 사업내용

연도	내용	횟수	예산	비고
2015년	작은도서관 70개관 7회씩	490회 진행	2억	
2016년	공공도서관 20개관 4회씩 = 80회 작은도서관 80개관 7회씩 = 560회	640회 진행	3억	- 공공도서관 병행
2017년	작은도서관 100개관 7회	700회 진행	3억	- e나라 도움 시스템으로 진행 시작
2018년	작은도서관 100개관 7회	700회 진행	3억	- 마지막주로 확대 - 연속 활동 진행

1) 2019년에는 이 사업 담당자가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015년부터 진행했던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대한 총평도 실어봅니다.

- 2015년 문화예술강사(주로 작가군)를 작은도서관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
-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작은도서관은 행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기획
- 질 높은 문화예술강사(주로 작가군)를 작은도서관에 파견하여 기존과 다른 형식의 문화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음.

②진행과정(업무분장)

- 2015년-2017년 지역에 매니저를 두고 1인 인건비를 쪼개쓰는 방식으로 진행
- 2018년 중앙에서 총괄
- 2015-2017년까지는 매회 다른 강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
- 2017년에는 2차년도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경우 연강으로 진행
- 2018년에는 도서관의 선택에 따라 단강 또는 연강을 선택하여 진행

③ 성과

- 질높은 문화예술강사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질높은 문화예술활동의 전형을 마련했다고 보임 →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비슷한 모델의 활동을 기획해서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작가들이 작은도서관을 찾아가는 사례가 증폭되었음 → 이 역시 비슷한 모델이 확산되었음
- 문화예술강사들이나 작가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

④ 한계

- 적은 예산으로 지역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의 어려움
- 해가 갈수록 작은도서관 준비정도가 형식화되거나 부족한 현상
- 비슷한 사업이 많아지면서 가치정도가 낮아짐
- 협회 중앙총괄자가 업무를 중첩하여 사업에 집중도가 떨어짐

⑤ 앞으로 방향

- 1안 : 사업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다.
: 강사나 작가 파견 방식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기획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모든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을 수행했던 도서관은 각각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신규인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
: 작은도서관의 기획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문화가 있는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문체부와 합의가 필요함.
→ 중앙의 역할이 커짐
- 2안 :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관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중앙에 2인 활동가를 두고 진행
: 지역에서 실사를 해줄 담당자를 정해 실사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진행

: 기존 문화예술강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카이빙을 높여내는 형식으로 진행

⑥ 그밖

-2019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한 3차가 됨. 2019년 이 협회가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음. 기간의 내용을 잘 기록하고 답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해 보임.

3. 마포구 작은도서관에서 열리는 사랑방 인문학 사업

1) 사업목적

- 책을 매개로 지역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을 연계, 지역의 독서문화발전에 기여
- 작은도서관 주 이용자인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
-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 수용하고 학습자와 밀착되는 인문학 강좌 개최
-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4~2018.11
- 사업명 : 작은도서관에서 열리는 사랑방 인문학 사업
- 대상 : 마포구 9개 작은도서관 모든 연령의 이용자

3) 사업진행결과

도서관	대상	강의명	강사	진행일	회차	수강생 수
푸르메 어린이도서관	초등 학생	인성인문학 -차별없는 그림책1 -차별없는 그림책2	공진하 정진호	6/7(목), 6/14(목) 16:00-18:00	2	32
복사골 작은도서관	성인	우리는 왜 시를 읽어야 할까? - 함민복 시인과의 만남	함민복	6/18(월) 10:30-12:30	1	29
용강동 작은도서관	성인	-어린이라는 독자 -갈래별 책읽기 -우리 그릇 만들기	김소영 김소영 이미선	5/31(목),6/7(목),6/14(목) 10:30-12:30	3	28
꿈을이루는 작은도서관	청소년	-노동자와 노동인권이야기 -최저임금이야기-나의 노동권은 내가 지켜요!	하현숙 하유미	6/16(토),6/23(토) 14:00-16:00	2	19

늘푸른소나무 작은도서관	성인	-그림과 글로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 - 그림과 글로 전하는 나의 이야기 1 - 그림과 글로 전하는 나의 이야기 2	고정순	6/5(화),6/12(화),6/ 19(화) 10:00-12:00	3	24
성산글마루작 은도서관	성인	*비주얼텔링,생각을 스 케치하다 - 낙서같은 이미지 - 소통하는 이미지 - 스토리가 있는 이미 지	이준구	6/8(금),6/15(금),6/ 22(금) 10:30-12:30	3	44
성매 작은도서관	성인	* 책과 함께 떠나는 문 화산책 - 오페라의 감동을 찾 아서 - 그림으로 고전읽기 - 영화 속, 어쩌다 마주 친 미술	황지원 문소영 이혜정	6/26(화), 6/27(수), 7/3(화) 10:00-12:00	3	60
해오름 작은도서관	성인	*작은도서관, 문화다양 성을 이야기하다 - 현대사회와 문화예술 - 현대사회와 다양성	최혜자	7/6(금),7/13(금) 10:00-12:00	2	34
해오름 작은도서관	성인	*엄마의 즐거운 책읽기 - 엄마로 산다는 것 - 좋은 어린이 문학을 읽는 즐거움 - 독서교육에 대하여	한미화	9/4(화),9/11(화),9/ 18(화)	3	47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성인	- 카뮈의 <이방인>과 부조리 - 세르반테스의 <돈키 호테>와 비이성 - 도스 토 예 프 스키 의 <카라마조프가의 형 제들>과 인류애	이현우 (로자)	11/5(월),11/19(월), 11/26(월) 10:30-12:30	3	83
합계					25	400

4) 사업성과 및 평가

- 마포구 9개 공립작은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열리는 사랑방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총 25회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 약 400여명이 인문학 강좌를 들음.
- 유아와 동반 부모, 청소년, 성인 등 마포구청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한 연령 및 계층대상의 사랑방 인문학 진행
- 홍보 웹진과 배너 설치로 ‘작은도서관에서 열리는 사랑방 인문학’홍보와 작은도서관 홍보

효과가 극대화

- 구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을 알리고,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수준높은 인문학강의의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음. 또한, 강좌를 들으러 온 구민들에게 작은도서관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독서동아리 활동과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

-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하여 마을과 동네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밀착하여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은 동네사랑방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각 도서관은 강의기획, 강의수행 등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작은도서관의 재정구조상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용자들이 원했던 강좌를 진행할 수 있어서 뿌듯했음.

- 마포구청 9개 작은도서관은 1인관장체제인데,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기뻐했으며, 마포구 전반을 두고 인문학강좌를 진행한 것이 보람있었음.

- 협회와 원활하고 빠른 소통이 이루어져서 좋았음. 회계와 강사섭외, 진행상의 소통도 원활했으며 2번의 평가회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음.

Ⅷ. 지부 사업 보고 및 평가 보고

1. 서울지부

1) 회원도서관 현황

- 2018년은 서울지부 회원도서관의 변동이 있었다. 26개관으로 시작하여 세 기관이 신규도서관으로 가입하고, 네 기관이 탈퇴를 하여 모두 25기관이다. 새로 가입한 도서관은 배고픈사자작은도서관, 송파작은도서관연합회, 다운작은도서관이고, 탈퇴한 도서관은 이사랑나눔작은도서관, 송파작은도서관연합회, 다문화도서관바오밥나무, 도봉기적의도서관이다. 현재 개별도서관 23기관과 협의회 2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① 2018 지방선거에 서울지부 작은도서관이 구별로 정책제안서 작성하여 제안 :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작은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 공유

- 독서 인구 감소: 서울시 작은도서관 개수는 계속 증가하는데(1000개가 넘는다) 책 읽는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다.

-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서울시 작은도서관육성지원금 외에는 예산이 없다. 지원사업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지원사업이 문화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어 책읽는 문화조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

- 서울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이 견디지 못하고 지자체는 마을문고를 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작은도서관 숫자만 불리고 있다.

- 서울시 대표 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독서지원은 부족하다.

- 자치구는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다.

② 정책 제안을 위해 서울지부에서 한 일

- 각 구별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방향을 논의하였다.

- 정당 후보에게 메일, 우편, 선거사무실 방문을 통해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 정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력한 후보에게 보내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 진행되는 상황을 서울지부 단톡방에서 공유하며 다른 구가 참고하도록 하였다.

③ 서울지부 작은도서관들의 정책제안 결과

- 강동구 : 시민단체와 결합해서 제안

- 송파구: 송파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을 초대하여 간담회 개최 (2018.5.24.)

- 마포구 : 구립작은도서관 연합으로 구청장 후보 사무실 방문, 시의원 후보와 구의원 후보 만나서 제안서 전달
- 성동구 : 구청장 후보 만나서 전달. 이번 기회에 성동구작은도서관협의회 구성.

3) 스스로 아카데미 <그림책 깊이 읽기>

① 추진 배경

- 권역지기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아카데미’를 기획하여 서울지부 작은도서관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지부 작은도서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② 스스로 아카데미 진행 내용

일시	내용	강사 혹은 진행자	진행 장소	참가 인원
10월 5일(금) 10:00~12:00	그림책의 장르적 특성	강무홍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35명
10월 12일(금) 10:00~13:00	작은도서관과 책, 2018	서울지부 회원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29명
10월 19일(금) 10:00~12:00	그림책의 플롯 분석	강무홍	느티나무도서관	30명
11월 2일(금) 10:00~12:00	그림책의 여러 가지 플롯	강무홍	느티나무도서관	31명
11월 9일(금) 10:00~12:00	그림책의 인물 분석	강무홍	곰세마리어린이도서관	24명
11월 16일(금) 10:00~12:00	그림책의 시공간적 배경	강무홍	곰세마리어린이도서관	22명
11월 23 (금) 10:00~12:00	논픽션 그림책의 세계	박정선	흥부네그림책도서관	20명
11월 30일(금) 10:00~12:00	그림책에 담긴 예술과 문학, 인생	강무홍	흥부네그림책도서관	24명

③ 스스로아카데미 참가자 소감

참가자 1 - 그림책을 깊이 보는 시각뿐 아니라, 넓게 보도록 확장해 주는 강의였습니다. 그림, 건축, 음악까지 넓혀주셨어요.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이 있으면 그림책을 이해하는 폭도 커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7번 강의 동안 내내, 선생님이 골라주신 그림책과 강의 내용을 통해 생명, 평화, 존중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가자 2 - 그림책 모임을 하면서도 깊어내지 못한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에 항상 목이 말라 있었는데 강무홍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깊이가 무엇인지 절실히 느껴졌어요.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담아내는 깊이를 강의를 통해서 공부해보니 이제야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벌써 끝났다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강무홍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어요. 추진하시고 만들어내시고 관리하시느라 애쓰신 관장님들, 선생님들, 좋은 강의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활동하는 곳에서 열심히 그림책 동아리 참여하면서 그림책 깊이 읽기의 여운을 이어 가겠습니다~^^

참가자 3 - 그림책!! 깊이 읽기!! 회를 거듭할수록 깊이가 더해진 좋은 강의였습니다. 강사님의 따뜻함이 여전히 저의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림책 작가님들의 마음을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고스란히 전하려고 애써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먼 길 오가시며 강의해주신 작가님이자 강사님께, 좋은 강의를 준비해주신 협회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따뜻하게 살아요!!

참가자 4 -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의 그림책을 선생님의 깊은 시선과 철학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전해주시는 가르침에 매번 감동합니다. 좋은 강의 기획과 진행을 위해 앞에서 뒤에서 끌어주신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스스로 아카데미 파이팅! 강무홍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4) 서울지부 간담회

- 2016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꽃, 인력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작은도서관 인력의 현실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작은도서관의 꽃, 책’을 주제로 책의 선정과 전시, 배가, 독서활동들을 회원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 이용자와 함께 책을 읽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였다.

- 2018년에는 ‘작은도서관과 책, 2018’을 주제로 2017년 포럼 이후에 각 도서관에서 활동한 사례를 나누며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활동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자의 도서관에서 계속 이어가는 힘을 얻는 자리를 만들었다.

〈사례 발표〉

- 도서관의 다양한 전시 :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작은도서관
- 방학에 매일매일 책읽어주기 : 아릅드리작은도서관
- 그림책 작가와 만나요 :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 0세부터 100세까지 : 흥부네그림책도서관
- 성북작은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5) 2018년 활동 총평

- 서울지부 공동사업인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회원 도서관의 유대와 연대를 형성하고, 그림책을 철학, 역사, 문학, 예술을 겸비하여 깊고 넓게 보는 시각을 형성하여 개별 도서관 운

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정책포럼을 이어나가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여 서울지부 회원 도서관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타 도서관들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개별 도서관 발전을 모색하였다.

- 2018 지방선거에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면서 작은도서관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방향을 모색하며 후보들에게 작은도서관의 실상을 알리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 권역지기를 통해 협회 소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수렴을 하면서 권역별 모임을 활성화하여 권역지기가 자리를 잡는 한해가 되었다.

- 회원도서관을 두 곳 늘리고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2. 경기북부지부

1) 총평

- 경기북부지역의 5개 작은도서관과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한 곳으로 구성된 경기북지부는 특별히 연대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구성하지는 못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경기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소속도서관들이어서 경기도 사업을 통해 연대하고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등의 형태로 연대, 협의회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2) 회원도서관현황

- 고양 책놀이터작은도서관
호수공원작은도서관
반디작은도서관
청소년책문화공간 깔깔깔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 파주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 부천 뜰안에작은나무 작은도서관

3) 2018년 활동보고

-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과 뜰안에작은나무,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신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지부장선출은 3월에 진행할 예정

4) 2019년 활동계획

-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한 노력
- 경기북부지부의 단독 사업을 위한 노력
- 경기도 사업진행에 대한 입장 정리

3. 경기남부지부

1) 총평

- 갓 태어난 도서관과 20년 역사를 가진 도서관이 공존하는 경기남부 회원도서관은 각각의 다양한 모습대로 여전히 바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변화하고 성장하였다. 나이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 독서문화의 중추로 우뚝 서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 경기 남부 회원 도서관들은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 협의회 결성을 주도하며, 지자체 작은도서관이 소통하고 결집하여 지역 작은도서관의 정책과 지원 내용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날로 늘어가는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경기 지역의 회원도서관들의 표나지 않는 노력 중 하나이다.

- 새해에 경기남부는 회원도서관 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권역을 세분화하여 구리남양주하남, 성남, 수원안양평택 3개의 지회로 나누어 활동할 계획이다. 회원도서관들이 제안하고 지원하며 서로의 역할을 강화하며 회원도서관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나누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2) 회원 도서관 현황 : 15곳

	지역	도서관 명
경기남부	성남	책이랑 도서관
	성남	푸른어린이도서관
	성남	하늘달팽이도서관
	성남	민들레도서관
	성남	성도협(30)
	성남	사과나무 작은도서관
	성남	꿈앤휴 작은도서관
	구리	애기똥풀 작은도서관
	남양주	하늘소 도서관
	하남	좋아서가는 도서관
	하남	꿈꾸는 달팽이 도서관
	수원	해님달님 도서관
	안양	푸른어린이도서관
	평택	함께하는마을 도서관
	평택	노을 작은도서관

3) 2018년 활동보고

- 지부회의 1회 실시

날 짜	장 소	내 용
9월	책이랑	지부별 소식 나눔

- 지부회장: 꿈꾸는 달팽이 작은도서관 유명삼
- 지부보고: 네트워크 활동을 추가할 필요
권역별 소통 논의

4) 2019년 활동계획

- 지회장 및 지부장 선출
- 주기적인 지부회의 실시
- 함께 하는 연계 사업, 교육, 포럼 실시
- 회원도서관 확충

4. 강원지부

1) 총평

- 강원지부는 상반기, 하반기 2번의 지부회의를 춘천에서 했다. 다 모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서 오후, 저녁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나눠서 만났다. 회원도서관에 협회상황과 회원도서관이 하는 일을 서로 공유했다. 달마다 '작은 도서관 무슨 책 읽어'는 서로 읽는 책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2) 회원도서관현황

춘천시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담작은도서관, 뒤뚜르어린이도서관, 스무숲도서관, 앞짱도서관(5개관)
태백시	철암도서관(1개관)

3) 2018년 활동보고

- 4월, 12월 지부회의 모임
- 독일메르헨가도 탐방 : 담작은도서관 김성란, 철암도서관 박미애

4) 2019년 지부별 사업계획

- 강원지부 상반기, 하반기 지부회의 모임 및 회원간의 교류확대
- 회원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와 도서관 활동가 교육프로그램 확대

5. 인천지부

1) 총평

- 지자체선거가 있었던 2018년도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독서문화운동과 그에 맞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한 해였다. 협회 중앙에서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여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각 지부 상황과 여건에 맞춰 토론회, 포럼, 성명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부도 협회에서 마련한 정책제안서가 큰 틀이 되어 인천 독서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 인천지부는 협회중앙에서 진행하는 총회, 포럼,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협회와의 관계를 다져나갔다. 이은주 인천지부장이 임기 중간에 지부장을 사임하여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손보경 회장이 잔여임기의 인천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남동구 꿈나무도서관의 김광원 관장은 남동구작은도서관협의회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협의회장에서 사임하였다. 그동안 남동구작은도서관협의회장으로 남동구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올해 인천시 작은도서관 우수사례에 인천지부 소속 도서관인 늘푸른도서관과 자람도서관이 선정되어 협회 소속 도서관으로서의 자긍심이 한층 높아졌다.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소속 도서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짱뚱이어린이도서관과 길벗어린이도서관의 관장을 새로 세웠고,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도 2019년 새로이 관장이 세워질 예정이다.

- 2018년 지부 활성화를 위한 회의구조 정례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각 도서관들이 바쁜 일상의 일정애 매어있고, 강화 자람도서관의 경우, 거리도 떨어져있어서 정례화가 이루어지진 못했다. 그러나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의 만남을 통해 협회 소속 도서관으로서의 소속감과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2019년도에는 분기별 정례회의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는 것이 성과로 남는다. 또한 인천지역 작은도서관 정책제안 마련을 위한 포럼 및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정책 중 인천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인천의 독서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출판, 서점, 작가, 어린이도서연구회,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각 분야의 주체들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 토론회를 준비, 개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인천독서문화포럼’을 구성하여 월 1회의 만남을 통해 인천의 독서문화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인천시 독서생태계 각 분야의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정책제안토론회 개최,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 인천독서문화포럼 구성 및 참여 등으로 의견을 넓혔고 인천시의 독서문화정책에 대한 제안자로서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이 그만큼의 역량을 담보하는지는 고민이 된다. 그 고민의 지점에서 협회에서 지원하는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스스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과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은 한층 더 성장하였다. 일회성 교육으로 우리의 고민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기에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우리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를 지속하며 작은도서관의 요구만이 아닌 인천의 독서문화 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2) 회월도서관 현황

인천 연수구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 전역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정회원 14개관/준회원 1개관)
인천 남동구	꿈나무도서관
인천 강화군	자람도서관

3) 2018년 활동보고

- 지부회의 2회 개최
- 5월 “인천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토론회-인천, 독서생태계를 말하다” 개최
- 8월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평가지표 회의
- 10월 인천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시의원과의 간담회
- 10월 인천작은도서관 정책 간담회(인천시)
- 인천독서문화포럼 10월, 11월, 12월 3회 참여
- 11월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4회 진행
- 2018 작은도서관책친구 지원사업 : 짱뚱이어린이도서관(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 2018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 길벗어린이도서관(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 2018 긴급지원 119 지원사업 : 자람도서관, 골목도서관/와글와글작은도서관/풀뿌리미디어도서관/길벗어린이도서관(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4) 2019년 활동계획

- 지부 활성화를 위한 지부회의 정례화
- 인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포럼 및 공청회 개최
- 지부 회원 간의 친목과 교류 활성화

6. 충청지부

1) 총 평

- 충청지부는 2018년 신규회원가입도서관 세종 푸른작은도서관, 천안 성성푸른도서관, 청

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3개관 포함 13개 도서관이 함께 지역내 작은도서관의 정착화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12월 제천기적의도서관은 개관15주년 증축 재개관식을 하였으며, 음성 도토리숲 도서관은 119지원 사업을 통해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문화 복지 환경을 조성하였다. 지부는 도서관별 현황과 정보교환이 주된 활동으로 이뤄졌으며, 지부회원기관들의 교류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다.

2) 회원도서관현황

- 청주 : 초롱이네도서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 세종 : 초록우산어린이도서관, 푸른작은도서관
- 제천 : 제천기적의도서관, 내보물1호도서관, 한울타리도서관
- 괴산 : 숲속작은책방, 솔맹이골작은도서관
- 증평 : 도담도담작은도서관
- 옥천 : 배바우도서관
- 음성 : 도토리숲작은도서관
- 천안 : 성성푸른도서관

3) 2018년 활동보고

- 1차 . 3월 도담도담작은도서관 - 지부회의
- 2차 . 8월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회원 워크숍 참가 및 지부회의
- 3차 . 12월 음성 도토리숲도서관 - 지부장 선출 및 지부회의
 변경전 - 한울타리도서관 석진
 변경후 - 초록우산어린이도서관 안지민

4) 2019년 활동계획

- 충청지부 회의 분기별 진행
-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충청지부 해외 문화 탐방
 : 2019년 3월 21일(월) ~ 3월24일(목) 3박 4일
 : 지역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 견학
 : 책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 체험
 : 지부 회원 간의 친목과 연대 도모

7. 대구지부

1) 총평

① 6월 지방선거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로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는 마을도서관으로 구성된 대구마을도서관네트워크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정책활동을 펼쳤다.

- 대구시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대구시 독서의 숲을 제대로 만들자'는 내용으로 대구시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후보자에게 정책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답변서를 요구했다.

- 대구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해서 교육감 1명, 구청장 3명, 시의원 2명의 후보에게 답변서를 받았다. 비록 정책실현의 의지를 보인 후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책제안 활동과 내용이 방송, 신문에 보도되어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만들었다.

②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대구시장 면담 추진

-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해서 300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목적은 도서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장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후 대구시장 면담까지는 추진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③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 독자적 사업 없었음

- 대구마을도서관네트워크, 대구작은도서관협의회 등 연대활동에 집중해서 대구지부만의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고 도서관 활동을 공유하는데 머물렀다.

- 2019년에는 대구지부가 주최하는 포럼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2) 회원도서관 현황 (총 8곳)

- 사립공공도서관 : 꿈꾸는마을도서관 도토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 사립작은도서관 : 그나라 어린이도서관,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무지개작은도서관, 반야월 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책마실도서관, 해봄도서관

3) 2019년 사업계획

- 대구지부 활성화를 위한 회의 정례화 (분기별 진행)
- 대구지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8. 경상 지부

1) 총평

- 2018년 경상지부는 2번의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경상지부장을 선출하였다. 작년 경상지부의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경상지부의 정상화에 주력했다. 지부회의 정기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부장 선출이후 1회의 정기회의를 진행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아쉬움이 있다. 각 도서관이 자관 운영만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회원도서관을 방문해 지부회의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 경남권이지만 각기 다른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올해 1월 12일 울산양정작은도서관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동안 7개 도서관 중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4개의 도서관에서 정기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석율이 저조한 도서관도 참여를 유도하여 회원도서관 간의 소통과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

2) 회원도서관현황 : 도서관 7, 협회 1

- 부산 동화랑놀자
- 김천 풀빛꽃빛어린이
- 진주 마하어린이도서관
- 진주 달팽이작은도서관
- 울산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 김해 팔판작은도서관
- 김해 불암동작은도서관
- 울산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12)_아름드리작은도서관

3) 2018 활동보고

- 지부회의 2회 실시

날짜	내용
9월 8일	장소: 진주 마하어린이도서관 지부장 선출 및 2018년 계획수립
11월 9일	장소: 김해 팔판작은도서관 각 도서관 운영현황 보고 및 논의

4) 주요사항

- 8월 김해독서문화대전 팔판작은도서관 신훈정 관장 국무총리상 수상
- 10월 전국도서관대회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참석
- 11월 제4회 순천 어린이 문화포럼 마하어린이도서관 참석
- 2019년 1월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아카이빙 전시’ 김해 팔판작은도서관 신훈정 관장 총감독 임명

9. 광주지부

1. 총평

- 책을 읽지 않던 사람이 읽게 될 한 권의 책을 권하는 곳으로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가져야할 운영철학과 자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8 스스로아카데미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진행에 회원도서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교육으로만 끝내지 않고 [광장도서관-책잇는마을, 책읽는 마을]이라는 대규모 주제전시로 직접 시민들을 만나 책을 권하는 행사로 펼쳐냈다. 이는 비독자의 독자화, 간헐적 독자의 일상적 독자화에 한걸음 다가가는 활동이었다.

- 광주시민총회에 [독서공동체활성화를위한작은도서관정책]을 제안하고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시민정치페스티벌에 게시되었다. 시민들의 직접투표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정책을 제안하고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참여도가 낮은 회원도서관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회원 도서관을 방문했으나 운영자를 만나지 못했다. 두 곳은 여전히 사업이나 현황에 대한 공유나 교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광주지부는 광산구1관, 남구1관, 북구1관, 서구4관의 회원도서관 7곳 중 다섯 곳이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우수한 도서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작은도서관건설지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광주지역 작은도서관 운영과 발전에 힘이 되어주고 있다.

2) 회원도서관 현황

① 강아지동작은도서관

② 기아꿈터어린이도서관

③ 소꿉놀이작은도서관

④ 구름다리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 자원봉사실비지급, 신간구입(291권) 글쓰기 수업(초등)과 업사이클링팝업북만들기(성인) 진행.

- 청년 여성 멘토링 지원사업 : 3개월간 진행하여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장맘 자녀에게 저녁밥과 돌봄을 제공.

-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 매월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광주광역시 무등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초등3학 년~초등5학년을 대상으로 마인드맵수업을 8차시 진행.

- 2018 북스타트 책읽는부모 아카데미 공모사업 선정 : 4차시의 교육 진행.

- 광산구 구름다리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3개의 프로그램(천연비누만들기, 중학수학 년 뭐니?, 즐기며 배우는 민요교실)을 진행.

⑤ 아이숲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활성화 지원사업 : 자원봉사실비, 도서 200여권 구입, 프로그램 운영.

-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긴급지원119사업: 냉온풍기 교체. 임대료 5개월분 납부.

- 서구행복학습센터-아이숲행복학습센터 : <베토벤의 철학여행, 헤겔의 음악여행> 철학수업진행, 다른 단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진행. 풍암동 인권마을 '풍두레'와 같이 <동요부르는 어른> 프로그램 진행, 풍암동 아이쿱자연생협과 <내몸을 살리는 녹색학교> 프로그램 진행.

→ 마을의 다른 단체들과 연합하여 진행. 작은도서관이 마을 활동의 사랑방으로 서

장소를 제공하고 만남의 매개체가 되었다.

- 외부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 함께크는나무협동조합과 연합하여 <자화상>프로그램 진행. 문화재단 지원사업으로 도서관 이용자와 회원들에게 예술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생태도서관의 공사로 인해 생태도서관의 <내가 만드는 그림책> 프로그램을 아 이숲에서 진행함. 참가자 모두 자신의 추억을 그림책으로 만들어 냄.

- 손뜨개 작품 전시회 : 도서관의 동아리인 <달콤뜨리 손뜨개모임>에서 회원들 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정하여 손뜨개 인형으로 만들어냄. 현재 <동네책방 숲>에서 전시중이며 <삼삼한 책방>에서도 전시 예정. 앞으로 원하는 곳은 순회 전시도 할 예정임.

⑥ 책돌이도서관:

- ‘책돌이로 오고, 책돌이가 가고’라는 기치로 주민과 이용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카페로 찾아가는 [Take out 전시]를 기획. 매달 다른 주제로 5권의 그림책을 소개하며 독자층 저변확대 위해 노력.

-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 : 프로그램운영, 도서구입,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2018-스스로아카데미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가져할 철학과 자세, 작가초청, 도서관컬렉션만들기, 책공간운영, 책축제기획, 홍보영상제작, 주제전시(광장도서관‘책잇는마을, 책읽는마을’)

- 이야기가 있는 작은 책전시와 원화포스터전시 : 갤러리를 포함한 전시공간에 매월 주제를 정해 전시 안내글, 이미지, 문구와 함께 책을 전시하고 출판사와 공조하여 원화포스터 전시

- 동아리보고회 : 그림책, 옛이야기, 창작동화 모임에서 지난 4년 동안 공부한 결과를 보고회 형식으로 공유.

- 어르신활동가 영입 : 세 분의 사회공헌 활동가와 어르신일자리 관련 활동가를 영입한 것이 이용자의 저변확대로 연결됨.

⑦ 책문화공간 봄:

- 2018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프로그램 : ‘책과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여행- 모두를 위한 북큐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도서관운영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북큐레이션의 의미와 북 큐레이터의 역할을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와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축제인 북 페스티벌 진행.

- 2018년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 : 거점도서관의 역할로 진행.

-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운영자 워크숍 ‘작은도서관 A~Z’ 진행. ‘모두를 위한 그림책 워크숍’ ‘이야기 팡팡 그림책 팡팡’ ‘책, 영화를 캐스팅하다’ ‘독서동아리- 소중한 경험’ 진행.

- 마을 교육 공동체사업 : 마을과 학교, 도서관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낸다는 목표 하에 ‘마을에서 가치찾기’, ‘마을에서 재미찾기’ 라는 큰 주제를 정해 진남초 학부모 모임들이 주축이 된 <느티나무 생태탐험대> 1기를 출범시키고, 진남중 <청소년 북큐레이터 수업> <마을 청소년 기획단>, 진남유치원 <50플러스 무릎교육> 등 공교육의 대안으로 마을과 도서관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계기 마련.

- 인권마을 사업으로 인권을 그림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권을 다독이다’라는 인권 그림책 목록을 만들어 쉽고 부담 없이 인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119긴급지원사업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도서관 운

영자 인건비를 지원받아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도서관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

3) 2018년 활동보고

① 광주지부회의

- 3월 13일 (화) 책문화공간 봄-각 도서관 현황과 계획 공유. 사무국장님 참관
- 8월 14일 (월) 구름다리작은도서관-사업공유 및 회원도서관 현황 파악

② 워크숍, 간담회, 포럼

- 2월 23일(금) 전주시 도서관 독서문화정책 포럼 참석
- 3월 20일(화) 광주시 도서관 정책 토론회 참석
- 5월 4일(금) 광주시민총회(on line) 독서공동체활성화를위한 작은도서관정책제안
- 5월 22일(화) 독서공동체활성화를위한 작은도서관정책제안으로 금남로에서 열린 시민정치페스티벌 참여
- 7월 16일(월) 협회회원워크숍 3관 5명 참석
- 9월 1일 (토) 2018대한민국독서대전 38명 참여(운영자, 봉사자, 도서관과 공무원)
- 8월~10월 2018-스스로아카데미지원사업진행(7차시)

3) 기타

- 4월 10일(화) 책문화공간봄에서 진행한 이영경작가 초청 행사에 회원도서관 참여
- 4월부터 #작은도서관무슨책읽어? 캠페인 참여

4) 2019년 활동계획

-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회원도서관 서로의 계획이나 방법을 나누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석하지 않은 회원도서관은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만남으로 공유하겠다.

- 연 4회 이상의 회의와 간담회, 포럼 등을 진행하고 회원도서관 행사나 프로그램에 서로 참여하여 배운다.

- 신규회원도서관 영입에도 신경을 써서 독서문화환경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도서관이 늘었으면 한다.

10. 호남지부

1) 총평

- 호남지부는 2017년을 보내면서 2018에는 지부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원도서관들이 활발히 소통해보자는 목표를 세웠다. 회원도서관들이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한계도 있고 자주 얼굴보고 서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니, 소속감도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협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활동의 필요성을 알면 신규도서관을 발굴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 하지만 각 도서관의 사정과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기에는 도서관운영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다.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문제,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 등은 지부모임을 갖는데 어려움이 되었고 협회워크숍이나 회원도서관의 행사를 통한 자리에서의 만남으로 대신하고자 했으나 이 자리에서의 만남도 쉽지 않았다.

-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 한 달에 한번 '작은도서관 무슨 책 읽어'를 통해 안부를 주고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2) 회원도서관 현황 : 총 9곳

- 남원 새싹작은도서관
- 목포 하늘을 나는 도서관
- 서천 여우네도서관
- 순천 기적의도서관
- 순천 작은나무도서관
-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 익산 삼성어린이도서관
- 제주 설문대도서관, 달리도서관

3) 활동보고

- 지부회의 1회 개최(3월 23일~24일, 남원새싹작은도서관.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김경희, 순천기적의도서관 정봉남, 남원새싹작은도서관 이경화, 여우네도서관 김명희 참석)
- 협회 회원워크숍 참여(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여우네도서관)
- 순천 기적의도서관 제4회 순천어린이문화포럼 참여(책마루어린이도서관, 여우네도서관)
- 순천 기적의도서관 개관 15주년 기념행사 진행(11월 8일~11월 10일)
- 여우네도서관 개관 10주년 행사(11월 10일)
-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진행(이상희, 유범상, 조선희 등)
- 책마루도서관 동아리 전체 비경쟁독서토론 진행
- 송천지역 아이들을 초대해서 책마루에서 1박2일을 진행하는 등 지역과 연대

IX.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센터 사업보고 및 평가 보고

1. 사업1_작은도서관 역사찾기 시즌2(아카이빙)

1) 자료수집 및 정리

- 논문을 수집하고, 검수를 거쳐, 추가하여 342편의 논문, 칼럼, 연구보고서 등이 포함된 자

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탑재 완료. (2018.8.10. 현재)

- 저작권의 문제로, 논문 파일을 탑재하지 않고 링크를 걸어 안내함.
- 유료로 다운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연구의 경향을 알 수 있게 됐으며 전문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작은도서관들과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됨.
- 게시 경로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www.smalllib.org)>작은도서관 지원센터>자료실

2) 다큐멘터리 제작

- 협회의 창립시점인 199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협회의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
- 제작기간 : 6개월
- 4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와 1분 요약영상으로 최종 편집 중.
- : 워크숍, 김해독서대전, 각 지부별 촬영 등 총 9차례 현장촬영
- 2019년 협회 총회에서 첫 시사회를 열고 아카이빙 전시에서 계속 상영, 논의를 거쳐 지부가 있는 권역을 중심으로 회원도서관 및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
- : 상영관을 잡고 특별 시사회를 여는 계획은 2019년 사업에서 논의 필요.

3) 아카이빙 전시

- 장소 : 서울도서관 기획전시실
- 일시 : 2019년 1월 22일(화)부터 2월 10일(일)까지 (3주 전시)
- 전시총감독 : 신훈정 (팔판작은도서관 관장)
- 협회의 20년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실물자료, 영상, 지도 등)과 다큐멘터리 상영을 포함, 기획안 준비 중
- 예산 : 총일천만원

4) 평가

- 다큐멘터리 제작, 아카이빙 전시 등을 통해 협회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회원 및 일반에게 알릴 수 있게 됨.
- 2017년 작은도서관 역사 찾기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전사를 정리했다면 2018년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90년대말에서 현재까지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미래, 작은도서관의 전망을 이야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2019년에 진행될 사업에서 작은도서관의 방향성, 미래전망이 담긴 내용을 담아 진행이 필요함.

2. 사업2_작은도서관 정책포럼

1) 2018 작은도서관 정책 포럼 사업 개요

- 2018 작은도서관 정책포럼은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관련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공론

화하는 기회를 갖는다.

- 월 1회 정도 작은도서관 정책포럼을 진행한다.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가치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내부 포럼 (2018년에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을 진행하고, 그 외에 시기적으로 떠오르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 2018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사업 추진현황

주제	일정	장소	발제자	내용	참가인원
〈작은도서관 포럼 15차〉 도서관법 개정과 작은도서관	4월 23일	한국여성재단 교육실	-정기원(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박소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작은도서관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발제와 토론	30여명
〈작은도서관 포럼 16차〉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어떻게 해야할까?	5월 28일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 작은도서관 어린이 책 장서개발은 어떻게 할까?_실제 사례를 중심으로_최은희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 작은도서관 어른 책 장서개발을 짚어보다_한상수 (1사1 행복한아침독서대표) - 공공도서관 장서개발과 작은도서관과 연계 가능성_이종창 (가람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 관련 장서개발에 대한 발제와 토론	60여명
〈작은도서관 내부 포럼〉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말하다	6월 27일	협회 아카데미실	아파트작은도서관 현황과 과제_김보일(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년도서관장)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 개정에 나서는 문제_박민주(성성작은도서관 관장)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지역 활동에 대한 고민_박미진(한톨도서관관장)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전망, 법개정에 대한 발제와 토론	10여명 (참가대상을 협회 내부 사람으로 제한함)
〈작은도서관 포럼 17차〉 지역 도서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7월 31일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지방자치시대 지역 도서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_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소장) 최향숙(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 손보경(인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토론	- 6월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지역에서 도서관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왔나 과정 발제 및 토론	70여명
〈독서대전 작은도서관 포럼〉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작은도서관에서	9월 2일	김해시 우암초 금바위관	-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신간평가단 사례_이은주 (늘푸른 도서관 관장) - 그림책 작가별 책임기 사례_김자영 (웃는책 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 독서활동 사례 발표 모듬별 토론 및 발표	200여명

함께 읽을래? 독서대전 심포지엄			- 동아리들과 함께 책읽기 사례_ 김경희 (책마루도서관 관장) - 김해 작은도서관 책읽기 사례_ 허미경 (내외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 정책 세미나> '생활형 SOC 도서관 정책을 이야기하다'	10월 15일	청년문화공간JU동교 등	- 생활형 SOC 정책은 무엇인가?_ 이은령 (에드컨축소장)	- 생활형 SOC 도서관 정책이란 무엇인가 발제 토론	33명
<도서관대회 포럼> 도서관 대회 '작은도서관 장서개발과 공공도서관과 협력'	10월 25일	정선하이원 리조트 컨벤션홀	- 작은도서관 어린이 책 장서개발은 어떻게 할까?_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_ 최은희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 작은도서관 어른 책 장서개발을 깊어보다_ 한상수 (I 사 I 행복한아침독서대표) - 공공도서관 장서개발과 작은도서관과 연계 가능성_ 이종창 (가람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 관련 장서개발에 대한 발제와 토론	100여명
<작은도서관 내부세미나>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11월 16일	협회 아카데미실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아파트작은도서관 법개정 관련 발제 협회 입장 정리 토론	10여명(운영위+이사회대상)
<작은도서관 포럼 18차>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미정	미정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에 발의되어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의 개정 추이와 더불어 포럼을 진행할 계획	

3) 2018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사업 평가

- 시기적으로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관련 사회적 이슈를 잘 붙잡아 포럼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높아졌으며, 지역마다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아파트 작은도서관 문제를 내부 포럼으로 진행하면서 법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것은 의미 있었다.

-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페이스북 광고, 도메리를 통한 홍보)하였으나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 포럼 이후, 관련 주제를 좀 더 심도깊이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아갈 그룹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 그간 정례적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문제를 토론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작은도서관계의 이슈를 모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일으켰다고 본다.

3. 사업3_작은도서관 아카데미

1)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① 사업개요

- 아카데미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 현장 실사와 컨설팅을 통한 교육지원
- 아카데미 결과보고회를 통한 교육내용 공유 기회제공

②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 추진 현황

날짜	내용
6/27(수) 사업 공고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홈페이지, 다음 카페에 공고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홈페이지에 공고
7월~11월	- 교육현황조사사업 실시 및 보고서 작성
~7/20(금) 제안서 접수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7/23(월) 전문가 심사	- 15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아카데미실에서 진행
7/24(화) 선정 결과 공고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홈페이지, 다음 카페에 공지
7/26(목) 선정자 교육	- 교육아카데미 선정자들의 내용공유, 예산집행안내, 이후 공유회 등의 일정공지 - 최혜자교수(성공회대 문화대학원)- 작은도서관에서 세상을 보다 강의 진행
8/8(수) 실행계획서 마감	- 실제 아카데미를 수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서 접수마감
8/10(금) 사업비 교부	- 기획, 일반 부문 선정자들에게 사업비 일괄 지급
10/5(금)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서울실사
10/10(수)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인제작은도서관협의회 실사
10/22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구리 실사
10/23(화)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양산 실사
10/27(토)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광주실사

10/29(월)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청주실사
10/31(수)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대전실사
11/5(월)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파주실사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울산 실사
11/22(목)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인천실사
11/30(금)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집행 종료
12/4(화)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발표회
12/14(금)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보고서 제출
~2019.2	자료집 제작 및 배포

③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내용

기획공모 (각 단위별 3,000,000원 지원)	
도서관명	내용
광주북구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길동무 외	책이 오고, 책이 가고
	전체 7강
	운영자인 동시에 독자로서 '한 책 함께 읽기'. 도서관 북컬렉션 교육, 광주광역시청광장에서 '광장도서관' 진행 등
	장서에 대한 전문성확보, 타 도서관과의 만남을 통해 자원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둠.
대전마을어린이 도서관협의 회	작은도서관, 아동서비스의 방법과 역할을 돌아보다.
	전체 9강
	강의, 간담회, 소감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남을 가짐. 선진지 견학(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타도서관과의 교류를 통해 각자의 도서관을 돌아보고, 매뉴얼도 정리해서 만들 수 있었으며, 강좌와 선진지견학을 통해 도서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함. 10년이 넘는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됨.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 회 서울지부	강무홍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깊이읽기
	강의(7회) 간담회 (1회)
	그림책의 장르적 특성, 플롯분석, 논픽션그림책, 그림책에 담긴 예술과 문학, 권역별 그림책모임 등 진행
	회원추천 그림책 선정 공유 등 지속적인 결과생산. 아카데미 이후에도 그림책 공부 모임을 지속하기로 함. 서울지부 네트워크를 다지고, 권역별 활성화를 가져옴. 책에 대한 관심, 깊이 읽기를 통해 각자의 도서관에서도 펼치는 장을 마련하고 공유함.
울산북구작은	작은도서관, 청소년에게 다가서다.

도서관협의회(준)	3강 강의+선진지(공릉청소년센터, 청소년책문화공간 깔깔깔) 견학+아카데미 평가회
	<p>청소년에게 다가가기 시리즈 강의 진행 - 인권, 학교밖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 활동가에게 직접듣는 청소년 이야기 등</p> <p>‘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집중해서 진행. 선진지 견학도 컨설팅을 통해 안내, 조정받음. 청소년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이 변하거나, 선입견 없는 운영자 마인드를 가져야한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이후 협의회 조직에 있어서도 긍정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자평함.</p>
청주지역독서문화활동가들의 모임	<p>‘스스로’ 아카데미 나비 글쓰기 강의 3강+스스로 교육 3회+관찰기행</p> <p>초롱이네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청주 독서문화활동가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글쓰기 강좌 및 스스로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나누는 스스로 교육진행+제주로의 깊고 심심한 관찰기행 등을 진행함. 외부강사와 활동가 스스로의 교육을 적절히 조합해서 그동안의 역사를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함.</p> <p>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각 진행되었던 활동들을 비로소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작을 열었으며, 2019년에는 글모음집으로 발간할 계획도 갖게 되었음.</p>
	일반(각 단위별 1,000,000원 지원)
도서관명	내용
구리시 4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p>구리작은도서관, 협의회를 만들다!</p> <p>강의 3회(조월례, 안찬수, 박정숙)+간담회 1회</p> <p>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구리작은도서관이지만, 폐관을 하는 작은도서관의 수가 늘면서 사라지는 위기에 처했다가 아파트작은도서관들이 생겨나면서 다시 한 번 네트워크의 기회를 갖고자 아카데미에 지원함. 3번의 강의(조월례, 안찬수, 박정숙)와 1번의 간담회를 통해 구리시작은도서관 협의회를 발족시켰음.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역네트워크를 지속해나가기로 함.</p>
	<p>꿈의 나라를 펴라(교육연극)</p> <p>4회(교육연극 이론과 실제+우리네 연극 3강)</p> <p>양산 구도심에 위치한 아파트도서관들의 모임으로 교육연극 4강 진행. 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활동가들이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루어냄.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스스로 나서고자 하는데에 뜻을 모았으며, 네트워크를 이루어 계속 이어나가기로 함.</p>
양산시 3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p>인제 사립작은도서관 실무자 아카데미</p> <p>9회 - 작은도서관 이해와 실제에 관한 책읽기 5회+도서관탐방(춘천 담작은도서관)+초청강연(2회)+워크숍(1회)으로 진행</p> <p>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심화교육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는 자평이 있었음. 작은도서관에 배치된 실무자들에게 작은도서관을 알리고, 장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강좌진행, 인제군독서포럼 진행 등을 ‘스스로’ 아카데미를 중심에 두고 진행. 협의회 입지를 다지고, 독서운동의 계기를 다지게 됨.</p>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문화기획, 어떻게 할까?
	4강 -독서문화기획 3강(강상구, 박미숙)+간담회 1회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을 인천시에 제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된 강의. 독서문화기획에 대한 강의를 강상구, 박미숙 문화기획자에 3회 동안 듣고, 1번의 간담회로 진행.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문화기획 과정을 독서문화진흥조례를 함께 준비한 인천지역의 출판, 작가, 도서관관계자 등 인천독서생태계 안에 머무르는 단위와 전방위적으로 함께 공유하기로 함.
파주시 4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그림책 놀이터
	5강- 김장성작가 (2강)+김지현 전래놀이강사(2강)+워크숍
	파주 원도심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의 모임으로, 보육원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임대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 등이 함께 지원함. 생긴지 얼마안된 작은도서관들로서 책을 중심에 둔 강좌와 활동을 통해 책의 의미와 가치, 작은도서관 활동에 대한 의미를 찾았으며, '스스로' 아카데미에 지원하고자 모였던 만남이 지역의 새로운 네트워크로 진화하게 되었다고 함.

④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 평가

-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기획,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 함.
- 심사 이후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선정자교육을 진행함. 현장에서의 고민을 듣고, 교육내용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협회는 작은도서관 현장의 고민과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를 각 지역별 단위별 특성에 맞게 만들어갈 수 있었음.
-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지역별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음. 각 단위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오래된 네트워크의 경우는 새로운 교육, 글쓰기 등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을 기록하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롭게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단위의 경우는 '스스로' 아카데미를 계기로 지역의 사람을 발견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작을 만들게 됐다는 평가를 함.
- 사업 이후 네트워크를 협회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이후 협회의 전망과 공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집을 통해 각 단위에서 진행된 강의자료와 내용은 공유될 예정임.

(2) 교육현황조사사업

① 사업개요 및 진행과정

- 교육현황조사사업은 교육영상 제작 사업의 사전사업으로 기획, 진행.
- 전국에서 시행되어온 도서관교육을 조사하고, 실제로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형식을 빌어 진행함.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애, 김경희 위원이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함.

② 사업내용

- 전국에서 시행되어온 도서관교육 476회를 표본으로 삼아 작은도서관 교육현황과 강의내용을 분석하고 이후 7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7주간 협회도서관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함. 최종 분석대상 표본수를 총 238개로 하여 조사함.

- 조사결과 꼭 필요한 교육에 높은 응답을 받은 것은 작은도서관의 이해(도서관의 역사와 철학, 도서관법 등), 자료관리 실무, 책문화프로그램 등으로 조사됨.

- 이를 기반으로 선정된 교육영상 아이টে은 작은도서관의 이해, 장서, 사람,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이며, 강사로는 박소희(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김자영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관장, 오혜자 초롱이네도서관 관장, 박미숙 책과도서관 대표로 정하고 2019년에 제작될 교육영상을 위해 준비에 들어감.

③ 사업평가

-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작은도서관관련 교육을 조사하고, 실제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됨.

- 설문조사가 늦어지면서 교육영상 진행과정이 늦어진 점은 아쉬움.

4. 사업4_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1)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① 사업개요

- 신청 대상 : 작은도서관등록증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전국 사립 작은도서관
- 2017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사업, 작은도서관 특화지원사업 선정 도서관은 제외
- 지원 내용 : 인건비성 경비, 공과금, 임차료, 시설보수비, 자산취득비
- 지원 금액 : 선정 도서관(50개관 내외) 각 3,000,000원 내외 차등 지원

②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추진 현황

날짜	내용
5/30(수) 사업 공고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홈페이지, 다음 카페, 페이스북에 공고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공고
~6/15(금) 제안서 접수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6/22(금) 전문가 심사	- 15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아카데미실에서 진행 - 심사위원 : 안찬수((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백현진(성산 글마루작은도서관 관장), 최은희(수원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박소희((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6/25(월) 선정 결과 공고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홈페이지, 다음 카페에 공지 - 개별 도서관에 문자와 메일로 통보
6/28(목) 선정자 교육	- 10:30~12:30, 한국출판인회의 강당에서 진행 - 내용 :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기금과 조성 과정, 운영주체에 대한 설명, 긴급지원 119 사업에 대한 설명, 회계지침 및 집행요령 안내 - 대상 : 선정 도서관 중 총 45개관 참여 (부득이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선정도서관의 경우, 직접 방문안내)
7/5(목)	대전지역 119 안내 및 실사 : 선비마을 작은도서관 119 실사,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등
7/9(월)	순천 119 안내 및 실사 : 순천 작은나무작은도서관
9/5(수)	긴급지원 119 실사 - 김해 떡갈나무숲 작은도서관
9/19(수)	긴급지원 119 실사- 진주 달팽이, 금빛마을작은도서관 등
10/26(금) 전체교육	경의선책거리, 11:00-17:30 최종정산 및 보고서 작성안내 경의선 책거리 탐방 및 세미나 참여 총 18개관 23명 참여
11/30(금)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사업집행 종료
12/14(금)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결과보고서 제출
~2019.2	자료집 제작 및 배포

③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추진 결과 (총 62개관 신청, 그 중 50개관을 선정)

- 운영에 따른 분류(%)

-	총	개인	교회	단체	아파트
선정	50개관(100)	12개관(24)	7개관(14)	24개관(48)	7개관(14)

- 지역에 따른 분류(%)

-	총	서울권	경기권	인천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
선정	50개관 (100)	5개관 (10)	9개관 (18)	7개관 (14)	1개관 (2)	9개관 (18)	8개관 (16)	9개관 (18)	2개관 (4)

- 지원 항목 순위(중복 지원 가능)

-	자산취득비	인건비성 경비	임차료	시설보수비	공과금
선정 도서관	25개관	20개관	14개관	8개관	11개관
지원 금액	41,730,000	46,200,000	32,058,780	16,630,000	7,611,220
실제 사용금액	41,082,580	46,200,000	32,033,625	16,600,000	6,114,594
잔액	647,420	0	25,155	30,000	1,496,626

*지원 금액 : 총 144,230,000원 / 최종 집행 금액 : 총 142,030,799원

④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평가

- 작은도서관이 당면한 가장 긴박한 문제를 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이고 확실한 도움을 줌.

- 선정자교육, 실사, 전체교육을 통해 선정도서관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상황을 듣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들이 서로 연대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함.

- 실제 지원은 5개월이었지만, 10개월 이상의 지원효과를 낳았다는 전체교육 당시 작은도서관들의 소감처럼 대부분의 작은도서관들은 인건비, 공과금 지원을 기반으로 두고, 향후 운영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한해가 되었다고 했음. 인건비와 공과금 지원의 경우, 도서관의 안정화를 이루어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활력을 가져왔으며, 화장실 설비보수 등 시설 보수, 냉난방기 마련 등 꼭 필요하나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음.

- 그러나, 몇몇 도서관의 경우는 운영상의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실무자, 운영자 등의 실수로 공과금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해 반 이상의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음.)

- 2년간의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사업을 통해 실질적 지원(인건비, 공과금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도움이 됐음은 분명함.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속적인 문의가 협회로 오고 있음.

- 119사업을 통해 관이 어려워하는 지원 부분이 작은도서관에 도움을 주었으나 향후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개별 도서관뿐 아니라 협회에서도 공동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 보여짐. 더불어 2년간 지원된 작은도서관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비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남고, 예산 대비 지원금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2019년 사업에서 남은 총액의 사용 출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작은도서관 특화지원사업 간담회

① 추진내용

- 일시 : 2018. 7. 3 (화) 14시~16시
- 장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아카데미실
- 배경 : 2017년,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2016년 기금을 통해 작은도서관 특화지원사업에 총 8개 작은도서관과 사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특화 이후 어떻게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공유함.

도서관명	내용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사진에세이 ‘찰칵! 우리그날’을 펴내 은행나무도어린이서관의 역사를 정리하는 자료집 출간. 마을과 호흡하는 도서관으로서 활동 지속
초롱이네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와 연계. 청주독서문화활동가와 초롱이네 역사정리 작업 시작
팔판작은도서관	예술특화도서관으로서 월별전시, 순회전시,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 김해독서대전 참여 등 지역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스스로’ 아카데미- 인천지부와 결합. 독서문화진흥조례 이후 독서문화기획 등에 참여. 여성주의 강좌 등을 진행하며 특화도서관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책이랑도서관	다양한 강좌 등을 기반으로 마을그림책 만드는 작업진행.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나무도장과 함께 하는 4.3. 평화기행, 평화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평화도서관이라는 특화주제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음.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인권축제 참여, 평화캠프, 청소년교류캠프 진행(오사카) 등을 진행하며 활동지속
책돌이도서관	광주책축제 기획 및 진행, 광장책읽기 기획 및 진행 등

② 평가

- 간담회를 통해 각 도서관의 특화내용을 공유하고, 특화로 연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 각각의 도서관을 둘러보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당시에는 11월 만남을 갖기로 하였으나, 각 도서관의 바쁜 일정 등으로 수행하지 못함.

5. 일정별 경과보고

날짜	내용
4/17(화)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2018년 기금 추진 협의회의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아카데미실
4/23(월)	<p>작은도서관 정책포럼 15차 '도서관법 개정과 작은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한국여성재단 교육실
5/8(화)	<p>도서관문화재단 씨앗과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2018년 기금' 협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도서관문화재단 씨앗
5/28(월)	<p>작은도서관 정책포럼 16차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어떻게 해야할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5/30(수)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공고 (6/15 마감)
6/22(금)	<p>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전문가 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아카데미실
6/25(월)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선정결과 공고
6/27(수)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준비를 위한 간담회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말하다'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 공고
6/28(목)	<p>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선정자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한국출판인회의 강당
7/2(월)	<p>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2018년 기금 추진 협의회의 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아카데미실
7/3(화)	<p>2017 작은도서관 특화지원사업 8개관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아카데미실
7/5(목)	<p>대전지역 119 안내 및 실사 : 선비마을 작은도서관 119 실사,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등</p>
7/9(월)	순천 119 안내 및 실사 : 순천 작은나무작은도서관
7/16-17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워크숍 다큐멘터리 촬영
7/20(금)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공모마감
7/23(월)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전문가 심사
7/24(화)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선정자 공고
7/26(목)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선정자 교육
7/31(화)	17차 정책포럼 '작은도서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8/8(수)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실행계획서 제출
8/24(금)	18차 정책포럼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말하다

9/1(토)	2018 대한민국독서대전 작은도서관 심포지움 작은도서관 #함께읽을래? / 다큐멘터리 촬영
9/5(수)	긴급지원 119 실사 - 김해 떡갈나무숲 작은도서관
9/19(수)	긴급지원 119 실사- 진주 달팽이, 금빛마을작은도서관 등
10/5(금)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서울실사
10/10(수)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인제작은도서관협의회 실사 다큐멘터리 서울지부-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촬영
10/15(월)	19차 정책포럼 '생활형 SOC 도서관 정책을 이야기하다'
10/20(토)	다큐멘터리 촬영-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10/23(화)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양산 실사
10/25(목)	제 55회 전국도서관대회 참가 - '작은도서관 어린이책 장서개발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협력'
10/26(금)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전체교육- 경의선책거리 일대
10/27(토)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광주실사 다큐멘터리 광주지부 - 책돌이도서관 등 촬영
10/31(수)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대전실사 다큐멘터리 서울지부-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촬영
11/3-5 (토-월)	다큐멘터리 호남지부-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등 촬영
11/9(금)	다큐멘터리 호남지부- 순천 기적의도서관 촬영
11/11(일)	다큐멘터리 촬영- 역대이사와의 만남
11/16(금)	정책포럼
11/30(금)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사업마감
12/4(화)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결과보고회
12/24(월)	다큐멘터리 추가촬영
12/28(금)	2018 기금추진협의회 3차
2019년 1월중	-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자료 집제작, 배포 아카이빙 기획전시 (1.22-2/1 , 서울도서관 기획전시실) 다큐멘터리 '작은도서관, #함께읽을래?(가제) 상영예정 (전시, 총회 등)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총회 (1/24)

X. 기타 사업 보고

1. 2018 작은도서관 세월호 특별기획 - 전국 총 117개관 참여

· 솔메이골 작은도서관 ·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 내보물1호 도서관 · 한올타리 도서관 · 초롱이네 도서관 · 배바우 도서관 · 초록우산어린이도서관 · 도토리숲 작은도서관 · 참도깨비 도서관 · 하늘소 작은도서관(남양주) · 덕풍시장 작은도서관 · 민들레 작은도서관 · 좋아서가는 작은도서관 · 꿈&휴 작은도서관 · 꿈꾸는 달팽이 작은도서관 · 초록어울림 작은도서관 · 책이랑 작은도서관 · 푸른어린이 작은도서관(안양) · 푸른어린이 작은도서관(성남) · 함께하는마을 작은도서관 · 해님달님 작은도서관 · 꾸러기 어린이도서관 · 스무숲 도서관 · 철암 도서관 · 뒤뚜르 어린이도서관 · 앞짱 도서관 · 책문화공간 봄 · 물빛공원 작은도서관 · 푸른길 작은도서관 · 책돌이 도서관 ·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 민평 주민도서관 · 꿈꾸는마을도서관 도토리 · 반아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디 ·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 웅달샘 작은도서관 · 반디 작은도서관 · 해봄 도서관 · 한들마을도서관 ·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 주엽작은도서관 행복책마을 ·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 마루 도서관 · 비전온가족 도서관 · 작은나무 도서관 · 책으로만드는 숲 작은도서관 · 하늘벗 작은도서관 · 반딧불 작은도서관 · 예다움 작은도서관 · 정방산마을 작은도서관 ·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 햇빛21 작은도서관 · 청소년책문화공간 갈갈갈 ·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 푸른 작은도서관 · 푸른2차 작은도서관 · 푸른숲 작은도서관 · 꿈자람 작은도서관 · 여우네 도서관 · 전주 책마루 도서관 · 남원 새싹 도서관 · 목포 하늘을나는 도서관 · 순천기적의도서관 · 삼성동 어린이도서관 · 햇살마루 작은도서관 · 인문학공간 소피움 · 동양아파트 작은도서관 · 책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 · 생글 작은도서관 ·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 배고픈사자 작은도서관 · 청소년도서관 작공 · 날마다자라는나무 ·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꿈틀 · 지혜의숲 작은도서관 ·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 꿈을 이루는 작은도서관 · 성메 작은도서관 · 성산클마루 작은도서관 · 아롬드리 작은도서관 · 초록나라 도서관 · 자유 청소년도서관 · 북휴리가족 인문학도서관 · 춤추는달팽이 도서관 · 노동자의작은도서관 사람 · 골목 도서관 · 늘푸른 어린이도서관 · 와글와글 작은도서관 · 공세알 도서관 · 푸른마을 함박도서관 · 풀뿌리미디어 도서관 ·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 쟁쟁이 어린이도서관 ·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 길벗 어린이도서관 ·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 노을 작은도서관 · 푸른 도서관 · 이시랑나눔 작은도서관 · 한아름 작은도서관 · 꿈이자라는 땅 작은도서관 · 금호 작은도서관 · 꿈마니 작은도서관 · 누리미 좋은물결 작은도서관 · 다루리 작은도서관 · 북적북적 작은도서관 · 송파파크데일1단지 작은도서관 · 예인 작은도서관 · 은송애서가 작은도서관 · 참빛영어 작은도서관 · 올리브트리영어 작은도서관 · 범지기마을 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 나무그늘 작은도서관 · 더불어숲 작은도서관 (울산)

주관 _ **1세대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2018 작은도서관 세월호 특별기획

기억



- 2018년 4월 9일 ~ 30일
-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 100여 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함께하기 위한 활동을 벌입니다

2. #작은도서관 무슨 책 읽어? - 총 400여권

번호	월	추천도서관	서명	저자/출판사
1	6월	서천여우네도서관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나혜석/지만지고전출
2	6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똑똑함의 숭배	크리스토퍼 페이즈/갈라파고스
3	6월	서천여우네도서관	이상한 정상 가족	김희경/동아시아
4	6월	아이숲어린이도서관	츠바키 문구점	오가와 이토/예담
5	6월	아이숲어린이도서관	랩 걸	호프 자런/알마
6	6월	아이숲어린이도서관	모래요정과 다섯 아이들	에디스 네스빗/비룡소
7	6월	아이숲어린이도서관	섬에 있는 서점	개브리엘 제빈/루
8	6월	아이숲어린이도서관	엄마는 페미니스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예/민음사
9	6월	아이숲어린이도서관	보이지 않는 바비	앤드류 클레먼츠/느림보
10	6월	송파구사립 작은도서관연합회	소년이 온다	한강/창비
11	6월	배고픈사자 작은도서관	다윈영의 악의 기원	박지리/사계절
12	6월	느티나무도서관	세계 여성 시인선:슬픔에게 언어를 주자	김일엽 외/아티초크
13	6월	흥부네그림책 작은도서관	연남천 풀다발	전소영/달그림
14	6월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쇼코의 미소	최은영/문학동네
15	6월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쇼코의 미소	최은영/문학동네
16	6월	꿈을이루는 작은도서관	홀딩, 턴	서유미/위즈덤하우스
17	6월	성산글마루 작은도서관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홍사훈/루비박스
18	6월	서천여우네도서관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류승연/푸른숲
19	6월	함박도서관	아날로그 사이언스-그냥 시작하는 과학	윤진 글, 이솔 그림/해나무
20	6월	책돌이도서관	만든 눈물 참은 눈물	이승우 글, 서재민 그림/마음산책
21	6월	뒤뚜르도서관	태어난 아이	사노 요코/거북이박스
22	6월	담작은도서관	해방자들	김남중/창비
23	6월	철암도서관	그림형제의 길	손관승/바다출판사
24	6월	스무숲도서관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곰돌이 푸 원작/RHK
25	6월	꾸러기어린이도서관	(침대를 위한 교과서 밖의 성 이야기)돌직구 성교육	제인 폰다/예문아카이브
26	6월	앞짱작은도서관	먼 북소리	무라카미 하루키/문학사상사
27	6월	구름다리작은도서관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동아시아
28	6월	꿈을이루는 작은도서관	조선도 몰랐던 조선	신봉승/청아출판사
29	6월	콩세알작은도서관	평화통일, 알고 싶은 진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천평화복지연대

30	6월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	죽음에 관하여	시니/영컴
31	6월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현남오빠에게	조남주 외/다산책방
32	6월	짱뚱이작은도서관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번 다시 하지 않을 일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바다출판사
33	6월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x민주주의	정희진 외/교유서가
34	6월	골목도서관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이민경/봄알람
35	6월	꿈나무도서관	크로아티아	정숙영/길벗
36	6월	전주책마루 어린이도서관	한글을 알면 영어가 산다	김옥수/비꽃
37	6월	사무국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류근/해냄
38	6월	사무국	나를 보내지 마	가즈오 이시구로/민음사
39	6월	사무국	보쿠라노 하타-우리들의 깃발	박시석/품
40	6월	제천 한울타리도서관	여탕보고서	마일로/예담
41	6월	광주	쓰기의 말들	은유/유유
42	6월	서천여우네도서관	경애의 마음	김금희/창비
43	6월	서천여우네도서관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마쓰이에 마사시/비채
44	6월	광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장경각
45	7월	사무국	잘츠부르크	박종호/풍월당
46	7월	꾸러기어린이도서관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생각의 힘
47	7월	꿈나무도서관	인생	위화/푸른숲
48	7월	꿈을이루는 작은도서관	네팔은 여전히 아름답다	서윤미/스토리닷
49	7월	꿈을이루는 작은도서관	나의 아름다운 정원	심윤경/한겨레출판
50	7월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정모/바들비
51	7월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경애의 마음	김금희/창비
52	7월	뒤뚜르도서관	아Q정전	박운석/다락원
53	7월	반디작은도서관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인휘/삶창
54	7월	배고픈사자 작은도서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색스 글/이정호 그림/알마
55	7월	복사골작은도서관	세상의 나무들	정현종/문학과지성사
56	7월	복사골작은도서관	그림자에 불타다	정현종/문학과지성사
57	7월	북채리도서관	생각하는 여자는 위험하다	슈테판 볼만/이봄
58	7월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어크로스
59	7월	성메작은도서관	당신의 신	김숨/문학동네
60	7월	성산글마루 작은도서관	제시 이야기	박건웅/우리나비
61	7월	송파구사립 작은도서관연합회	생각하는 인문학	이지성 글/차이
62	7월	괴산숲속작은책방	홀라홀라 추추추	카슨 엘리스/웅진주니어
63	7월	괴산숲속작은책방	아름다운 실수	코리나 루이켄/나는별
64	7월	괴산숲속작은책방	도서관에 사는 마법의 유니콘	마이클 모퍼고 글, 개리 블라이드 그림, 대교북스주니어

65	7월	괴산숲속작은책방	참! 잘했어요	이경국/고래벧속
66	7월	신나는여성주의 도서관 랄라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강상중/사계절
67	7월	아름드리작은도서관	하루의 취향	김민철/북라이프
68	7월	예다움작은도서관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	메리 앤 새퍼, 애니 배로스 글/이덴슬리벨
69	7월	용강동작은도서관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이기호/문학동네
70	7월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	조지프 캠벨/아니마
71	7월	골목도서관	두 여자 이야기-대구의 밤, 서울의 밤	송아람/이숲
72	7월	길벗도서관	미스 함무라비1, 2	문유석/문학동네
73	7월	노동자의도서관 사람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문학동네
74	7월	와글와글작은도서관	경애의 마음	김금희/창비
75	7월	와글와글작은도서관	문맹	아고타 크리스토프/한겨레출판
76	7월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김양지영, 김홍미리/한권의책
77	7월	콩세알작은도서관	모두 갇힌	김중미/창비
78	7월	풀뿌리미디어도서관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	유범상/㈜학교도서관저 널
79	7월	푸른마을 합박도서관	Hunger (헝거)	룩산 게이/사이행성
80	7월	자람도서관	사서빠뜨	즈느비에브 빠뜨/재미마주
81	7월	괴산숲속작은책방	분홍몬스터	올가 데 디오스/노란상상
82	7월	괴산숲속작은책방	집으로 가는 길	미야코시 아키코/비룡소
83	7월	지혜의숲작은도서관	지금은 없는 이야기	최규석/사계절
84	7월	짱뚱이작은도서관	하이타니 겐지로의 생각들	하이타니 겐지로/양철북
85	7월	책돌이도서관	세이 강에서 보낸 여름	필리파 피어스 글, 에드워드 아디존 그림/햇살과나무꾼
86	7월	책돌이도서관	플립	웬들린 밴 드라닌 /f(에프)
87	7월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역사의 역사	유시민/돌베개
88	7월	철암도서관	10대처럼 들어라	박하재홍/솔로비
89	7월	초록나라작은도서관	오즈의 마법사	라이언 프랭크 바움/시공주니어
90	7월	춤추는달팽이작은도 서관	그녀 이름은	조남주/다산책방
91	7월	콩세알작은도서관	축의 시대	카렌 암스트롱/교양인
92	7월	콩세알작은도서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강병균/살림
93	7월	함께크는 우리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동아시아
94	7월	해오름작은도서관	언젠가 새춥던 봄날	박선미/상추쌈

95	7월	호수공원작은도서관	베를린 일기	최민석/민음사
96	7월	담작은도서관	문맹	아고타 크리스토프/한겨레출판
97	7월	한울타리작은도서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실무	강민선/임시제본소
98	7월	구름다리작은도서관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민음사
99	7월	광주남구청도서관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달
100	7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너에게 행복을 선물할게	김선현/RHK
101	7월	순천기적의도서관	알사탕	백희나/책읽는곰
102	7월	순천기적의도서관	하루 10분 독서의 힘	임원화/미다스북스
103	7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나락 한알 속의 우주	장일순/녹색평론사
104	7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내가 아주 작았을 때	김용택/예담
105	7월	순천기적의도서관	숨바꼭질	김정선/사계절
106	8월	콩세알작은도서관	보쿠라노 하타1,2	박기석/품
107	8월	노동자의도서관 사람	플	김금숙 /보리
108	8월	짱뚱이작은도서관	하루의 취향	김민철/북라이프
109	8월	와글와글작은도서관	경애의 마음	김금희/창비
110	8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정수임/서유재
111	8월	서천여우네도서관	책벌레의 여행법	김영관/휴머니스트
112	8월	서천여우네도서관	소년이 온다	한강/창비
113	8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녹색여름	
114	8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모모네 자수일기	몬덴 에미코/단추
115	8월	서천여우네도서관	역사의 역사	유시민/돌베개
116	8월	한울타리작은도서관	사노요코 판타스틱 이야기	사노 요코/마음산책
117	8월	내보물1호도서관	이상한 정상 가족	김희경/동아시아
118	8월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	스노우맨	요 네스뵈/비채
119	8월	용강동작은도서관	네 가족을 믿지 말라	리저 러츠/김영사
120	8월	구름다리작은도서관	그림책이면 충분하다	김영미/양철북
121	8월	책문화공간 봄	철학자와 하녀	고병권/메디치미디어
122	8월	책문화공간 봄	달-낭만의 달 광기의 달	에드거 윌리엄스/반니
123	8월	책문화공간 봄	어른을 위한 그림책테라피	김소영/피그말리온
124	8월	책돌이도서관	우리 교실 책읽기의 시작 온작품읽기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이오덕김수업연구소/휴먼에듀
125	8월	책돌이도서관	이야기 넘치는 교실 온작품읽기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도서출판 북멘토
126	8월	자유청소년도서관	연암 박지원 말꽃모음	박지원/단비
127	8월	비전온가족도서관	어쨌든 미술은 재밌다	박혜성/글담출판
128	8월	책놀이터도서관	변두리	유은실/문학동네
129	8월	고양 햇빛21도서관	어시스의 마법사	어슐러 k. 르 권/황금가지
130	8월	고양 예다움도서관	거북이는 언제나 거기에 있어	존 그린/북폴리오
131	8월	사무국	언어의 온도	이기주/말글터
132	8월	그나라어린이도서관	파도야 놀자	이수지/비룡소

133	8월	반야월 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안녕	안녕달/창비
134	8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쓰카와 소스케/arte
135	8월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콤플렉스는 나의 힘	정승아/좋은책만들기
136	8월	용강동작은도서관	지리의 힘	팀 마살/사이
137	8월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정확한 사랑의 실험	신형철/마음산책
138	8월	느티나무도서관	광장/구운모	최인훈/문학과지성사
139	8월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무경계	켄 월버/정신세계사
140	8월	송파구사립 작은도서관연합회	노년에 대하여	월 듀런트/민음사
141	8월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인간 실격	이토 준지/미우
142	8월	생글작은도서관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정유정, 지승호/은행나무
143	8월	생글작은도서관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X민주주의	정희진 외/교유서가
144	8월	꿈틀작은도서관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김영사
145	8월	책읽는엄마 책읽은아이	One(Paperback)	Sarah Crossan/Bloomsbury Childrens Books
146	8월	곰세마리어린이도서관	딸에 대하여	김혜진/민음사
147	8월	하늘비전작은도서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한빛비즈
148	8월	흥부네그림책 작은도서관	아흔일곱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옥남/양철북
149	8월	성산글마루 작은도서관	우리 그림책 작가를 만나다	정병규/보리
150	8월	옹기종기작은도서관	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스/창비
151	8월	꿈나무도서관	허삼관 매혈기	위화/푸른숲
152	8월	철암도서관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난다
153	8월	뒤뚜르도서관	영원히 널 사랑해	미야니시 다쓰야/달리
154	8월	뒤뚜르도서관	영원히 함께해요	미야니시 다쓰야/달리
155	8월	뒤뚜르도서관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미야니시 다쓰야/달리
156	8월	뒤뚜르도서관	넌 정말 멋져	미야니시 다쓰야/달리
157	8월	앞짱작은도서관	철학자와 늑대	마크 롤랜즈/추수밭
158	8월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	문맹	아고타 크리스토프/한겨레출판
159	8월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김영사
160	8월	플뿌리미디어도서관	문맹	아고타 크리스토프/한겨레출판
161	8월	공세알작은도서관	피로사회	한병철/문학과 지성사

162	9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내게 무해한 사람	최은영/문학동네
163	9월	흥부네그림책 작은도서관	잘 그리지도 못하면서	김중석/웃는돌고래
164	9월	하늘비전작은도서관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고미숙/프런티어
165	9월	꿈틀어린이도서관	4차 산업혁명의 충격	클라우드 슈밥/흐름출판
166	9월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카를 융, 기억 꿈 사상	칼 구스타프 융/김영사
167	9월	용강동작은도서관	경애의 마음	김금희/창비
168	9월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야누슈 코르차/내일을여는책
169	9월	앞짱작은도서관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문학동네
170	9월	꾸러기어린이도서관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	후지나미 다쿠미/황소자리
171	9월	꾸러기어린이도서관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	이민경/봄알람
172	9월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책은 도끼다	박웅현/북하우스
173	9월	곰세마리 어린이도서관	리스본행 야간열차	페터 비에리/들녘
174	9월	생글작은도서관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	파커 J. 파머/글항아리
175	9월	해오름작은도서관	섬에 있는 서점	개 브리얼 제빈/루페
176	9월	송파구사립 작은도서관연합회	첫 번째 질문	오사다 히로시/천개의바람
177	9월	신나는여성주의도서 관 할라	세 여자 1	조선희/한겨레출판
178	9월	풀뿌리미디어도서관	어느 독일인의 삶	브룬힐데 폼젤/열린책들
179	9월	곰목도서관	평화통일, 알고 싶은 진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천평화복지연대
180	9월	꿈나무도서관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은유/서해문집
181	9월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열두 발자국	정재승/어크로스
182	9월	노동자의도서관 사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흔
183	9월	청개구리작은도서관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창비
184	9월	춤추는달팽이작은도 서관	그녀 이름은	조남주/다산책방
185	9월	남원새싹작은도서관	거룩한 똥	진 록스던/목수책방
186	9월	전주책마루 어린이도서관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	유범상/㈜학교도서관저 널
187	9월	전주책마루 어린이도서관	세 여자 1	조선희/한겨레출판
188	9월	전주책마루 어린이도서관	꿀벌과 시작한 열일곱	모리야마 아미/상추쌈
189	9월	뒤뚜르도서관	달라이라마, 마음이 뇌에게 묻다	샤론 베글리/북섬
190	9월	서천여우네도서관	문화적 맑스주의와 제임슨	프레드릭 제임슨/창비
191	9월	서천여우네도서관	세계를 만드는 방법	손아람/우리학교
192	9월	서천여우네도서관	코스모스	칼 세이건/사이언스북스

193	9월	콩세알작은도서관	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한길사
194	9월	서천여우네도서관	열두 발자국	정재승/어크로스
195	9월	세종푸른작은도서관	세계 역사를 바꾼 도둑들	정헌경/다림
196	9월	콩세알작은도서관	어머니의 나라	추 와이홍/흐름출판
197	9월	예다움도서관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문학동네
198	9월	반디작은도서관	활에 기대다	정우영/반걸음
199	9월	고양 햇빛21도서관	포르투갈의 높은 산	얀 마텔/작가정신
200	9월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민음사
201	9월	청소년문화공간 갈갈갈	이렇게 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나이즈미 렌/애플북스
202	9월	짱뚱이작은도서관	수전 손택의 말	수전 손택, 조너선 콧/마음산책
203	9월	아이숲어린이도서관	바깥은 여름	김애란/문학동네
204	9월	구름다리작은도서관	타샤의 정원	타샤 튜더, 토바 마틴/월북
205	9월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	칼의 노래	김훈/문학동네
206	9월	책돌이도서관	엄마 반성문	이유남/덴스토리
207	9월	책돌이도서관	폴디와 폴리:할머니의 생신잔치	크리스티안 예레미스, 파비안 예레미스/미운오리새끼
208	9월	책돌이도서관	이상한 손님	백희나/책읽는곰
209	9월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진형민/창비
210	9월	마하어린이도서관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김해원/사계절
211	9월	불암동작은도서관	금기, 무슬림 여성을 엿보다	엄익란/한울
212	9월	불암동작은도서관	세 종교 이야기	홍익희/행성비
213	9월	양정작은도서관	편 흥:가족 희비극	앨리슨 백델/움직씨
214	9월	달팽이어린이도서관	동화 넘어 인문학	조정현/을유문화사
215	9월	울산북구작은도서관	인권, 교문을 넘다	공현 외/한겨레에듀
216	9월	사람도서관	이게 정말 천국일까?	요시타케 신스케/주니어김영사
217	9월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서재를 떠나보내며	아레르토 망겔/더난출판사
218	9월	순천기적의도서관	안녕	안녕달/창비
219	9월	순천기적의도서관	아슬아슬 여치가 걸어갑니다	이민희/상수리
220	9월	순천기적의도서관	그때, 우리 할머니	정숙진, 윤여준/북노마드
221	9월	순천기적의도서관	지치지 않는 힘	이민규/글리는책
222	9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못다 핀 꽃	이경신/휴머니스트
223	9월	제천 한울타리도서관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시미즈 다이키/큰나무
224	9월	제천 한울타리도서관	모모요는 아직 아흔 살	무레 요코/이봄
225	9월	제천 한울타리도서관	쇼코의 미소	최은영/문학동네
226	9월	제천 한울타리도서관	보태니컬 셰익스피어	게릿 켈리/지금이책
227	9월	팔판작은도서관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조화로운삶
228	9월	팔판작은도서관	미라클모닝	할 엘로드/한빛비즈

229	9월	팔판작은도서관	리진	신경숙/문학동네
230	9월	꿈꾸는마을도서관 도토리	사람은 왜 서로 도울까	정지우/낮은산
231	9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호모데우스-미래의 역사	유발 하라리/김영사
232	9월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빨간 자전거	주드 이사벨라/머스트비
233	9월	책마실작은도서관	시스터즈	마르타 브린/한겨레출판
234	9월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조현/휴
235	9월	비전작은도서관	100세 살아가는 힘	시바타 도요/지식여행
236	10월	뒤뜨르도서관	야쿠바와 사자	티에리 드되/길벗어린이
237	10월	앞짱작은도서관	처음처럼	신영복/돌베개
238	10월	스무숲도서관	데미안	헤르만 헤세/민음사
239	10월	철암도서관	문맹	아고타 크리스토프/한겨레출판
240	10월	한울타리작은도서관	파우스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문학동네
241	10월	꾸러기어린이도서관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몰라	장상미/슬로비
242	10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	사라 룬드베리/산하
243	10월	순천기적의도서관	해리	공지영/해냄
244	10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맨 얼굴의 사랑	정아은/민음사
245	10월	순천기적의도서관	중국 인도-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아시아의 두 거인	크리스 오그덴/시그마북스
246	10월	순천기적의도서관	열두 발자국	정재승/어크로스
247	10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백영옥/아르테
248	10월	새싹작은도서관	기다리는 행복	이해인/샘터사
249	10월	삼성어린이도서관	의식의 강	올리버 섹스/알마
250	10월	반디작은도서관	엄마는 페미니스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민음사
251	10월	반디작은도서관	체공녀 강주롱	박서련/한겨레출판
252	10월	반디작은도서관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조현/휴
253	10월	고양 햇빛21도서관	월플라워	스티븐 크보스키/뚝을새김
254	10월	호수공원작은도서관	인어 소녀	도나 조 나폴리/보물창고
255	10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을유문화사
256	10월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달빛 산책	레이첼 콜/다산기획
257	10월	함박도서관	페터 비에리의 교양 수업	페터 비에리/은행나무
258	10월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소나무
259	10월	풀뿌리미디어도서관	폭포의 여왕	크리스 반 알스버그/사계절
260	10월	콩세알작은도서관	너는 착한 아이야	나카와키 하쓰에/작은씨앗
261	10월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이토록 고고한 연예	김탁환/북스피어
262	10월	짱뚱이작은도서관	천개의 공감	김형경/사람풍경
263	10월	콩세알작은도서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박세길/돌베개

264	10월	신나는여성주의 도서관 랄라	내 말은 넌 그냥 여자야	앨릭스 지노/시드북㈜
265	10월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교양인
266	10월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슬픔을 맛본 사람만이 자두 맛을 안다	장석주/여문책
267	10월	꿈나무도서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문학동네
268	10월	골목도서관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김양지영, 김홍미리/한권의책
269	10월	배고픈사자 작은도서관	어린이책 읽는 법	김소영/유유
270	10월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어린이책 읽는 법	김소영/유유
271	10월	옹기종기작은도서관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2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민음사
272	10월	생글작은도서관	걸기의 인문학	리베카 솔닛/반비
273	10월	용강동작은도서관	아주 오래된 질문들	한국철학사상연구회/동 녘
274	10월	흥부네그림책 작은도서관	운동주 평전	송우혜/서정시학
275	10월	성메작은도서관	밤의 마지막 날들	그레이엄 무어/교보문고
276	10월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전복과 반전의 순간	강헌/돌베개
277	10월	꿈을이루는 작은도서관	피프티 피플	정세랑/창비
278	10월	해오름작은도서관	내게 무해한 사람	최은영/문학동네
279	10월	꿈터작은도서관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창비
280	10월	성산글마루 작은도서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줄리언 반스/다산책방
281	10월	꿈틀작은도서관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열린책들
282	10월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형철/한겨레출판
283	10월	송파구사립 작은도서관연합회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창비
284	10월	달팽이어린이도서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리베카 솔닛/창비
285	10월	팔판작은도서관	책의 소리를 들어라	다카세 쓰요시/책의학교
286	10월	팔판작은도서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무옌 거/샘앤파커스
287	10월	불암동작은도서관	함께 크는 삶의 시작, 공동육아	이부미 외/또하나의문화
288	10월	마하어린이도서관	나무 철학	강판권/글항아리
289	10월	마하어린이도서관	강신주의 감정수업	강신주/민음사
290	10월	마하어린이도서관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	오자와 아키미/북뱅크
291	10월	마하어린이도서관	열두 발자국	정재승/어크로스
292	10월	마하어린이도서관	나는 런던에서 사람 책을 읽는다	김수정/달
293	10월	책마루어린이 작은도서관	두개의 별두개의 지도	고미숙/북드라마

294	10월	책마루어린이 작은도서관	담론	신영복/돌베개
295	10월	책마루어린이 작은도서관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	맥 바넷 글, 존 클라센 그림/길벗어린이
296	10월	해봄도서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학교혁명	켄 로빈슨, 루 애로니카/21세기북스
297	10월	양정작은도서관	책의 소리를 들어라	다카세 쓰요시/책의학교
298	10월	책마실작은도서관	며느리 사표	영주/사이행성
299	10월	반야월 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에밀 졸라/시공사
300	11월	내보물1호도서관	학교 내부자들	반순걸/에듀니티
301	11월	내보물1호도서관	세여자 1,2	조선희/한겨레출판
302	11월	스무숲도서관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주현성/더좋은책
303	11월	뒤뚜르도서관	윌리엄 모리스 평전	박홍규/개마고원
304	11월	앞짱작은도서관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중앙boo ks
305	11월	철암도서관	데미안	헤르만 헤세/민음사
306	11월	한울타리작은도서관	밥보다 일기	서민/책밥상
307	11월	한울타리작은도서관	책으로 가는 문	미야자키 하야오/현암사
308	11월	한울타리작은도서관	풀잎은 노래한다	도리스 레싱/민음사
309	11월	책돌이도서관	우리 집 생쥐네 집	존 버닝햄/웅진주니어
310	11월	책돌이도서관	쉬잇! 다 생각이 있다고	크리스 호튼/비룡소
311	11월	콩세알작은도서관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김양지영, 김홍미리/한권의책
312	11월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세여자 1,2	조선희/한겨레출판
313	11월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유럽은 왜 빵빵할까?	조지욱 글 김혜령 그림/나무를심는사람들
314	11월	구름다리작은도서관	커다란 구름이	이해진/반달
315	11월	아이숲작은도서관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민음사
316	11월	아이숲작은도서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창비
317	11월	책마실작은도서관	그림책으로 행복해지기	고대영/길벗어린이
318	11월	그나라어린이도서관	사랑하니까 사람	오치아이 게이코 글, 와타나베 겐이치 그림/너머학교
319	11월	해봄도서관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비전을 찾아서	고미숙/북드라마
320	11월	꿈꾸는마을도서관 도토리	열두 발자국	정재승/어크로스
321	11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파묻힌 거인	가즈오 이시구로/시공사
322	11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현대문학
323	11월	순천기적의도서관	카시탄카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살림어린이

324	11월	불암동작은도서관	스틱	칩 히스, 대 히스/엘도라도
325	11월	달팽이어린이도서관	흐르는 편지	김숨/현대문학
326	11월	울산북구작은도서관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	이미경/남해의봄날
327	11월	마하어린이도서관	안녕	안녕달/창비
328	11월		그럴 때 있으시죠?	김제동/나무의마음
329	11월	마하어린이도서관	마녀의 슈크림	오카다 준/국민서관
330	11월	성메작은도서관	컴 클로저	일자 샌드/인플루엔셜(주)
331	11월	해오름작은도서관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김영사
332	11월	꿈을이루는 작은도서관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열린책들
333	11월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마리아 미즈/갈무리
334	11월	웅기중기작은도서관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3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민음사
335	11월	함께크는우리	아내 가뭄	애너벨 크랩/동양북스
336	11월	성산글마루작은도서 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출리언 반스/다산책방
337	11월	삼성어린이도서관	세 갈래 길	래티샤 콜롱바니/밝은세상
338	11월	책마루어린이작은도 서관	산책을 듣는 시간	정은/사계절
339	11월	여우네도서관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상)-비밀노트	아고타 크리스토프/까치
340	11월	여우네도서관	나를 운디드나에 물어주오	디 브라운/프레스하우스
341	11월	함박도서관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	오구니 시로/웅진지식하우스
342	11월	춤추는달팽이작은도 서관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MAN에 관하여	박지리/사계절
343	11월	짱뚱이작은도서관	노박씨 이야기	슈테판 슬루페츠키/문학동네
344	11월	꿈나무도서관	섬에 있는 서점	개브리엘 제빈/루페
345	11월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당신이 옳다	정혜신/해냄
346	11월	골목도서관	세 여자 1	조선희/한겨레출판
347	11월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제임스 홀리스/더퀘스트
348	11월	순천기적의도서관	관계를 읽는 시간	문요한/더퀘스트
349	12월	스무숲도서관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곰돌이 푸 원작/RHK
350	12월	한울타리작은도서관	나는 런던의 수학선생님	김은영/브레인스토어
351	12월	한울타리작은도서관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소담출판사
352	12월	한울타리작은도서관	제0호	옴베르토 에코/열린책들

353	12월	순천기적의도서관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동아시아
354	12월	한울타리작은도서관	살아야겠다	김탁환/복스피어
355	12월	순천기적의도서관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엄기호/나무연필
356	12월	순천기적의도서관	열 두 발자국	정재승/어크로스
357	12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떨림과 울림	김상욱/동아시아
358	12월	순천기적의도서관	세상에 돌도 없는 반짝이 신발	제인 고드윈 글/안나 워커 그림/모래알
359	12월	순천기적의도서관	떨어질 수 없어	마르 파봉 글/마리아 지롱 그림/이마주
360	12월	담작은도서관	라이프 트렌드 2019: 젠더 뉴트럴	김용섭/부키
361	12월	다운작은도서관	첫째 아이 마음 아프지 않게, 둘째 아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이보현/교보문고
362	12월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고미숙/프런티어
363	12월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꿈 상징 사전	에릭에크로이드/한국심리치료연구소
364	12월	성매작은도서관(마포)	비탄의 문	미야베 미유키/문학동네
365	12월	배고픈사자작은도서관	합체	박지리/사계절
366	12월	꿈틀작은도서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형철/한겨레출판
367	12월	웅기중기작은도서관	그림으로 글쓰기	유리 술레비츠/다산기획
368	12월	흥부네그림책작은도서관	역사의 역사	유시민/돌베개
369	12월	용강동작은도서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색스 글/이정호 그림/알마
370	12월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살아야겠다	김탁환/복스피어
371	12월	해오름작은도서관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이상희 외/이봄
372	12월	생글작은도서관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강준만/인물과사상사
373	12월	생글작은도서관	숨은 노동찾기	송기역 기획/오월의봄
374	12월	초록나라작은도서관	선택	스펜서 존슨/청림출판
375	12월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섬에 있는 서점	개브리엘 제빈/루페
376	12월	남원새싹작은도서관	유관순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리운동사연구소
377	12월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산책을 듣는 시간	정은/사계절
378	12월	서천여우네도서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데이비드 발다치/북로드
379	12월	서천여우네도서관	이해 없이 당분간	김금희/걷는사람
380	12월	서천여우네도서관	말의 품격	이기주/황소북스
381	12월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시작 다음	안느-마르고 램스타인, 마티아스 아르귀/한솔수북

382	12월	책마실작은도서관	헝거-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룩산 게이/사이행성
383	12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웅진닷컴
384	12월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반쪽이	이미애 글/이억배 그림/보림
385	12월	양정작은도서관	다라야의 지하 비밀도서관	델핀 미누이/더숲
386	12월	양정작은도서관	백래시	수전 팔루디/ arte(아르테)
387	12월	팔판작은도서관	다산의 마지막 공부	조윤제/창림출판
388	12월	울산북구작은도서관 협의회	어쩐지 두근거려요	솔트/상상출판
389	12월	불암동작은도서관	한 평 공간에 만드는 나만의 실내 정원	오하나/넥서스북스
390	12월	불암동작은도서관	생명의 정원	메리 레이놀즈 글/ 루스 에반스 그림/목수책방
391	12월	마하어린이도서관	복수의 여신	송미경 동화집/장경인 그림/창비
392	12월	마하어린이도서관	우도의 꼬마 해녀	최은순 글/양상용 그림/크레용하우스
393	12월	자람도서관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윤여림 글/김유대 그림/천개의바람
394	12월	자람도서관	콩가면 선생님이 또 웃었다?	윤여림 글/김유대 그림/천개의바람
395	12월	꿈나무도서관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5	양정무/사회평론
396	12월	진주 달팽이어린이도서관	같이의 가치	황금명륜/렛츠북
397	12월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우리 몸이 세계라면	김승섭/동아시아
398	12월	인천작은도서관협의 회	즐거움의 발견 플레이	스튜어트 브라운, 크리스토퍼 본/흐름출판
399	12월	인천작은도서관협의 회	당신이 남긴 증오	엔지 토머스/걷는나무
400	12월	인천작은도서관협의 회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열린책들

XI. 2018 일정 보고

일	내용
1월	5(금) 총회 준비위원회의 15(월) 모아스토리 대표 방문 19(금) 삼척 그림책 축제 심포지엄 20(토) 삼척 그림책 축제 23(화) '작은도서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하여' 13차 포럼 진행(서울) 25(목) 2018년 정기총회 30(화) '작은도서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하여' 14차 포럼 진행(전주)
2월	2(금) 집행위원회의 5(월)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충청권 워크숍(청주) 6(화)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수도권 워크숍(서울) 7(수)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워크숍(부산) 8(월)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호남권 워크숍(전주) 9(금) 집행위원회의 13(월) 광주지부회의 14(수) 홈페이지 관련 회의 16(금) 마포 사랑방 인문학 간담회 20(화)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2018년 정기총회 참석 22(목) 대구지부회의 23(금) 집행위원회의 23(금) ~ 24(토) 호남지부회의 26(월) 운영위 28(수) 충청지부회의,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정책간담회 29(목) 신입도서관 상반기 교육
3월	6(화) ~9(금) 서초구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교육 진행 12(월) 한림출판사 독자감동팀 회동 15(목) ~4/12(목) 여수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진행 16(금)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회의' 20(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기술평가' 21(수) 경기도작은도서관연합회 2018년 정기총회 사무국장 참석 26(월) 2018년 1차 운영위 27(화) 신입도서관 교육자료 준비 28(수)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가입공문 발송 29(목) 신입도서관 상반기 교육, 연회비 공문 30(금) 홈텍스 공시법인 업무, 집행회의
4월	3(금) 작은도서관 책친구 업무분장 회의(사무국장, 김현실) 6(금) 집행회의 9(월) 정책위원회 회의 10(수) 노원어린이도서관 방문(이사장, 사무국장) 13(금) 임시이사회의 16(월) 서울지부 정책간담회, 책친구사업 지원 마감 17(화)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협의회회의 18(수) 책친구 전문가 심사 20(금) 집행회의, 교육위원회의, 책친구 선정 공고 23(월) '도서관법 개정과 작은도서관' 15차 포럼 진행(서울) 24(화)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수도권 사전 사업설명워크숍 진행(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6(목)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경상권 사전 사업설명워크숍 진행(포항 포은중앙도

	<p>서관) 30(월)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호남권 사전 사업설명워크숍 진행(전북도청 도서관) 4(수) 시흥 작은도서관 교육 -이사장</p>
5월	<p>1(화)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추가 선정 심사 2(수)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추가 선정 공고 3(목)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경상권 사전 사업설명워크숍 진행(포항 포은중앙도서관) 3(토) 집행위원회 회의 8(화) 씨앗기금 협약식 17(목) ~ 27(일) 네덜란드, 벨기에 탐방 - 사무국장 18(금) 인천지부 정책포럼 '인천, 독서생태계를 말하다' 진행 23(수)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공모사업 회의 28(월)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어떻게 해야할까?" 16차 포럼 진행(서울) 30(수)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119긴급지원사업 공고, 센타 회의</p>
6월	<p>1(금) 독일탐방 신청 공지 6월 11일까지 연장 4(월) 2차 운영위 / 성원 부족으로 폐회 8(목) 2018년 협회 회원도서관 워크숍 공지 12(화)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역량강화 워크숍_호남권(책돌이도서관)_광주 21(목)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역량강화 워크숍_수도권(한국여성재단)_서울 26(화)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역량강화 워크숍_경상권(배산작은도서관)_부산 27(수) 내부 포럼 - 아파트도서관 관련 28(목)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역량강화 워크숍_충청권(대전점자도서관)_대전 30(토) #무슨책읽어?</p>
7월	<p>6(금) 성남 책이랑도서관 후원 주점 12(목) 서울지부 권역지기 회의 16(월) ~ 17(화) 2018년 회원 워크숍 "휴" 진행 16(월) 2차운영위 진행 28(토) #무슨책읽어? 31(화) 17차 정책포럼 '지역 도서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진행</p>
8월	<p>4(월) 독일탐방 사전 모임 27(월) #무슨책읽어? 28(화) 임시이사회</p>
9월	<p>1(토) 2018년 대한민국 독서대전_김해 작은도서관 심포지엄 개최 3(월) 2018년 대한민국 독서대전_김해 작은도서관 심포지엄 보고서 제출 5(수) ~ 14(금) 독일도서관 탐방 8(토) 경상지부 회의 참석(사무국장) 17(월) 3차 운영위회의 20(목) 부천 돌안에작은 작은도서관 신규가입 현장실사(사무국장) 21(금) 서울지부 권역지기 회의 24(월) ~ 26(수) 추석 연휴 30(토) #작은도서관무슨책읽어?</p>
10월	<p>5(금) 서울지부 스스로아카데미 1강 - 마포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시작. 12(금) 서울지부 프로그램 사례 발표 및 간담회 15(월) 생활밀착형 SOC 포럼 진행 19(금) 서울지부 스스로아카데미 2강 -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중구) 19(금) 2018 북스타트 국제 심포지엄 22(월) 고양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이제는 함께 읽기다" 24(수)~25(목)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협력" 주제 발표 25(목)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환수팀 회계 감사 26(금) 서울지부 스스로아카데미 3강 -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중구) 27(토) 광주 책돌이도서관 책축제 29(월) 경기도 하남시 사립작은도서관운영자 간담회</p>

	<p>30(화) 총회준비위원회 1차 모임 31(수)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31(수) 인제작은도서관협의회 정책포럼</p>
11월	<p>2(금) 서울지부 스스로아카데미 4강 -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중구) 4(일) 제주 설문대도서관 18주년 책 행사 8(목) 교육위원회의 8(목) 제4회 순천 어린이 문화포럼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9(금) 서울지부 스스로아카데미 5강 곰세마리작은도서관(성북구) 10(토) 서천여우네도서관 10주년 기념 행사 11(일) 전임 상임이사의 날 15(목)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16(금) 내부정책포럼(아파트도서관 관련) 16(금) 서울지부 스스로아카데미 6강 곰세마리작은도서관(성북구) 19(월) 2018 작은도서관책친구 우수사례발표 및 결과보고회 21(수)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23(금) 서울지부 스스로아카데미 7강 흥부네그림책도서관(구로구) 25(일) 서울도서관 시민대토론회 “도서관을 정확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29(목) #작은도서관무슨책읽어? 29(목) 책 생태계 비전 포럼 (제9차) 북 큐레이션의 힘 30(금) 서울지부 스스로아카데미 8강 흥부네그림책도서관(구로구)</p>
12월	<p>3(월) 4차운영위원회 / 제주작은도서관협회 교육 4(화) 스스로아카데미 결과공유회 7(금)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12(수) 3차도서관종합발전계획 공청회 (국립중앙도서관) / 광주작은도서관교육(광주 무등도서관) 14(금) 책친구, 문화가 있는 날 사업 평가회 15(토) 제천기적의도서관 15주년 기념 및 재개관식 18(월) 서울민관협치사업 결과 발표회 / 국제독서컨퍼런스 20(목) 아카이브 회의 27(목) 대구지부 회의 참석 28(금) 기금추진협의회</p>

2018년 사업 감사 보고

2018 사업 감사 보고서

이용준(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사업감사)

2018년에도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는 회원들 모두 열심히 활동하면서 작은도서관 부문에서의 바른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을 제시한 것은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자칫 무분별하게 추진될 수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적 노력을 촉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협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작은도서관 정책과 활동의 방향성과 내용성을 바르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내부 교육 활동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아카데미지원사업'은 그런 점에서 협회의 내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내적 연대와 결속의 중심은 같은 방향성과 수준 높은 활동 역량을 갖추는 실천적 교육 활동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도서관 활동은 빠르게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그 활동의 중요성이 큰 시점입니다. 전체 도서관 활동 안에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활동의 모범을 만들어 가는데 협회 소속 어린이도서관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에 이어 계속 추진된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활동이 2018년에도 의미있는 내용성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역사찾기 시즌 2(아카이빙)는 우리나라 작은도서관과 그 안에서의 협회의 의미와 가능성을 찾는 중요한 작업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사업도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 지원 받은 도서관들 스스로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생각하고 활동성을 재점검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정책포럼과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사업도 작은도서관 정책과 협회 회원 도서관들의 내적 깊이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 마포구청의 '마포사랑방인문학' 등 외부 지원 사업도 설정한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2018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사무국, 그리고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협회 내부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 협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각화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조직으로의 집중성이 거지고, 사업, 특히 외부지원 사업의 경우 그 방향과 내용 또한 협회가 주도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협회는 중앙과 지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가급적 현장 지부 중심으로 재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조직은 지부와 개별 회원들의 연대와 전체적 방향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정신과 의미,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협회가 내적 연대와 역량 강화를 통해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협회 회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1.20

2018년 결산 보고

*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관 제 4장 25조 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결산 보고(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회

일반 회계

수입부					지출부					
비목	항목	누계/결산	연간예산	대비	비목	항목	누계/결산	연간예산	대비	
	전기이월	7,137,645	7,137,645		인건비	급여	21,524,220	36,000,000	60%	
사업수입	가입비	550,000	1,000,000	55%		사회보험부담금	1,603,640	3,400,000	47%	
	도서관회비	31,280,000	29,640,000	106%		퇴직급여	3,252,810	3,600,000	90%	
	이사회비	7,000,000	10,200,000	69%		소 계	26,380,670	43,000,000	61%	
	자료회원회비	1,580,000	2,400,000	66%		운영비	업무추진비	1,085,970	1,000,000	109%
	행사모금액	1,850,000	4,000,000	46%			행사진행비	947,000	500,000	189%
	기타수입	1,284,734	9,000,000	14%			복리후생비	2,224,550	1,400,000	159%
	소 계	43,544,734	56,240,000	77%			회의비	1,979,770	1,500,000	132%
기부금	지정기부금	279,353,800	300,000,000	93%	지급수수료		1,074,744	1,200,000	90%	
	비지정기부금	3,879,273	8,500,000	46%	통신비		0	1,200,000	0%	
	소 계	283,233,073	308,500,000	92%	수도광열비		0	1,200,000	0%	
수입합계	326,777,807	364,740,000	92%	세금과공과	62,500		1,000,000	6%		
합계잔액	333,915,452	371,877,645		수선비	325,000		500,000	65%		
				소모품비	198,900		480,000	41%		
				임차료및관리비	0	2,000,000	0%			
				홍보비	0	2,500,000	0%			
				기타비용	7,760	397,645	2%			
				소 계	7,906,194	14,877,645	53%			
				사업비	회원사업비	3,251,030	10,000,000	33%		
					교육사업비	253,000	1,500,000	17%		
					정책사업비	142,500	2,500,000	6%		
					도서관 지원사업비	279,353,800	300,000,000	93%		
					소 계	283,000,330	314,000,000	90%		
적립통장	연간누계	통장잔액		예비비						
보금자리	10,186	10,029,727		지출합계	317,287,194	371,877,645	90%			
퇴직연금	3,666,740	7,868,910		차기이월	16,628,258	6,667,722				
				합계	333,915,452	371,877,645				

특별 회계

1.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센터 회계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사업1 작은도서관 역사찾기 시즌2	사업비	86,700,000	인건비성경비	1,307,200
			행사비	22,906,800
			기타사업비	225,170
			지출소계	24,439,170
			잔액	62,260,830
사업2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사업비	51,000,000	인건비성경비	3,060,000
			행사비	1,866,140
			기타사업비	695,000
			지출소계	5,621,140
			잔액	45,378,860
사업3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사업비	57,200,000	인건비성경비	4,550,000
			행사비	644,180
			사업지원금	20,000,000
			기타사업비	822,100
			지출소계	26,016,280
			잔액	31,183,720
사업4 간접지원11 9	사업비	170,000,000	인건비성경비	1,400,000
			행사비	1,203,310
			사업지원금	144,230,000
			기타사업비	2,178,000
			지출소계	149,011,310
			잔액	20,988,690
관리운영비	사업비	143,578,298	인건비	34,474,530
			운영비	17,396,990
			지출소계	51,871,520
			잔액	91,706,778
총합계		508,478,298	총지출	256,959,420
			잔액	251,518,878

2. 보조사업 회계

	수입항목	금 액	지출항목	금액
마포 인문학 사랑방	사업비	10,000,000	강사비	7,500,000
	사업 기간 : 2018.04 -11		기획비	1,000,000
			운영비	1,500,000
	소 계	10,000,000	소 계	10,000,000
2018 작은도서관 문화가있는날	사업비	300,000,000	인건비	24,200,000
	사업 기간 : 2018.02 -12		운영비	269,800,000
			여비(출장비)	4,000,000
			업무활동비	2,000,000
	소 계	300,000,000	소 계	300,000,000
2018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비	300,000,000	인건비	27,200,000
	사업 기간 : 2018.04 -11		운영비	269,240,000
			여비(출장비)	3,000,000
			업무활동비	560,000
	소 계	300,000,000	소 계	300,000,000
총합계		610,000,000	총합계	610,000,000

2018년 회계 감사 보고

회계감사보고서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대한 2018년도 회계감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개요

본 감사인은 2019.01.17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2018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결산표 및 이의 근거자료인 협회의 계좌내역, 계정별원장, 기타 증빙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내부 관리 및 통제에 목적을 두는 협회의 임의감사입니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의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조합의 회계자료에 중대한 왜곡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 및 회계 정리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의견표출을 본 감사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 감사보고

(1) 일반적인 기업회계에서는 자산 및 부채목록에 해당되는 재무상태표와 서식과 수입 및 지출이 집계되는 손익계산서등이 최종 재무보고 양식에 해당하는데, 협회의 최종 재무집계 자료는 손익계산서 형식을 띄는 2018년 총결산표이며, 별도의 자산목록에 해당하는 서식은 없습니다. 협회는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자산성격을 갖는 항목들에 대한 별도기재 및 관리 등을 권장합니다.

(2) 일반회계 부분에서 협회에 유입되는 금액은 사업수입 및 기부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수입부분의 회계 정리 내역에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3) 협회는 지출내역을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의 계반 회계 정리내역에 문제사항은 없으며, 2018년도 연간 지출예산 중 일부가 특별회계의 자금으로 집행되어 2018년도 일반회계에 잉여금이 계상됨을 보고 받았습니다.

(4) 계반 항목에 회계상 중대한 위반내역이 없습니다.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1.17

감사 최원민



2019년 사업 계획

*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관 제 4장 25조 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 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회

의결 안 -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2019년 사업계획은 2018년 총회준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장시간 논의한 결과, 사업목표와 방향만 총회에서 승인 받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2019년 첫 번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회 논의 결과

1. 논의의 배경

1) 협회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 2년간 협회의 사업을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한 씨앗기금 사업은 2019년 종료 예정
- 회비수입으로 운영되는 재정구조에서, 규모가 커진 중앙조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움.
- 작은도서관 운동의 2기에 진입하면서 작은도서관운동의 성장이 주춤한 국면이며, 필연적으로 협회 조직도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축소하고 압축적으로 운용할 것이 요구되는 국면.
- 협회 내적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임-->사업의 확장보다 교육과 정책 역량에 집중할 때.
- 지방분권의 시대, 작은도서관 정책도 문체부 보다 지자체별로 수립, 집행되는 상황
- 문체부와와의 파트너십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했지만, 문체부가 협회를 정책적 파트너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

2) 협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① 중앙조직을 최소화하고 지부와 역할을 나누자

- 지금까지도 지부가 중심이 되어 포럼, 정책제안, 스스로 아카데미 등을 조금씩 경험해 왔

다. 일부 지부에서만 잘 진행되어 편차가 있었으나 이 방향으로 점차 가보자. 좀더 지부단위의 요구에 맞고 좀더 쉬운 언어로, 좀더 지역 밀착적인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부별 편차가 있으므로, 취약한 지역을 단계적으로 강화해가자. 처음부터 지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게 아니라, 첫해에는 사무국의 지원을 통해,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 지부 강화란 지원사업 증대나 인적 교류가 아니라, 지부단위 회원도서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교육의 강화, 정책역량의 강화)를 말한다. 지부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사무국의 지원은 실무적 지원이나 인간적 지원이 아닌, 정책적 지원, 활동가 역량강화여야 한다.

- 지부강화의 한 방안으로, 운영 및 협회 활동 경험이 있는 개인 활동가들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도 필요함.

② 협회와 회원의 관계는 정책적 협력을 통한 연대로

- 협회가 회원도서관을 위해 지원 사업을 따오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선 안된다. 회원도서관의 주요 혜택이, 협회에 가입하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협회 상근인력도 지원사업 운용이 중심 업무가 아니라, 본연의 일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활동가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 또한 회원도서관과 협회의 관계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수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상호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③ 협회활동의 중심은 이제 정책 지원과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한 연대이다.

이미, 회원도서관들의 요구는 친목도모나, 사업비 지원이 아닌,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자문, 제안 등으로 향하고 있다. 협회의 방향도 그에 맞추어 보다 지역의 회원도서관들과 정책적 연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2. 사업방향

1) 회원관리사업 : 사무국과 지부에서의 회원 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시

① 사무국 : 협회소식전달, 전체회원관리(개인회원관리, 회원정보관리), 취약지부관리

② 지부 : 신입회원교육, 회원소통, 취약지부공동지원

- 신입회원교육을 사무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지부 강화가 아닌 지부와 사무국이 약화된 상태로 진행된다. 중앙이 인력과 역할이 약화될 상태로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지부가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지부의 정기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 취약지부에 대해서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책사업 : 정책포럼, 2019년 작은도서관 컨퍼런스(센터사업)

3) 교육사업 : 신입회원 교육 매뉴얼 제작 및 교육지원, 2019년 교육영상제작(센터사업)

4) 공모사업 : 인건비 있는 사업을 지원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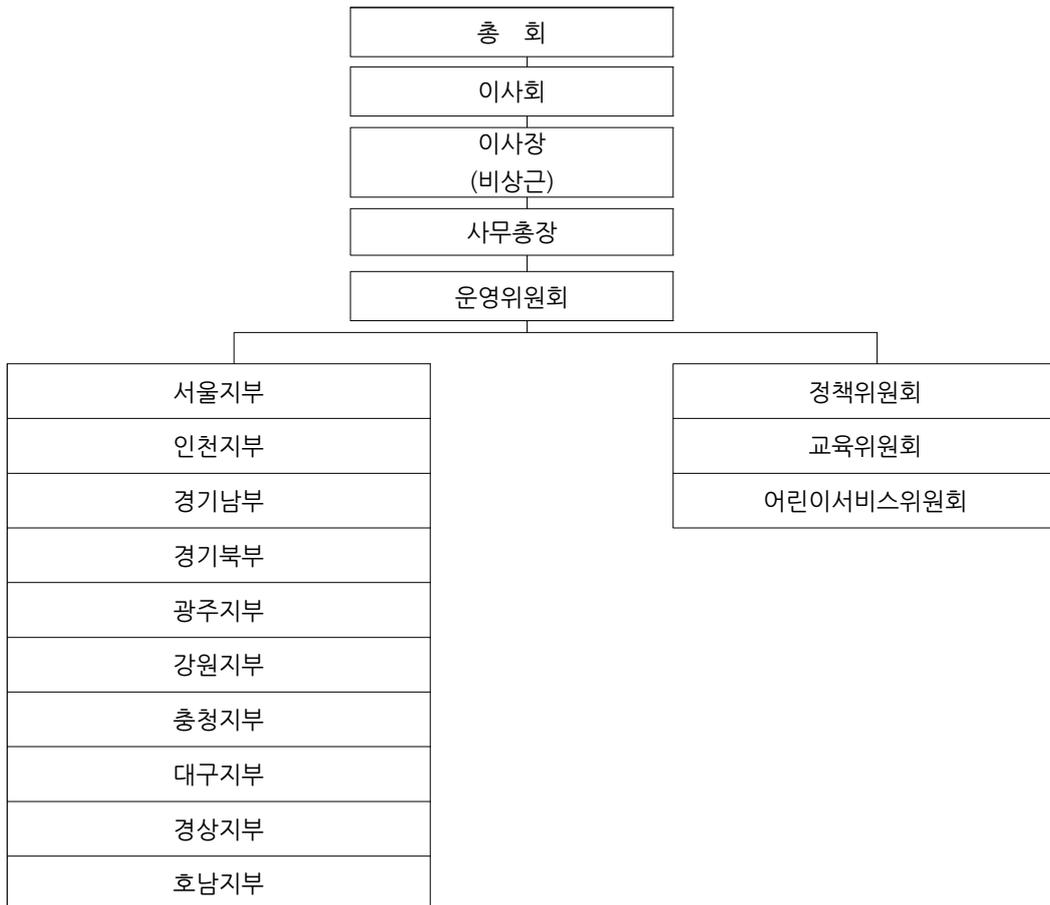
5) 대외사업

- 대외사업은 이사장이 파악하여 사업여부를 결정한다.
- 대외사업진행시 회원들이 모두 공유(홈페이지 등재)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사장이 대외사업이나 외부연대공식행사를 참여할 경우에 이사회나 전체회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3. 조직제안

- 임시 이사회를 통해 현 이사장이 연임하기로 결정하고 이사장의 역할은 상임이사장이 아니라 대외 사업을 위주로 단체를 대표하는 활동을 한다.
- 실질적 운영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임명을 통해 선출하되, 내부 활동가 뿐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게 열어둔다.
- 사무총장 아래에 지원 사업 담당 인력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예상 조직표>



■ 사업 목표 ■

안을 보다

- 1) 협회조직의 현재를 진단하고, 점검한다.
- 2) 회원을 중심에 두고 협회의 내적 역량강화에 집중한다.
- 3) 작은도서관 정책제안, 정책협력을 통해 협회와 회원도서관 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협회는 다양한 사업수행, 기금의 운용 등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왔다. 이를 통해 협회의 역량은 강화됐으며, 대외적인 인지도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회원도서관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어려움을 타개하고, 굳건히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협회는 2019년을 회원도서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한 해로 정하고 2019년의 사업목표를 ‘안을 보다’로 정한다.

고군분투하며 작은도서관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협회 작은도서관을 돕는 조직으로서 협회의 현재를 돌아보고, 진단하며, 현재 작은도서관에게 주어진 상황과 협회의 문제 등을 점검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협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초점을 ‘회원을 중심으로 한 내적역량강화’에 두게 될 2019년은 작은도서관을 위한 정책 생산과 제안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전망을 제안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사업의 방향성을 갖고자 한다.

1. 회원사업

2019년 협회는 회원에게 한발 더 다가설 것이다. 이를 위해 사무국을 비롯한 협회의 모든 일상사업과 교육, 정책 사업 등은 ‘회원’에 중심을 둔다. 지부와의 밀접한 연대를 통해 협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자리를 만들고, 각 지부별로 필요한 교육과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려 한다. 협회는 각 지부별 모임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스스로 공부하며 길을 찾아 회원도서관과 협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정책사업

2019년 협회는 회원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공고히 다져간다. 협회와 회원도서관의 결속력은 각 도서관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책적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다. 협회와 회원도서관은 상호협력 하에 이 과정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각 회원 작은도서관들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고민, 생산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작은도서관 컨퍼런스’를 통해 외부로도 공유될 것이다.

3.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는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기금’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9년 센터는 기금사업의 수행과 더불어 협회에서 수행하는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은 작은도서관이 가장 필요한 분야의 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한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협회의 주관 하에 올해도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함께 진행한다. 4년차 주관사업자로서 작은도서관의 책문화기획력을 높여 나가도록 돕는다.

4. 이사회 활성화

이사회가 협회의 조직과 사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2019년 예산

*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관 제 4장 25조 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 예산서를 제출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회

2019년 수입부 예산						
항	목	산출내역	2019년 예산	대비	2018년 결산	
사업 수입	가입비	신규도서관 5만원*20개관	1,000,000	182%	550,000	
	도서관회비	회원도서관101개관229만원*12개월 협의회7개38만원*12개월 신규도서관20개관*6개월	34,440,000	110%	31,385,000	
	이 사 회 비	내부이사(14명)	10,200,000	149%	6,850,000	
	자료회원회비	협회 자료회원 회비 20만원*12개월	2,400,000	156%	1,540,000	
	행사모금액	워크숍참가비3만원*60명 정책포럼5천원*20명*10회	2,800,000	109%	2,575,000	
	기타수입		예금 이자,인세수입 등	200,000	16%	1,284,734
			프로젝트사업 기관운영 지원금	9,000,000		
	소 계		60,040,000	136%	44,184,734	
기부금	지정기부금	CMS지정기부금	300,000,000	107%	279,353,800	
	비지정기부금	기타 후원금	5,000,000	129%	3,879,273	
	소 계		305,000,000	108%	283,233,073	
전기이월		2018년 이월금	16,628,258		16,628,258	
합계			381,668,258	111%	344,046,065	

2019년 지출부 예산					
항	목	산출내역	2019년 예산	대비	2018년 결산
인건비	급 여	2명*12개월	45,600,000	197%	23,200,000
	사회보험 부담금	2명*12개월	4,560,000	337%	1,353,950
	퇴직급여	급여의1/12*12개월=456만원	4,560,000	112%	4,088,123
	소 계		54,720,000	191%	28,642,073
운영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출장비, 식사비, 다과비등	1,500,000	138%	1,085,970
	행사진행비	총회 진행비 등	2,000,000	211%	947,000
	복리후생비	20만원*12개월	2,400,000	108%	2,224,550
	회 의 비	운영위원회5회*7개*5만원=175000 이사회5회*10만원=500000	2,250,000	114%	1,979,770
	지급수수료	법인, 입찰, cms수수료, 우편요금, 문자발송 등	1,500,000	140%	1,074,744
	통신비	전화요금, 인터넷, 웹하드, 호스팅비 등	500,000	100%	0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등	300,000	100%	0
	세금과공과	국세, 지방세등	300,000	100%	62,500
	비 품 비	자산성 비품(PC, 냉난방기 등)	700,000	100%	0
	수선비	수리비	500,000	154%	325,000
	소모품비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4만원*12개월	480,000	241%	198,900
	임차료및관리비	임차료 예비비	2,000,000	100%	0
	홍보비	홍보물제작, 홍보부스 운영, 홈페이지관리비용 등	500,000	100%	
	기타비용		18,258	235%	7,760
	소 계		14,948,258	189%	7,906,194
사업비	회원사업비	신규회원확대, 회원워크숍, 회계및기부금관련회원도서관지원, 지부방문, 지부장수련회, 지부모임연1회등	10,000,000	308%	3,251,030
	교육사업비	아카데미 10개지부	1,000,000	395%	253,000
	정책사업비	정책포럼, 도서관대회, 정책연구용역 등	1,000,000	702%	142,500
	도서관지원사업비	지정기부금(CMS) 배분	300,000,000	107%	279,353,800
	소 계		312,000,000	110%	283,000,330
예비비	예비비				
합계			381,668,258	119%	319,548,597

임원 선출에 관한 (안)

*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관 제 3장 13조, 14조에 의거 다음과 임원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추천하니 절차에 따라 선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회

<참고>

● 임원선출 관련 정관 내용 ●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 이상 21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이상

제14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뽑는다.
2. 이사의 과반수는 현직 어린이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일어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4. 우리 회 피선거권자는 도서관 운영을 1년 이상하였고, 6개월 이상 정회원 활동을 한 자로 한다.

● 임원 추천 (안) ●

이사장 : 박소희

이사 : 박소희, 박미숙, 백영숙, 김자영, 마연정, 김경희(전주), 백현진, 손보경, 김명희, 강영미, 이순애, 김영주, 이은주 (무순)

감사 : 사업감사 _ 최진봉, 회계감사 _ 이용건

규칙 개정 (안)

*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관 제 4장 2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니 승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회

개정 전	개정 안
<p>(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규칙</p> <p style="text-align: right;">2017. 1. 20 개정 본</p> <p>제1조(회원) 1. 회원은 정회원(도서관 회원, 단체 회원, 개인회원)과 자료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기존 정회원과 기본교육을 이수한 도서관 운영자회원, 단체 회원, 개인회원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회원 :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지역 지부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단체 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지부회의를 	<p>(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규칙</p> <p style="text-align: right;">2017. 1. 20 개정 본 2019. 1. 24 개정 본</p> <p>제1조(회원) 1. 회원은 정회원(도서관 회원, 단체 회원, 개인회원)과 자료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기존 정회원과 기본교육을 이수한 도서관 운영자회원, 단체 회원, 개인회원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회원 :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지역 지부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단체 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지부회의를

<p>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된다. 단체 회원은 도서관회원 1인의 자격을 가진다. (단체 회원이라함은 지역 어린이 또는 작은도서관협의회 등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개인 회원 : 도서관 회원이나 단체 회원이 아닌 이사로 한정한다. (회비는 이사회비로 같음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명예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원이 된다. <p>2.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회원 가입서를 (별첨1) 작성, 사무국에 제출한다.</p> <p>3. 회원 가입에 따른 지부 실사는 가입서를 제출한 30일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p> <p>4.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서면의결을 할 수 없으나, 회원 가입에 한해서는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p> <p>제2조(회비) 이사와 회원 회비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 월5만원 CMS 또는 연 60만원 (도서관장일 경우 도서관 회비를 포함한다) • 도서관운영자회원 : 월 2만원 이상 CMS 또는 연 24만원 이상, 가입비 5만원 	<p>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된다. 단체 회원은 도서관회원 1인의 자격을 가진다. (단체 회원이라함은 지역 어린이 또는 작은도서관협의회 등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개인 회원 :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으로 활동했던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현재 단체 회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개인 회원은 전체 정회원의 1/3을 넘지 않는다. 개인 회원이 이사가 되는 경우, 회비는 이사회비로 같음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명예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원이 된다. <p>2.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회원 가입서를 (별첨1) 작성, 사무국에 제출한다.</p> <p>3. 회원 가입에 따른 지부 실사는 가입서를 제출한 30일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p> <p>4.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서면의결을 할 수 없으나, 회원 가입에 한해서는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p> <p>제2조(회비) 이사와 회원 회비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 월5만원 CMS 또는 연 60만원 (도서관장일 경우 도서관 회비를 포함한다) • 도서관운영자회원 : 월 2만원 이상 CMS 또는 연 24만원 이상, 가입비 5만원 • <u>개인회원 : 월 2만원 이상 CMS 또는 연 24만원 이상, 가입</u>
--	---

- 단체 회원 : 월 5만원 CMS 또는 연 60만원, 가입비 5만원
- 자료회원 : 월 1만원 CMS 또는 연 12만원

제3조(법인 발전 기금) 협회이름으로 외부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5%를 법인 발전기금으로 낸다. 또한 기타 현물을 제외한 외부 지원을 받을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액을 법인 발전기금으로 낸다.

제4조 (총회의 운영)

1. 총회 정족수에 포함되는 정회원 가운데 도서관 회원과 단체 회원은 각각 대표성을 가진 1인에게 자격을 주도록 한다.
2. 이때 대표 권한은 각 도서관이나 단체가 정한 데로 주어지며, 도서관회원이나 단체 회원은 대표성을 가진 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3. 총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형식은 ① 총회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② 의장 ③ 총회 결과 의 세 경우로 하며 ③을 선택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포함하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총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총회에서 정한 5인 이상 10인 이내 정회원들의 기명날인 뒤 총회가 열리고 난 14일 이내에 정회원들에게 공고하도록 한다.

제 5조 (이사회)

1.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형식은 이사회에 참석

비 5만원

- 단체 회원 : 월 5만원 CMS 또는 연 60만원, 가입비 5만원
- 자료회원 : 월 1만원 CMS 또는 연 12만원

제3조(법인 발전 기금) 협회이름으로 외부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5%를 법인 발전기금으로 낸다. 또한 기타 현물을 제외한 외부 지원을 받을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액을 법인 발전기금으로 낸다.

제4조 (총회의 운영)

1. 총회 정족수에 포함되는 정회원 가운데 도서관 회원과 단체 회원은 각각 대표성을 가진 1인에게 자격을 주도록 한다.
2. 이때 대표 권한은 각 도서관이나 단체가 정한 데로 주어지며, 도서관회원이나 단체 회원은 대표성을 가진 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3. 총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형식은 ① 총회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② 의장 ③ 총회 결과 의 세 경우로 하며 ③을 선택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포함하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총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총회에서 정한 5인 이상 10인 이내 정회원들의 기명날인 뒤 총회가 열리고 난 14일 이내에 정회원들에게 공고하도록 한다.

제 5조 (이사회)

1.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형식은 이사회에 참석

<p>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다.</p> <p>2. 이사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뒤 이사회가 열리고 난 14일 이내에 정회원들에게 공고하도록 한다.</p> <p>제 5조 (임원의 선출 및 구성)</p> <p>1. 임원의 선출에 있어 임원의 결원이 생기더라도 정수 안의 범위인 경우 차기 정기총회에서 보선을 하도록 한다.</p> <p>제 6조 (선거관리)</p> <p>1. 임원의 선출에 관련된 선거 관리 업무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의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 선거에 관련된 선출 방식과 내용을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p> <p>2. 선거관리위원장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p> <p>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p> <p>1.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이 겸하고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p> <p>2. 운영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로 하되 이사장, 상임이사,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운영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3. 운영위원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p> <p>4.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뒤 운영위원회가 열</p>	<p>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다.</p> <p>2. 이사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뒤 이사회가 열리고 난 14일 이내에 정회원들에게 공고하도록 한다.</p> <p>제 6조 (임원의 선출 및 구성)</p> <p>1. 임원의 선출에 있어 임원의 결원이 생기더라도 정수 안의 범위인 경우 차기 정기총회에서 보선을 하도록 한다.</p> <p>제 7조 (선거관리)</p> <p>1. 임원의 선출에 관련된 선거 관리 업무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의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 선거에 관련된 선출 방식과 내용을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p> <p>2. 선거관리위원장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p> <p>제 8조 (운영위원회 운영)</p> <p>1.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이 겸하고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p> <p>2. 운영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로 하되 이사장, 상임이사,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3. 운영위원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p> <p>4.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참석 운영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뒤 운영위원회가</p>
---	--

리고 난 14일 이내에 정회원들에게 공고하도록 한다.

제7조(지부 운영) 협회는 지부를 구성한다.

1. 지부 구성은 3개 이상 도서관 회원 및 단체 회원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2. 지부 회의는 연 3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지부 회의 성원은 구성원의 1/2 참석, 의결은 출석인원 1/2 찬성으로 한다.
3. 지부장은 지부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4. 지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1. 지부장은 지부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2. 위의 방법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위임한 것으로 판단하며 회의결과에 따른다.

제9조(도서관 운영규정)

1. 회원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운영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서관은 주 3회 이상 정해진 시간에 개관해야 한다.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도서관 실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실사표(별첨2)에 따른다.

열리고 난 14일 이내에 정회원들에게 공고하도록 한다.

제 9조(지부 운영) 협회는 지부를 구성한다.

1. 지부 구성은 3개 이상 도서관 회원 및 단체 회원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2. 지부 회의는 연 3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지부 회의 성원은 구성원의 1/2 참석, 의결은 출석인원 1/2 찬성으로 한다.
3. 지부장은 지부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4. 지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1. 지부장은 지부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2. 위의 방법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위임한 것으로 판단하며 회의결과에 따른다.

제 11조(도서관 운영규정)

1. 회원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운영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서관은 주 3회 이상 정해진 시간에 개관해야 한다.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도서관 실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실사표(별첨2)에 따른다.

1 새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컨설팅, 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연구와 더불어 어린이 책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연구, 작은도서관 기본장서 연구,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도서관 수탁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책 문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살아온 길

- 1998.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창립총회**
- 1999. 어린이도서관 현황 자료집 발간
- 2001. 어린이도서관용 분류법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 2004. 문화관광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문광부 제3호)
- 2005. **‘사단법인 어린이와 도서관’ 문광부에 등록**
- 2006.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집 출판 (국립중앙도서관 지원 사업)
- 2007.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법인명칭 변경, 문화관광부 승인**
- 2008. 마포구 작은도서관 3개관 수탁운영, 전국 어린이책 잔치 한마당
- 2009. 도서관의어린이자로 선정기준에관한 해외문헌 및 사례연구(어린이도서관문화재단 지원)
- 2010. 전국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문예진흥기금),
2010~2014. 도서관 책꾸러미 둘러보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011~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도서관학교.
2011. 평화를 나누는 도서관 작은음악회(서울시지원)
- 2012~2013. 청소년 인문학 소풍(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지원)
2012~ 별별마을 책읽는 도서관(아름다운가게 지원)
- 2013~2015.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 수탁 운영
2013~2014. 청소년 인문학 프로젝트 옴니버스(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2014.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 201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로 명칭 변경**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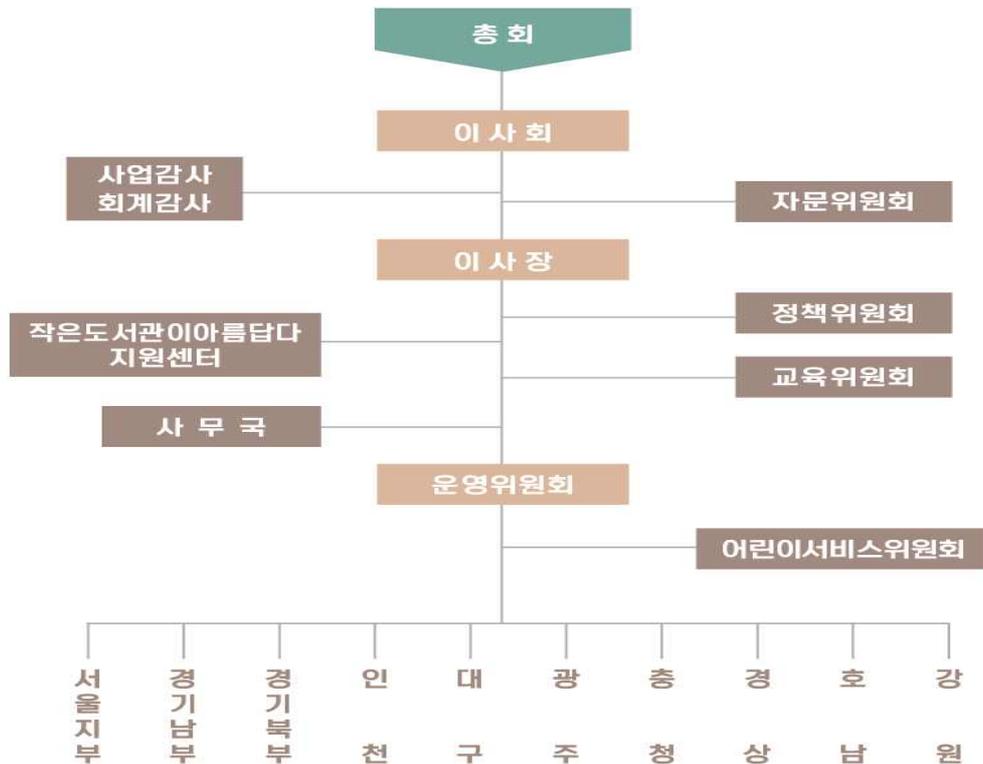
작은도서관 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북유럽도서관탐방 (도서문화재단씨앗),
 서울SH작은도서관 강남레미안포레, 서초 포레스타3,5단지 위탁운영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2016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포럼

- 2016.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일본도서관탐방 (도서문화재단씨앗),
- 2017.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도서문화재단씨앗),
 싱가포르 도서관탐방
- 2018.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도서문화재단씨앗),
 마포사랑방인문학
 독일 메르헨가도 탐방
 #작은도서관무슨책읽어? 캠페인

구성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 총 10개 지부(강원, 경기북부, 경기남부, 광주, 대구, 경상, 서울, 인천, 충청, 호남)와 어린이서비스 위원회,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총 7개 지역협의회(마포작은도서관협의회, 성북구작은도서관네트워크,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성남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를 포함 총 253개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세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주요 활동

-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운영 컨설팅

작은도서관 · 어린이도서관이 마을에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장서, 책문화 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운영 컨설팅을 하였다.

-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 운영자와 실무자 양성 교육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작은도서관의 조직,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 책 문화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도서관학교와 워크숍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실무자를 재교육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연구와 자료 발간

1999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2005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자료집』
 2006년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사)어린이와 도서관』
 2007년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2008년 『도서관에 엄마가 있다 : 품앗이를 위한 도서관학교』
 2010년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외 문헌 및 사례 연구』
 2010년 『전국 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2013년 『작은도서관의 이해와 실제』
 2014년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2014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2015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5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5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결과자료집 마지막 수요일엔 작은도서관 똑똑똑』, 『북유럽도서관을 듣다』
 2016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6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6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2017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7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7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2017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 다양한 독서 및 도서관 사업

① 도서관 책꾸러미 둘러보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농어촌, 도서벽지 등 책과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전교생 150명 이하의 학교에 책 둘러보기,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하여 책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②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③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 서울 아름다운가게 배분사업

서울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독서 및 도서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지원

④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_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작가 및 독서 문화예술 강사들을 파견해주는 사업

⑤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주 2-3회 독서활동가가 독서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작은도서관 포럼 및 연구 활동

작은도서관 관련 다양한 포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포럼을 여는 활동을 합니다.

주제 종류	주제
현안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과 SH도서관의 방향성
현안	작은도서관 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
현안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과 과제
현안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활성화와 활용방안
현안	순회사서 제도에 대한 진단과 방향
현안	작은도서관 표준조례 연구
현안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 제안 방향과 내용
사례	공립작은도서관 모범사례 발표와 방향
사례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모범사례와 방향
사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 사례와 과제
연구	작은도서관 통계에 따른 변화와 앞으로 과제
연구	작은도서관 책문화 활동 방향과 기획
연구	작은도서관과 마을공동체 방향과 과제
연구	작은도서관 이용자 분석과 그에 따른 서비스 방향
연구	작은도서관 기초장서 목록 필요성과 목록의 방향
연구	작은도서관 간략 분류법 연구

새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주소	(0319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8-7 2층		
전화	02-388-5933	팩스	02-388-5922
홈페이지	smalllib.org		

정 관

2005. 03. 제정
2007. 02. 1차 개정
2009. 04. 2차 개정
2011. 05. 3차 개정
2013. 02. 4차 개정
2015. 11. 5차 개정
2016. 01. 6차 개정
2017.01. 7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1. 이 법인은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이하 ‘우리 회’라 한다)라 한다.
2. 우리 회의 영문 표기는 Child and Small Library Association로 하고 약자표기는 CSLA로 한다.

제2조(소재지) 우리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둔다.

제3조(목적) 우리회는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문화운동을 펼치며 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우리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어린이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확산하는 사업
2.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확산하는 사업
3. 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 워크숍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책과 간행물 발간
5.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를 위한 교육
7. 이 밖에 우리 회 목적에 맞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1. 우리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때에 그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우리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정한

경우를 빼고는 받는 사람의 성별, 태어난 곳, 나온 학교, 직업, 사회적 지위 따위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1. 우리 회 회원은 정회원과 자료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2. 회원 세부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우리 회의 설립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지부의 실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자격이 주어진다.
2. 명예회원의 자격과 가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우리 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우리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자료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나와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2. 회원은 우리 회의 제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우리 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4. 정회원이 집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집단에서 한 사람을 뽑아 그 대표자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1. 우리 회의 정관과 규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우리 회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냄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상벌)

1. 우리 회의 회원으로서 우리 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상을 줄 수 있다.
2. 우리 회의 회원으로서 우리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한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 이상 21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이상

제14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뽑는다.
2. 이사의 과반수는 현직 어린이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일어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4. 우리 회 피선거권자는 도서관 운영을 1년 이상하였고, 6개월 이상 정회원 활동을 한 자로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우리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사이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뚜렷한 부당행위
3. 우리 회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
4.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선임 제한)

1.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족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끼리 또는 이사와 제1항에 의한 소정의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뽑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우리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4. 우리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①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②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옳지 않은 일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일을 바로잡도록 요구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알리는 일
- ③제3호의 일을 위해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④우리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내세우는 일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하고서도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우선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행 기간은 이사장의 자리가 비게 된 날로부터 2개월을 넘어설 수 없으며, 2개월이 넘을 경우,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20조(상임이사)

1. 우리 회의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가운데서 선임한다.

제 4 장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회계연도 마감 이후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나온 이사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뽑는다.

제24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가 나오면 열리고, 나온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의장에게 내야 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우리 회의 해산과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정관과 규칙 개정
6. 사업계획의 승인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과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들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우리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제13조에 규정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구분과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이사와 감사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

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나온 이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뽑아 진행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31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나오면 회의를 열고 나온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이사회회의 의결권을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내야 한다.

제32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올릴 안건의 작성
9.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부의하는 사항과 중요사항

제 6 장 조 직

제33조(기구) 우리 회사는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와 직책을 둘 수 있다.

제34조(자문위원회)

1. 우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연다.
3. 자문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 ①중요 사업 또는 연구 기획에 관한 사항
 - ②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 35조(운영위원회)

1. 우리회의 일상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토의,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각 지부장 1인,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6조(지부)

1. 우리회의 회원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부의 설립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3. 지부는 자체의 조직체계, 재정체계, 사업체계를 가진다.
4. 지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위원회)

1. 우리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그 설치 취지와 활동방식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우리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우리 법인을 세울 때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밖의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만든다.

제3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회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의무의 부담과 권리의 포기,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수입금)

1.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41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 사용, 기본재산 편입과 목적사업에 쓸 수 있다.

제43조(예산편성) 우리 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4조(결산) 우리 회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6조(회계 연도)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7조(임원의 보수) 우리 회의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뺀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주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줄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48조(사무국)

1. 우리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4.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9조(법인 해산)

1. 우리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우리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3. 우리 회 해산 뒤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5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업무보고 등)

1.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올해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내야 한다.
2. 우리 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한 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제5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우리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4조의 규정이 있지만, 우리 회 설립당초의 임원과 그 임기는 “별지2”와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이 있지만, 우리 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3”

과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우리회의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모두가 기명날인한다.

규칙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규칙

2016. 01. 29 개정 본

2017. 01. 02 개정 본

2019. 01. 24 개정 본

제1조(회원)

1. 회원은 정회원(도서관 회원, 단체 회원, 개인회원)과 자료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기존 정회원과 기본교육을 이수한 도서관 운영자회원, 단체 회원, 개인회원을 말한다.

- 도서관 회원 :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지역 지부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단체 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지부회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된다. 단체 회원은 도서관회원 1인의 자격을 가진다. (단체 회원 이라함은 지역 어린이 또는 작은도서관협의회 등을 말한다.)
- 개인 회원 :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으로 활동했던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현재 단체 회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개인 회원은 전체 정회원의 1/3을 넘지 않는다. 개인 회원이 이사가 되는 경우, 회비는 이사회비로 같음한다.
- 자료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명예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원이 된다.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회원 가입서를 (별첨1) 작성, 사무국에 제출한다.
3. 회원 가입에 따른 지부 실사는 가입서를 제출한 30일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4.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서면의결을 할 수 없으나, 회원 가입에 한해서는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2조(회비) 이사와 회원 회비는 다음과 같다.

- 이사 : 월5만원 CMS 또는 연 60만원
(도서관장일 경우 도서관 회비를 포함한다)
- 도서관운영자회원 : 월 2만원 이상 CMS 또는 연 24만원 이상, 가입비 5만원
- 개인회원 : 월 2만원 이상 CMS 또는 연 24만원 이상, 가입비 5만원

- 단체 회원 : 월 5만원 CMS 또는 연 60만원, 가입비 5만원
- 자료회원 : 월 1만원 CMS 또는 연 12만원

제3조(법인 발전 기금) 협회이름으로 외부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5%를 법인 발전 기금으로 낸다. 또한 기타 현물을 제외한 외부 지원을 받을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액을 법인 발전기금으로 낸다.

제4조 (총회의 운영)

1. 총회 정족수에 포함되는 정회원 가운데 도서관 회원과 단체 회원은 각각 대표성을 가진 1인에게 자격을 주도록 한다.
2. 이때 대표 권한은 각 도서관이나 단체가 정한 데로 주어지며, 도서관회원이나 단체 회원은 대표성을 가진 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3. 총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형식은 ① 총회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② 의장 ③ 총회 결과 의 세 경우로 하며 ③을 선택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포함하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총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총회에서 정한 5인 이상 10인 이내 정회원들의 기명날인 뒤 총회가 열리고 난 14일 이내에 정회원들에게 공고 하도록 한다.

제 5조 (이사회)

1.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형식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 면으로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다.
2. 이사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의 기 명날인 뒤 이사회가 열리고 난 14일 이내에 정회원들에게 공고하도록 한다.

제 6조 (임원의 선출 및 구성)

1. 임원의 선출에 있어 임원의 결원이 생기더라도 정수 안의 범위인 경우 차기 정기총 회에서 보선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선거관리)

1. 임원의 선출에 관련된 선거 관리 업무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 에 의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 선거에 관련된 선출 방식과 내 용을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8조 (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이 겸하고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로 하되 이사장, 상임이사,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참석 운영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뒤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난 14일 이내에 정회원들에게 공고하도록 한다.

제 9조(지부 운영) 협회는 지부를 구성한다.

1. 지부 구성은 3개 이상 도서관 회원 및 단체 회원을 기본구성으로 한다.
2. 지부 회의는 연 3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지부 회의 성원은 구성원의 1/2 참석, 의결은 출석인원 1/2 찬성으로 한다.
3. 지부장은 지부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정회원 자격이 있는자여야 한다.
4. 지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1. 지부장은 지부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2. 위의 방법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위임한 것으로 판단하며 회의결과에 따른다.

제 11조(도서관 운영규정)

1. 회원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운영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서관은 주 3회 이상 정해진 시간에 개관해야 한다.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도서관 실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실사표(별첨2)에 따른다.

회원 주소록

서울지부(25)	가입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소
곰세마리 어린이도서관	2007	02-742-3385	조영진 김은경	성북구 삼선교로54(303호)
꿈틀어린이도서관	2014	02-2243-2315	정윤영	동대문구 전농로16길 59 (전농동)
날마다 자라는 나무	2009		김미선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00-2 2층
노원어린이도서관	2013	02-933-7145	김하야나	서울시노원구한글비석길346
느티나무도서관	2012	02-3298-0918	김신아	중구 신당동 353-24 다니엘 빌딩 2층
무수골도서관	2014	02-3492-0078	허운순	서울시도봉구도봉로175길10 3층
마포작은도서관 협의회(9)	2015	02-373-2900	백현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 대우복지관 3층
생글작은도서관	2007	02-992-7500	이벽주	도봉구 우이천로32길35, 2층 (쌍문동)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2011	02-817-6684	박혜진	서울시 동작구 상도 4동 263-8(2층)
아차산이래 작은도서관 '놀자'	2014	02-2272-2011	박선주	광진구 자양로50가길 45 2층, (구의동26-1)
웅기종기도서관	2012	070-8118-347 4	백수현	강동구 양재대로 1512 이화빌딩 2층
우디안 나무그늘 작은도서관	2015	02-3421-1413	최정희	서울중랑구신내역로165203동1층 (신내동신내우디안2단지)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	2011	02-892-7894	양기순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43-8
작공청소년도서관	2013	070-7657-153 3	박선호	은평구연서로21길16, (갈현동,1층좌측)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2005	02-2297-5935	우미선	성동구 매봉로18길 11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2014	02-478-8600	김자영	강동구 구천면로42길 60
초록나라도서관	2014	02-956-7956	김일오	도봉구 도봉산3길 92,지하 (도봉동)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	2005	02-428-4686	정선옥	강동구 고덕로83길 28 (백두쇼핑 2층)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2015	02-3421-9686	장재혁 최선영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1길85. 우디안@ 111동1층
성북구작은도서관 네트워크(15) (나눔의집 꿈틀도서관)	2015		정동희 김은하	하늘비전도서관 꿈터작은도서관
행복한작은도서관	2015	02-2625-5279	최형묵 명수희	서울 구로구 개봉로15길 42 2층
지혜의 숲작은도서관	2016	070- 7169-4313	이명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0길 25
흥부네그림책 작은도서관	2016	02-2060-1742	이남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1길 30

배고픈사자	2018	02-855-1211	최재희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54-3.3층
다운작은도서관	2018	02-474-7009	노인숙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1-3번지 2층
경기북부지부(7)	가입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소
고양시작은도서관 협의회(21) (청소년북카페 깔깔깔)	2014	031-901-3213	최향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경의로 318번지 백마역2층
반디작은도서관	2014	031-938-3722	이은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8번길 7-20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2006	031-967-8777	박미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8번길 2층
청소년문화공간 깔깔깔	2015	031-901-3213	최향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경의로 318번지 백마역2층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2018	031-901-2375	김정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	2018	031-953-1625	홍유리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로 389번길 42-19
뜰안에작은나무 작은도서관	2018	070-8879-139 1	나유진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2-1. 2층
경기남부지부(15)	가입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소
태평동도서관	2010	031-754-0158	김진주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8번길 5-13
꿈꾸는 달팽이도서관	2014	031-792-6289	유명삼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78 2층
민들레도서관	2015	031-722-3336	임은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480 (1층)
성남작은도서관협 의회(36)	2009	031-702-9622	이은정	분당구 정자동 65-5번지 303호
애기똥풀 도서관	2014	031 565 3066	한은희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99번길 99 성운빌딩3층
책이랑 도서관	2006	031-732-7004	박정숙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25번길 44-10
푸른어린이도서관 (안양)	2013	031-464-0815	이시내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149-1 금호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층
푸른어린이도서관 (성남)	2010	031-749-3690	최성은 전효선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58
하늘달팽이도서관	2015	070-8861-057 4	최연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471
하늘소도서관	2015	031-552-2288	이기원 장은지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14. 2층 201호(금곡프라자)
해님달님 작은도서관	2016	031-8025-300 0	임미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34, 2층
좋아서가는도서관	2016	010-8791-061 5	손영선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27
꿈&휴작은도서관	2016	031-755-0128	조은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000 성남센트럴타운커뮤니티센터
함께하는 마을 작은도서관	2017	010-4682-936 3	신유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길 10(지하)
노을작은도서관	2018	031-683-6724	김영정	경기도평택시안중읍현화로서8길57. 봄봄프라자205-2

강원지부(6)	가입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소
꾸러기 어린이도서관	2009	033-255-2125	이선미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214 2층
(재)도서문화재단씨 앗 담작은도서관	2009	033-256-6363	김성란	강원도 춘천시 호자문길 7번길 10
철암도서관	2014	033-581-7701	박미애	강원도 태백시 피내골길23
뒤뚜르어린이 도서관	2012	070-8237-875 4	강영일 이순애	강원도 춘천시 세실로 208번길8-5
앞짱어린이도서관	2016	033-253-1592	용금예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64 퇴계주공6차아파트 관리동 2층
스무숲도서관	2016	070-7773-486 3	홍선희	춘천시 석사동 현진에버빌1차 관리사무소 2층
인천지부(4)	가입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소
인천작은도서관 협의회(14)	2014	032-766-3092	손보경	인천시 동구 송현로17 3층
자람도서관	2015	032-937-2596	전민성	인천 강화군양도면 강화남로 666
늘푸른 어린이도서관	2005	032-818-0645	이은주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626-11 3층
꿈나무작은도서관	2015	032-471-6355	김광원	인천시 남동구 만수서로 37번길 29
충청지부(13)	가입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소
솔메이골 작은도서관	2015	010- 8763-4007	한승주	충북 괴산군 문장로 2904-6
고맙습니다 도담도담작은도서관	2008	043-836-1690	손정아	충북 증평군읍 초중리 한라비발디 관리동 2층
하소아동복지관 내보물1호도서관	2010	043-646-7722	백영숙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23길 26번지 (하소동)
제천기적의도서관	2015년 재가입	043-644-1215	강정아	제천시 용두천로 38길30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	2010	043-652-0070	석진	충북 제천시 관전로2길6 (신백동)
초롱이네 도서관	2005	043-296-5050	오혜자박 춘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4번길 38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2015	043-732-5600	박정호	충북 옥천군 안남면 안남로 456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2016	044-715-5570	안지민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샛터 3길 3
청주시작은도서관 협의회(44)	2016		홍승표	청주시 당당구 용암로 94-1
도토리숲 작은도서관	2018	010-5212 -8108	윤순현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27번길 26
범지기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세종)	2018	010-2076 -2089	윤나영	세종시 달빛로 211 범지기마을10단지
성성푸른도서관	2018	041-568-3457	박민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111. 천안레이크타운푸르지오 UZ센터

대구지부(8)	가입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소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더불어숲	2009	053-326-0937	원수연	대구광역시 북구 학남로 17길 2 (국우동, 해일빌딩 3층)
책마실도서관	2012	053-324-0615	손수정	대구시 북구 구리로 26(동천동) 우방하이츠상가 지하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2012	070-8821-523 4	김은자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359 5층
꿈꾸는마을도서관 도토리	2012	053-327-0645	진은주	대구 북구 구암로 146, 3층
반야월어린이 도서관 아띠	2014	053-961-3307	김수민	대구시동구울하동로23길,8-12층
해봄도서관	2016	010-8445-803 5	이향화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511-26
무지개작은도서관	2017	053-587-0675	김정자	대구 북구 관음동 209-7. 3층
그나라 어린이도서관	2018	053-311-1324	박성원	대구북구대천로85.5층
경상지부(8)	가입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소
동화랑 놀자	2010	051-819-6150	허운영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106, 3층 (부암동)
풀빛꽃빛어린이	2007	054-430-2918	강금	경북 김천시 부곡맛고을2길 72 (부곡동)
마하어린이도서관	2013	055-753-9922	강임화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55. 2층
진주달팽이	2008	055-761-8803 055-762-5814	박혜정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1413번길2. 2층(하대동)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2017	052-288-3710	하현숙	울산시 북구 염포로 521-1
팔판작은도서관	2018	055-312-9822	신훈정	경남 김해시 덕정로 68.팔판마을 부영e그린3차 관리동 지하1층
불암동작은도서관	2018	055-336-7879	장지혜	경남 김해시 식만로 389-5 선암마을회관 3층
울산북구작은도서 관협의회(13)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2018	055-288-3709	김정숙	경남 울산 북구 신기3길 19-6 관리동2층
광주지부(7)	가입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소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	2012	062-370-1811	이미정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700-1 기아스포츠클럽문화센터3층
소꿉놀이 작은도서관	2014	062-385-7789	조동욱 문선화	광주광역시서구금호동743-3 금호시영 3단지 상가 2층
강아지똥어린이	2012	062-515-9788	김태진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로 6, 2층 (동천동)
아이숲어린이	2008	062-652-1279	문상희	광주시 서구 풍암2로 2 롯데슈퍼센터4층
책문화공간 봄	2015	062-681-5432	김순정	광주시남구노대동송화마을845번지 카페 디마레 2층
책돌이도서관 (어도연광주 지부부설)	2008	062-266-7279	전선예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35 (오치동) 2층

구름다리 작은도서관	2016	062-971-7260	구선아	광주시 광산구 월계로59 관리동 2층
호남지부(9)	가입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소
하늘을 나는 도서관	2014	061-282-2344	김선실	전남 목포시 하당로 68번길 19-1(상동)
작은나무도서관	2014	061-743- 4071	곽길여	전남 순천시 중앙로 46
순천기적의도서관	2005	061-749-8899	정봉남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기적의도서관 길 60
삼성동어린이작은 도서관	2014	063-834-3612	최민정	전북 익산시 부송로 125 삼성동주민자치센터 2층
책마루 어린이도서관	2009	063-252-1612	김경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솔내2길 21. 책마루어린이도서관
여우네도서관	2011	041-956-2020	김명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신장로 233-27
설문대도서관	2005	064-749-0070	강영미	제주도 제주시 신대로10길 48-9 (연동)
달리도서관	2011	064-702-0236	윤홍경숙	제주도제주시신성로12길 21-2, 2층 (이도이동)
새싹작은도서관	2015	070-4246 -2308	이경화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64번지

서울어린이안락도서관협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8-7 2층
02-388-5933 smalllib.org